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2월 14일)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교육 불사 10년 승가 변화 이끌다

조계종 승가교육 개혁불사 10년 성과와 과제 (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법의 흥망성쇠는 도제불사의 공력에 좌우됩니다. 교육은 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작불사임을 사부대중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월 7일 발표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신년교시 중 일부다. 종정 스님의 신년교시와 함께 본격화 된 조계종 승가교육 개혁불사가 10년을 맞았다. 이는 '지혜를 이루고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교육' 과 '전법교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 이라는 조계종 교육원의 교육 기조로 반영됐으며, 제6·7대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추진한 10년 교육불사의 바탕이었다.

전통 교육을 현대의 옷으로

10년 간 승가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본교육의 혁신이다. 가장 많은 변화는 교육 방식과 내용이다. 이전 교육이 한문불전 중심으로 이뤄진 훈고학적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말 중심의 토론식 수업으로 변화했다.

교육의 커리큘럼도 △초기 △대승 △선 △한문 △계율 △불교사 △포교와 실천 등 7개 분야 34개 필수과목을 통해 부처님의 교법을 이해하고 전법교화 활동 전망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또한 포교·상담·종무행정·자원봉사까지 현대적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찰승가대학을 기존 19곳에서 14곳으로 재편하는 대신 율학·선학·초기불교·한문불전 등 승가대학원 체계를 만들어 기본교육 후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학인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승가교육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학인대회다. 염불·외국어·토론·설법 등의 분야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학인 스님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재능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가 공고해진 것도 큰 의미다. 대표적인 것이 장학승 제도의 활성화다. 2011년 시작된 '국내외 장학승' 공모 제도는 현재까지 128명의 학인 스님들에게 15억 원이 지원됐다.

해외전법인력 양성을 위해 2011년 개원한 용인 화운사 비구니 국제불교학교를 2015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영어학과(석사과정)으로 확대·전환시켰다. 지난 2014년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석·박사 통합의 한국불교융합학과는 역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처음 교육개혁불사를 진행하며 거의 1년간의 관련 법령 제·개정과 공청회 등을 통해 사부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했고, 이제는 안정화 단계"라면서 "당송 이후 조선 중기에 확립된 도제교육제도를 현대적 교육체계로 확립한 점이 그간 불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승가 평생교육 시대를 열다

교육불사 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연수의 활성화다. 그간 구족계 수지 이후 재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10년간의 불사는 '승가 평생교육 시대' 를 열게 했다.

지난 2011년 3개 분야 24개 강좌로 시작한 연수교육은 현재 강좌·순례형 등 10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연평균 5000여 명의 스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 받고 있다.

또한 연수인증교육 실시로 교육원이 전부 교육할 수 없는 분야를 인증교육으로 대체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불교자원봉사 연수까지 확대·실시했다.

특히 2012년 경주남산 불적답사를 시작으로 한 국내순례와 2013년부터 시작된 해외순례는 순례를 연수교육으로 정착시켜 새로운 순례문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구족계 수지 후 종사 법계 품수에 이르기까지 법계별 법계직무교육을 실시해 스님들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교양과 소양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0년 종정 신년 교시로 본격화
기본·전문·재교육 체재 완전 개편
단순 교육서 한글화·토론 중심으로
교육원 '트레이드 마크'된 학인대회

연수, 법계직무·전문역량 증대 '성과'
승가결사체 등 전법교화 강화 기조

시대에 맞는 승가상 구현 노력

승가교육 개혁불사는 10년 동안 기조가 한 번 바뀐다. 처음 기조가 '자리이타' 였다면 현재는 '전법교화' 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 이다. 4명 이상의 스님들이 모여서 전법·호스피스·해외포교 등을 추진하는 임의단체인 승가결사체를 구성하고 이를 교육원에 인증받으면 연수 인정과 함께 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이었다. 교육원은 지난해 18개 단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4개 단체에 2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스님은 모든 이의 사표로서 시대의 등불이자 목탁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원이 추진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전법교화에 나서는 전인적 승가상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3월 15일 명사 품계를 받은 소림 행돈 묘관 자민 법희 수현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 스님 등 11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품수식에서 불조의 혜명을 잇고 성불에 이르도록 물러남 없이 정진할 것을 간절히 다짐했다. 사진은 법계 품수 후 명사 스님들이 수여받은 여의(如意)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여의는 법회 때 법사가 손에 지니는 불구(佛具)로 깨달음과 자비를 상징한다.

"불퇴전 원력으로 전법도생을"

조계종 3월 15일 비구니 명사법계 품수식 봉행

대구 동화사서 12년 만에 개최
소림·행돈 스님 등 11명 품수
종정 진제 스님 '중생제도' 당부
불법증장, 종단발전 대중 발원

조계종 사상 두 번째로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가 탄생했다. 12년 만에 진행된 명사 법계 품수식에서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중생제도를 위한 끊임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15일 대구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비구니 명사 법계 품수식' 을 개최했다. 명사 법계는 조계종 최고 법계로 비구 스님의 대종사에 해당된다. 조계종에서는 2007년 첫 명사 법계 품수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품수다.

품수식에서는 소림 행돈 묘관 자민 법희 수현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 등 11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명사 법계를 수여받았으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등 1000여 대중이 운집해 명사 탄생을 축하했다.

품수식은 명종,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합송, 고불문 낭독, 법계증 및 가사 수여, 가사 정대, 여의 증정, 종정 법어, 축사,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명사 법계 품수 스님들에게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명사 스님들에게 여의(如意)를 봉정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명사 스님들에게 "명사 법계는 일평생 올곧은 수행과 덕성의 결실로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다. 금일 법계를 품서 받은 명사 스님들은 불덕과 지혜와 인품을 두루 갖춰 존경과 흠모가 따르니 만고의 귀감"이라며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연민과 자비로 대중을 섭수하고 행화에 매진해서 광도중생하여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장 세민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 법계를 받는 스님들은 일념정진으로 내심정관을 통해 개안을 얻었을 뿐 아니라 중생들에게 법익을 베풀 수 있는 교화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며 "시발정진으로 오늘의 성취가 있었다면 종성정진으로 생멸을 뛰어넘는 무생의 지혜를 닦아 조종문하의 기린이 되고 인천의 안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오늘 품서 받은 스님들은 수십 년 동안 수행에 철저하고 전법 도생에도 전력을 다했다. 또 후학 양성에도 매진해 온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 국민행복을 위해 정진해달라"고 말했다.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바다같이 한량없는 불법의 진실한 뜻을 깊이 수지하여, 광도중생의 대원과 번뇌불생의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 발원한다"며 "불조의 혜명을 잇고 성불에 이르도록 물러남이 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품수식에 참여한 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한 대중은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정진할 것을 다함께 발원한다"며 "이 인연공덕으로 불법이 더욱 증장하고 종단이 나날이 발전하며, 온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게 하자"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교육불사 후원법회

종단은 종정예하의 교시를 받들어 승가교육진흥위원장(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중심으로 승가교육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가교육 개혁불사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개최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원력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불기2563(2019)년 4월 10일(수) 오후 2시
-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지하 2층)
- 프로그램
  1. 종정예하 유시
  2. 인사말 : 총무원장 원행 스님
  3. 격려사 : 원로회의 의장 세민 대종사
  4. 지난 10년의 승가교육 추진 현황보고
  5. 교육불사 후원금 전달식
  6. 음성공양
- 후 원 국민은행 023501-04-213385 / 재)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문 의 02-2011-180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원행 합장

태고종 총무원장 첫 불신임

중앙종회 제136회 정기회서 찬성39 · 반대2 가결


3월 14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 앞 이면도로에서 속개한 중앙종회 제136회 정기회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출가재일에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각종 부정행위 의혹이 일면서 편백운 스님은 임기 반환점도 돌지 못한 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태고종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3월 14일 서울 태고종 총무원 앞 이면도로에서 제136회 정기회를 속개, 긴급 발의된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재적의원 53명 중 41명이 참여한 투표결과 찬성 39표, 반대 2표로 의결정족수인 36표를 넘겼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6가지로 제기됐다. 중앙종회는 △총체적 회계부정 △공문서 위조 △권한 없는 행위 △감사 거부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회계 부정 문제와 선출직 지방종무원을 총무원장 직권으로 직무정지 하는 등 독단적인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긴급발의한 前특별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은 "편백운 스님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종회의결로 시행된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원로의장 스님을 비롯한 종도들을 음해하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앞서 제기한 불신임 사유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할 것을 동의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투표결과에 따라 편백운 스님의 총무원장 권한이 부원장인 성오 스님에게 이전됐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은 2017년 7월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태고종 역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불신임의 남은 절차는 태고종 원로회의 인준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결과를 원로회의에 즉각 전달, 빠른 시일 내 원로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총무원 부장단인 총무부장 정선 스님, 재무부장 도진 스님, 교무부장 법도 스님, 규정부장 혜암 스님, 사회부장 청담 스님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결의했다.

회계부정 · 공문서 위조 등
5가지 불신임 사유 제기돼
원로회의 불신임 인준 남아
편백운 스님 "결의 수용 못해"

이날 중앙종회에는 원로의장 덕화 스님과 호법원장 지현 스님, 각 지방종무원장 등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된 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중앙종회 결과를 통해 종도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원로회의를 소집해 불신임안 인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부원장 성오 스님은 "원로회의 인준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중앙종회를 비롯해 여러 기구와 소통하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편백운 스님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결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종무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입장문에서 "집행부인 총무원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종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부장을 해임하고, 성오 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택한 결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도광 종회의장 등이 이미 총무원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사회법에 제소했으므로 그 결과를 따른다는 방침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밝히며 종무행정을 수행해나갈 것을 재천명한다"고 전했다.

황교안 "불교 관련 법 개선 협력"

조계종 예방, 국무총리 시절 이후 두 번째



꾸준히 종교편향 논란이 있어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황 대표는 과거 마곡사와 깊은 인연이 있다며 불교계 현안으로 대두된 각종 법령 개선에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원행 스님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황교안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사진〉 황 대표의 조계종 예방은 2015년 국무총리 시절 이후 2번째다. 이 자리서 황 대표는 "20대 초반 고시 공부를 마곡사에서 한 인연이 있다. 종교는 기독교지만 사찰서 공부해 오늘에 이르는 한 걸음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연공원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등 불교 관련 법령을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공주 마곡사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독립운동가 김구 주석도 잠시 머무르며 출가 수도했던 곳"이라며 "광복 후 다시 마곡사를 찾아 심은 향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가 호국불교에 대해 묻자 원행 스님은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불교는 국토와 민족을 부처님같이 섬기기 때문에 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위정자 입장에서는 호국불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불교적으로는 동체대비 사상을 구현하는 자유와 평화를 향해 대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뒤 스님과 황 대표 등은 문화 창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에 따르면 종단은 자유한국당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불교문화재를 점이 아닌 면 단위로 인식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지원 기자

불교 내 역할 모색한 전국비구니회

경주서 제11대 운영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국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 내 역할을 고찰하고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 이하 비구니회)는 3월 11~12일 경주 황룡원서 '전국비구니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워크숍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운영위원장 혜원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전국 지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5조로 나눠 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종합토론에서 발표해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서 모은 의견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에 전달,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검토한다.

토론 내용은 △출가자 감소 해결방안 △비구니 스님의 독거 노후 복지 △전국비구니회 운영 체제 개선 방안 △불교 내 비구니회 역할 △수익모델 개발 △재정확보 방안 등이다.

비구니회는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출가자 관리와 전문 복지 시스템을 위한 전국비구니회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현황 조사와 전문인력 채용, 노비구니 스님 양로시설 보완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거사회 및 전문인 대상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포교를 위한 수익 활동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은 김봉석 변호사가 '종법상 비구니의 지위와 역할'을, 김중태 IT문화원장이 'SNS와 인스타로 소통하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한편, 회장 육문 스님과 운영위원장 혜원 스님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회장 육문 스님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 앞으로 비구니 대중 스님들의 발전과 포교를 위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하성미 기자

韓 종교계, 룸비니 의료 지원 추진한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인도 · 네팔 성지순례서


국내 7대 종단 대표들이 쿠시나가르 열반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

한국 종교계가 네팔 룸비니 지역에 의료시설 건립이나 의료인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교와 천주교 등 한국 7대 종단 지도자들은 3월 8일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방문, 현지 관계자와 의료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네팔 문화관광부 산하 룸비니개발신탁(Lumbini Development Trust) 메테야 사키야푸타(Metteyya Sakyaputta) 부위원장은 룸비니 지역에 160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의료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7대 종단 지도자들은 병원 등 의료시설 건립을 지원하거나 현지 인력을 선발해 한국에서 의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 종교계가 협력해 룸비니에 의료시설을 짓고 의료진을 파견해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지 의료인력 양성도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은 "원광대 의료진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이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면서 "각 종단마다 의과대학이 있으니 현지 인력을 선발해 한국에서 의료교육을 받고 돌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본격적인 의료인 양성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선 현지 의료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 의료시설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은 네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실무진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 종교 지도자의 룸비니 방문은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 행사의 하나로 이뤄졌다. 이 순례는 3월 5~13일,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설법과 열반 유적지 등 인도와 네팔의 불교 4대 성지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순례에는 종지협 공동대표의장인 김희중 대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와 공동대표인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오도철 교정원장(원불교), 이정희 교령(천도교)을 비롯해 문체부 이우성 종무실장, 종지협 운영위원 등 19명이 참가했다.

네팔=공동취재단



韓학자, 南宋불상을 '신라'로 바꿨다


중국서 발견된 통일신라불상. 남송 시대 조성으로 중국은 추정했지만, 최응천 교수의 연구가 이를 바꿨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동국대박물관장)는 2009년 3월 중국과 일본학자들과 함께 중국 저장성 지역 공동연구조사를 떠났다.

마지막 일정에 최응천 교수는 닝보(寧波)시 외곽에 자리한 닝보박물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최응천 교수는 중국 불상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아미타불상을 만났다. 화려한 광배, 균형 잡힌 대좌와 잔잔한 미소의 상호는 우리네 불상이었다, 하지만 박물관은 불상의 조성연대를 남송시대로 평가하고 있었다.

해당 불상은 1982년 6월 닝보시 천봉탑의 지궁(地宮)을 발굴하던 중 출토된 것으로 불상을 봉안한 은제 불전에 남송 소흥 14년(1144)에 제작했다는 명문이 발견됐다. 이런 이유로 박물관은 남송 작품으로 추정한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최응천 교수는 '장보고 시대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양상과 특성' 이라는 논고를 2010년 발표했다. 그는 해상교류 지점으로서 닝보를 소개하며 자신이 발견했던 박물관의 통일신라불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다.

당시 최응천 교수의 논고에 따르면 해당 불상은 오른손을 가슴 위로 올리고, 왼손은 아래로 내린 통일신라 금동불상의 전형적인 수인을 취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통일신라 우드야나(優鎭王)식 불상 양식을 갖췄다. 광배에는 백색 진주를 군데군데 감장(嵌裝)해 장식성을 더욱 높였다.

그는 "균형 잡힌 불신과 볼륨감 넘친 얼굴 표현은 물론이고 광배와 대좌까지 완벽하게 남아있다. 광배에 장식된 화려한 진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로써도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제작된 최고의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최응천 교수 2009년 닝보博서
통일신라 추정 아미타불상 발견
중국, 남송시대 조성 작품 고수
최근 전시서 '통일신라'로 정정
"韓불상이 中건너간 사례 인정"

그렇다면 불상은 어떻게 중국으로 갈 수 있었까. 최응천 교수는 이후 기고한 칼럼 등을 통해서도 이 문제들을 천착했다. 그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이 교류 차원에서 보내졌던 것이 천봉탑이 중건되던 시기에 중국 불상과 함께 매납 △천봉탑이 건립될 당시에 넣어졌던 우리의 불상을 중건 당시에 다시 봉안 등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응천 교수는 "당시 동아시아 해상교류 거점이었던 닝보의 불교 사원이었던 천봉탑 지궁 안에 넣어진 불전의 주인공으로 봉안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비록 한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 불상의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불상도 중국에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봤다.

이 같은 논고와 칼럼들은 당시 언론들을 통해 소개됐고, 이후 중국 닝보박물관에 해당 불상이 전시관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던 중 1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항저우 저장성 박물관서 열린 '오대십육국시대의 불교금동조상전' 에 다시 출품된 것이 확인됐다. 최응천 교수에 따르면 해당 불상의 조성연대는 기존 남송에서 '통일신라시기(668~901)' 로 정정됐다.

동북공정 등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부각했던 중국 학계에서 한국 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이 조성시기를 정정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통일신라 조성을 주장한 최응천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불상의 잘못된 조성 시기를 바로잡았다는 데 학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매우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다"면서 "중국불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양식이 특이했고, 중국학계가 바뀐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환수 · 방재에 최선 노력을"

문화재청 신년계획 발표… 환수기금 50억 편성

최신식 방재시스템 확대
北문화재 남북 합동 조사
미륵사지 석탑 4월 준공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3월 13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재 최신 방재시스템 보급량이 기존 69%대에서 75%로 확대되며,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긴급 매입비도 대폭 증액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 라는 4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겠다"며 신년계획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 · 전승을 위해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확대한다. 현재 3개소에 불과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32개소로 늘리며, CCTV · 적외선 감지기 등 방재시설도 현 69%에서 75%로 확대 ·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급이 어려운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경북 봉화에 2023년까지 건립한다. 아울러 명맥이 끊긴 전통재료와 전통 수리기술 복원을 위해 단청안료 품질 · 인증기준을 마련하며, 전통재료를 활용하는 보수사업에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화엄사 각황전 등 문화유산의 보수정비는 지속 · 추진한다. 20년간에 걸쳐 복원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4월 30일 준공식을 마치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문화재청은 환수 문화재 긴급 매입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환수를 독려하기 위한 '환수보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남북 간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제9차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비무장지대 문화재 현황조사, 평양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천연기념물 크낙새 공동연구, 건원릉에 함흥 억새 이식 등이 진행된다.

정재숙 청장은 "국외문화재 보호 · 활용 활성화,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 확대해 세계 속에 우리 문화유산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여성개발원 "비리 全無, 기금 온전히 보전"

조계종 포교원 '재정 부당 전출' 주장에 반박 기자회견

조계종 포교원장의 불교여성개발원장 미임명 사태로 촉발된 양측 갈등이 여성개발원의 '재정 부당 전출' 논란으로 전환된 데 대해 여성개발원은 "재정적 비리는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3월 12일 서울 견지동 개발원 사무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조계종 포교원이 언론에 공개한 부당 전출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개발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외숙 수석부원장, 이인자 초대원장, 김인숙 3대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포교원은 3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년간 이사회 승인 없이 불교여성개발원이 (사)지혜로운여성으로 7억8356만원을 불법 전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성개발원은 "매년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해왔고, 포교원에서도 매년 1달 정도 산하단체 종무행정 지도를 하며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은 대표가 관례적으로 겸직할 뿐만 아니라 회원도 거의 동일하고,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해 재정이 통합운영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여성개발원은 이어 "이 점을 고려해 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 두 이사회에서 각각 통합된 재정을 심의하고 승인해왔다"며 "불교여성광장기금은 모금 이후 현재까지 한 푼도 유용하지 않고 지혜로운여성 통장에 안전하게 적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개발원은 이와 함께 이사장인 지홍 스님이 4개월째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아 발생한 대표 궐위상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성불자들이 총의를 모아 원장 후보로 추천한 김외숙 수석부원장의 개발원장 임명을 촉구했다.

"포교원장 주재 이사회 승인"
김외숙 원장 후보 임명 촉구
대화 통해 해결 접근 주장

김외숙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집행부를 제외하면 그동안 여성개발원장은 대부분 단수후보로 추천했다. 만약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밝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순리"라며 "개발원장 직무대행 자격이 없는 정현 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분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정관에 대표 궐위에 따른 직무대행 조항은 없다. 하지만 대표 궐위 시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사회 관례에 따라 김외숙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게 여성개발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교원 측은 이사장이 개발원장 임면권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외숙 직무대행은 "개발원장 임명은 그 이전에 개발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한 후보추천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재가 여성단체에 비구니스님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자격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개발원에서는 이미 노숙령 前원장이 임기만료 전 대표기구 회의를 통해 수석부회장의 직무대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개발원은 계속되는 포교원과의 갈등상황에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지 않는다. 항상 대화를 전제로 일을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며 "포교원에서도 대화를 제안해왔다. 진정성 있는 대화자리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본격 출범

3월 9일 불암사서 창립법회 봉행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가 출범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보다 조직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3월 9일 남양주 불암사 약사전에서 '2019년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창립법회' 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새로 위촉된 홍보위원 7명이 포함된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회장 박종우)가 출범했다. 소속 홍보위원 20여 명은 이후 사업 홍보 및 운영 지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행사는 △회칙 통과 △회장 임명 △임원 선출 △이사장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서 통과된 회칙에 따라 홍보위원들은 연간 20여 명 이상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후원 회원을 모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들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연 3회 이상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박종우 초대 회장은 "지금까지 생명나눔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적극 알리며 다른 홍보위원들과 협조해 생명나눔을 대중에 알리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무처와 위원 간 가교 역할을 하며 각종 행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홍보위원회는 추후 연 2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외 기간에는 △사업 지원 및 홍보 △사업 기획 △회원 연락 △회비 모금 등 제반 업무 등을 담당하며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 23년간 회원 15만 명이 동참해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사명감을 갖고 의미 있는 행사들에 참여해 뜻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지원 기자

충효 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
입재 2019년 6월 12일(음력 5월 10일) 회향 2019년 6월 16일(음력 5월 14일)
송탄 송덕사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천도의식을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때는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희생한 각국의 고마운 군인도 많았습니다. 올해 본 사찰은 송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미군 전사자를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 동참비 : 미군 전사자(35,686영가) 33위당 1등, 봉헌금 1만원, 영가당 10만원, 생전예수재 5만원, 조상 10영가 이상 100만원
● 계좌 : 기업은행 031-666-3180(송덕사) ● 장소 : 천태종 송탄 송덕사 ● 문의 : 031)666-3180
33인 등이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증명하신 등입니다. 33인이 모여서 하나의 원력을 만들어 부처님께 기원드리면 그만큼 속득 소원성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덕사

포교사단, 선거제도 개편된다

사단 · 부단장 5명 사퇴, 직무대행 체제 변경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사단장 선출방식을 둔 갈등으로 포교사단 단장과 부단장 등이 일괄사퇴했다.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된 대의원총회서 포교사단은 7월 임시총회에서 사단장 선거규정 개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10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2019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450명 가운데 위임 포함 364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는 포교사단장과 부단장 등이 불참했고, 총회 30분 전 열린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직무대행이 의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올해 10월경 진행 예정인 제11대 조계종 포교사단장 선출을 두고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선출방식을 논의해왔다. 이번 집행부 일괄 사퇴는 전문운영위원 등 선거권 제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여파로 단장단 사표 제출에 포교원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포교사단 지역단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포교원과 지역단 등은 단장단 사표 반려 방침과 함께 7월 경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500여 명 수준의 대의원까지 포함한 확대 간선제를 추진하기로 입장이 모았다.

하지만 사표를 제출한 단장단은 사퇴 의사를 재차 밝혔고, 결국 포교원은 3월 8일 사표를 수리했다. 한성웅 전 수석부단장은 이번 사퇴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제11대 사단장 선거권 범위
논의과정 갈등, 단장단 사퇴
3월 8일 포교원 사표 수리

10일 총회 앞두고 직무대행
보궐선거 통해 새 사단장 선출
7월 임시총회서 규정 개정추진

포교사의날과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발생한 집행부 공석 사태에 포교사단은 3월 10일 1시 경 포교사단 사무실에서 긴급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창덕 대구지역단 단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10일 직무대행 체제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앞열 오른쪽 첫번째가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방창덕 대구지역단장이다.

방창덕 사단장 직무대행은 "짧은 기간이지만 협의체 구성 등 소통을 근간으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겠다"며 "포교사단이 원숙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 직무대행은 7월 대의원 총회 전 진행될 10대 단장 보궐선거까지 단장직을 수행한다.

방 직무대행은 대의원 총회에서 "7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문위원 선거권 제한과 지역단 선거권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서 포교사단은 제도개선 TF회의와 지난 1월 26일 제1차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단장 선거 관련 정관 수정을 결의했다.

기존 운영위원회는 단장 · 수석부단장 · 지역단장 · 전문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임원과 각 지역단 부단장, 포교사단 설립 법인 대표와 산하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지만 수정에 따라 포교사단이 설립한 사단법인 좋은인연 대표와 산하단체 무소유실천운동본부 대표가 삭제됐다.

이성학 포교사단 사무국장은 "현행 사단장이 당연직으로 법인과 산하단체 대표를 맡고 있지만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대표가 달라질 경우 상위기관인 포교사단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운영위 3분의 1이상 추천과 복수추천 조항으로 단독 혹은 2인 후보 경합이었던 사단장 후보 추천도 복수추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3인 이상 복수후보 출마 후 과반수 이하 득표시에는 1, 2위의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단일후보시 운영위원 재적 절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조정됐다.

호미든관음성상 60년 법요식, 세미나 열린다

봉화 정토원 4월 5일 개최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은 4월 5일 오전 10시 봉화산 정상에서 '호미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봉축 평화기원 법요식'을 봉행한다.

'호미든 관음성상'은 1959년 4월 5일 동국대 불교학도 31명이 새불교 · 농민운동의 이상과 실천의지를 담아 조성했다.

당시 심신, 사회, 경제, 사상의 4대 개발을 목표로 민족 생존도구인 호미를 든 관음성상을 통해 불교가 생산활동과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자고 주창했다.

이날 봉축 평화기원 법요식과 함께 오전 11시에는 봉화 정토원 수광전 앞뜰에서 '평화통일 기원탑'과 '노인 · 청소년 문화체험공원' 조성발원 설명회 등도 열린다.

이에 앞서 봉화 정토원은 동국대 세계불교연구소 주최로 3월 30일 호미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동국대 만해관에서 개최한다.

선진규 봉화산정토원 원장은 "많은 분들이 동참해 호미든 관음성상처럼 자기 안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잡초를 빼내고, 보리심(진리)을 심어, 불과(성불)라는 열매를 맺는 초석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영어강좌 진행

불교를 영어로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영어강좌가 4월 6일 시작된다.

국제포교사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제52기에 이어 제53기 기초불교영어강좌를 4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주 동안 조계종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진행한다.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영어강좌는 2006년 개설된 이후 조계종 교육원 인증 교육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초불교영어강좌는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불교 역사와 불교 용어, 불교 예절과 불교 의식, 한국의 불교 건축에 관한 강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제90차 월례법회를 3월 16일 조계사 극락전 2층 대설법전에서 개최했다. 이날 국제포교사회는 도경 스님의 '소통이 삶이다' 주제 강연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24주년…"사회 밝히는 등불"

3월 8일 기념법회서 공로자 시상 · 신규시설 소개

창립 24주년을 맞은 조계종복지재단이 사회에 공감과 감동을 주는 불교복지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재단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재단은 행사를 통해 불교복지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시설협의회 회장 법일 스님, 복지특보 화평 스님 등을 비롯해 재단 산하 복지시설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불교가 복지 분야에 진출한 초창기부터 오늘날 지금의 반석에 오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 선배들의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복지시설 시설장 스님 및 재가자, 임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 모두 재단의 생일 같은 뜻 깊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소통 · 화합해 혁신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재단은 정년퇴임을 앞둔 공로자 1명 및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불교복지인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자는 황진우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장기근속자는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김현조 해나라어린이집 원장, 김용환 풍기어린이집 관리인이 선정 · 시상됐다.

이어 2018년 새로 개원한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장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신규시설은 6곳으로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센터장 도운)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센터장 김정호) △가람슬기어린이집(원장 임아화)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필선)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관장 주민정) △울산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센터장 이영숙)가 소개됐다.



재단 창립 24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떡 나눔식을 하고 있다.

해외 일정상 불참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금곡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의 마음, 지혜, 자비로 부처님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라며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무재칠시(無財七施)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정진해 세상에 공감과 감동을 주는 불교복지를 실현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김지원 기자

제9회 한미청소년 불교문화 연수 접수

사찰 청소년 법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과 불교기관 종무원 자녀들이 세계 문화와 미국 내 한국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연수를 떠난다.

국제전법단(단장 계성)은 한국불교 국제네트워크 주관으로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동부 도시 뉴욕, 맨해튼, 워싱턴, 보스턴 등지에서 청소년들의 불교문화연수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문화연수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동부 지역의 하버드대, 프린스턴대학 등을 사찰 출신 재학생의 안내로 직접 학교를 탐방한다.

또한 자유의 여신상, 맨해튼 투어, 월가를 비롯한 경제 특별 지역을 방문해 선진국의 문명과 함께 자유 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뉴욕 불광선원에서 3박 4일간 현지 청소년들과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070)7769-8985

노덕현 기자





제주도의 한 사찰을 배경으로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다. 3월이면 전국 사찰마다 꽃들이 피어난다. 사찰과 꽃의 얽힌 이야기는 재미도 더한다. 올봄 사찰을 장엄한 꽃을 보며 환희심도 내고 불심도 키워보자.

봄꽃 만발한 春三月, 사찰서 상춘을…

사찰 꽃 구경 가볼까?

봄이 오면 사찰로 오르는 숲 속엔 꽃들이 피어난다. 일주문부터 대웅전까지 잎도 없이 올린 꽃대에서는 저마다 색색의 봄꽃이 피어오른다. 겨울 내내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었지만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이 사찰의 정취를 더한다. 올 봄에는 사찰을 장엄한 봄꽃의 향연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편집자 주〉

진달래

여수 흥국사



여수 흥국사가 위치한 영취산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인도 영취산에서 따온 이름으로 4월이 되면 진달래로 뒤덮인다. 개화시기는 3월 29일부터 4월 중순까지다. (061)685-5633

창원 천주암

천주암이 위치한 창원 천주산은 국내 진달래 3대 군락지다. 천주산 용지봉 일대 진달래 군락지를 가기 위해서는 천주암을 거쳐야 한다. 천주산은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개화시기는 4월 6일부터 4월 중순까지다. (055)295-0108

강화 백련사

강화도 고려산은 진달래가 가장 늦게 피는 곳이다. 진달래 개화시기를 놓쳤다면 강화도로 향해보자. 백련사부터 청련사, 적석사 등 사찰길을 통해 진달래를 볼 수 있다. 개화시기는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며, 13~21일은 축제가 진행된다. (032)933-5082

벚꽃

하동 쌍계사

쌍계사 십리벚꽃길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경계로 한 화개의 십리에 걸쳐 펼쳐진다. 쌍계사부터 이어지는 이 길은 혼례길로도 불린다. 축제기간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많은 인파가 몰리니 미리 찾아 보는 것도 추천한다. 개화시기는 3월 29일부터 4월 중순까지다. (055)883-1901

부안 개암사



부안 개암사 벚꽃 축제는 전북 대표 꽃 축제다. 축제기간 개암사 길은 마치 비가 내리는 듯, 벚꽃으로 뒤덮인다. 올해 개화시기는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063)581-0080

경주 기림사

기림사가 위치한 함월산에는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많다. 기림사에는 다도인들이 즐기는 오정수가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차한잔과 함께 벚꽃 구경은 어떨까. 개화시기는 3월 27일부터 4월 초순까지다. (054)744-2292

유채꽃

창녕 능가사

낙동강변 둔치는 4월이면 유채 물결로 출렁인다. 단일지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유채밭을 자랑하는 곳으로 창녕남지가 대표적이다. 남지 끝자락에는 능가사가 있다. 개화시기는 3월 중순부터며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유채축제가 열린다. (055)587-6085

서산 간월암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 유채꽃이 군락을 이룬 곳은 많지 않다. 간월암이 있는 서산 간월도는 유채꽃이 군락을 이룬 곳이다. 바닷가의 유채꽃밭을 거닐면 간월암에 다다른다. 개화시기는 4월 10일부터다. (041)668-6624

제주 약천사



서귀포는 봄꽃이 가장 빨리 피는 곳으로, 그 중 유채꽃은 꽃향연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다.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유채꽃 축제가 펼쳐진다. 개화시기는 이보다 빠른 3월 15일부터다. (064)738-5000

매화

구례 화엄사



화엄사에는 홍매화가 장엄한다. 화엄사에서 나와 광양매화마을까지 이어지는 섬진강변은 3월이면 매화꽃으로 장엄된다. 매화 개화 시기마다 사진가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 화엄사 각황전 홍매화다. 4월 초 절정에 이른다. (061)783-7600

양산 통도사

통도사는 불보사찰로 경내 곳곳에 심어놓은 홍매화가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린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일대도 매화가 꽃 화음을 낸다. 개화시기는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로 축제는 3월 16일~17일 진행된다. (055)382-7182

순천 선암사

선암사는 화훼사찰로 불릴 만큼 꽃들이 만개한다. 흙담장을 따라 홍매와 백매, 청매 등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린다. 620년 된 선암매, 550년된 홍매 등은 천연기념물이다. 개화시기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다. (061)754-5247

봉화산 정토원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봉축행사

1959년 기해(己亥)년 4월 5일, 이때까지도 6.25 한국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정치는 자유당독재, 사회는 무질서의 연속, 경제는 보릿고개를 못 넘기며 계속되는 배고픔,
전체가 메말라 허덕이던 시절! 이와 같은 폐허화를 보살펴야 할 불교계는 비구대처 정화분쟁에
휘말려 있을 무렵 동국대학교 불교학도 31명이 4대 개발(심신, 사회, 경제, 사상)을 상징하는
민족의 생존도구인 호미를 든 관음성상을 김해 진영 소재 봉화산 정상에 봉안케 되었습니다.
종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이 불사가 금년 4월 5일,
꼭 60주년이 되어 이를 기리고자 아래와 같이 기념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간이 허용되시면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축준비위원 일동 합장

행사진행 일정 및 장소

제1차 행사 _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일시 : 2019년 3월 30일(토) 오후1시~6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만해관
- 주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세계불교학연구소

제2차 행사 _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봉축, 평화기원 법요식
- 일시 : 2019년 4월 5일 오전10시~11시
- 장소 : 봉화산 정상 호미 든 관음성상 제단
- 주관 : 봉화산정토원 신도회

제3차 행사 _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법회 및 '평화통일기념탑, 노인청소년문화 체험공원' 조성발의 설명회 후 오찬
- 일시 : 2019년 4월 5일 오전11시~12시
- 장소 : 봉화산 정토원 수광전 앞뜰
- 주관 : 봉축행사준비위원회





60년 전 1959년 당시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추진위원 명단 31인
이봉구 김지견 이현종 신병구 황연갑 김해동 박경호 김백만 김광영 이종복 김정애 김기업 손영익 김주태 조재진 김남식 박완일
김인덕 이천호 김두성 최충열 이재옥 박동기 강창순 안영근 박광도 최병주 김학순 김영기 배종일 선진규

당시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실무위원 명단
이융성 배한진 정극섭 나동영 심주종 지해식 이기용 김응조 김문길 한치훈 김기권 김삼현 주선응 김종민 박종대 최병식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봉축행사 준비위원회

고문 서의현 대성 혜총 홍파 법타 법륜 월인 덕일 윤여중 최성봉 이봉구 전영화 장봉호 김영태 안영근 정지찬 이규범 삼학
권기종 최규일 박중선 이일웅 오현근 서윤길 이민홍 송재운 김덕영 원정 이성곤

공동준비위원장 손안식 배조웅 이장명 이재형 이수홍 양승찬 전안오 황재연 황충익 권오현 김덕수 김영준 이영호 라동영 홍영춘
이상번 김형균 이융성 김남식 홍외순 김상규 김태진 박광도 최병주 최두식 김성권 정대헌 이봉춘 김영만 김형중 고영섭 권탄준
이성균 박상철 박 순 윤정관 신관호 양경술 장사덕 김종열 백선기 정권화 박경준 하재길 김보성 차혜숙 김형태 박종철 심관호

준비위원 법성 영공 등명 길상 법공 법연 선근 강기출 정수덕 허남준 김말분 승규봉 선기 선건 전준호 변철호 최향숙 선광율
선광용 최춘호 최민정 심미조 박영동 이종서 김남일 장 익 정인호 이학송 주보연 백경선 한영규 권재우 김동수 김봉규 김민우
김보과 이지석 박영빈 김용섭 허준도 강은숙 강정자 강주이 강차곤 강춘아 강홍열 고주연 곽정현 구영애 권장희 길은옥 김나현
김대진 김도원 김미숙 김미애 김범석 김상철 김선옥 김선자 김수복 김순옥 김영란 김영숙 김점덕 김정미 김정분 김점선 김지호
김종화 김지원 김태길 김현빈 김현주 김혜연 김호규 김호대 김희면 김향자 남은실 남현주 류봉용 목정자 박덕규 박도원 박명수
박미경 박명숙 박미선 박미자 박상희 박선태 박세환 박영남 박영록 박영숙 박정숙 박영옥 박재봉 박재영 박보환 박갑석 박창환
박흥환 박제문 박종복 박판덕 박창호 박태식 박한순 박현혜 박호동 박희자 방성영 방영진 배남희 배둘남 배미선 배수정 백월선
백정례 백정자 본행화 서경숙 서기동 서순길 서유경 선분희 선종순 성순옥 손강숙 손성숙 손수형 손태환 송진호 신경숙 신석기
신순자 신용암 신정숙 심도문 심영순 심재덕 안경식 안귀연 안영미 안영은 안오례 안홍태 양미란 양안나 양호진 엄정란 오명주
오순옥 오재람 오재진 오혜정 우영환 우정현 유미경 윤축외 이경진 이구대 이동건 이상만 이상필 이상협 이수남 이수련 서혜진
이순옥 이우재 이영선 이은선 이의직 이인자 이인호 선광현 이재선 이정란 이정자 이준규 이진식 이호덕 이희대 이희용 임장이
임준현 정귀련 정순진 장미애 장미연 장미옥 장수연 장순자 장은숙 장은실 장은주 장임순 전경자 전기병 전기연 전윤옥 전영숙
전영심 전유식 영 공 정석수 정숙이 정영애 정계자 정정옥 정진학 정형수 제효정 조규원 조영미 조은숙 류정길 주귀자 진옥주
차미승 최미혜 최민정 최병철 최양순 최영심 최영희 최옥순 최이숙 최성열
최정주 홍미화 홍강표 하명숙 한정자 최정인 홍경윤 황효진 정수미 윤충선
홍춘표 김용기 강용숙 권재인

협찬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관련 중앙 및 지방시민단체 일동

• 총괄실무책임 선진규(010-8864-7272)
김용표(010-8716-9308) 김해조(010-4241-0778)
김재엽(010-5212-4514) 연락 : (055)342-2991~2

천년고찰 장안사, 시민 배움터 불사

설법전 삼존불 점안식 및 점안법회 열어



천년고찰 장안사의 설법전 불사가 마무리됐다. 장안사는 2012년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된 후 10년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불광전 · 종각 · 해동전 등 대부분의 전각을 증축불사하고 설법전까지 완공해 시민을 위한 도량으로 탈바꿈했다.

장안사(주지 정오)는 3월 13일 설법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식 및 점안법회를 개최하고 설법전 불사 완공을 알렸다.<사진>

설법전은 전통 목조 건축양식으로 지하 198㎡(60평), 지상 1층은 132㎡(40평) 규모다. 장안사는 신라시대 673년(문무왕 13) 원효 스님이 창건한 천년고찰로 대웅전이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된 후 보존 및 보호가 필요했다. 아울러 대웅전이 협소해 새로운 설법전이 요구돼 왔다. 이를 위해 장안사는 1000일 기도 및 관음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불사를 위해 기도해왔다. 설법전 삼존불은 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미륵보살이며 와불에는 미얀마에서 온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됐다.

한편, 점안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동래구불교연합회장 효문 스님, 금정구불교연합회장 고담 스님,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명상, 알기 쉽게 배워보자”

보디야나선원, 제1기 불교명상입문과정 개최

명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관리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마련된다.

보디야나선원(선원장 혜안)은 제1기 불교명상입문과정을 3월 28일~5월 18일 해운대 청사포에 위치한 선원에서 개최한다. 일정은 총 8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3시, 토요일 오후 2~4시에 열리며 강좌는 △불교명상이란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호흡명상이란 △호흡명상 심화 △자애명상이란 △걷기명상이란 △명상의 장애란 △불교명상 총정리 및 수료식이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명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선원장 혜안 스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통도사 청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통도사, 범어사서 불교 경전을 수학한 후 국내 선원과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호주 등의 사찰 및 수행처서 정진했다. 명상의 스승으로 삼게 된 아잔 브람 스님과의 인연으로 호주의 보디야나 사원에서 수행했다.

저서는 〈마음 다루기 수업〉, 역서로 아잔 차 스님의 〈반조, 마음을 비추다 1, 2〉와 아잔 브람 스님의 명상지침서인 〈놓아버리기〉가 있다. (051)959-010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재불사 ‘법계장학금’ 수여식

17회째… 116명에 3억600만원 전달해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원력으로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법계장학금 전달식이 3월 9일 운문사 경내 종무소에서 열렸다.<사진> 전달식에는 명성 스님과 강주 일진 스님, 학장 진광 스님, 주지 운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대상자 범찬 스님(동국대)을 비롯한 5명의 스님과 서울대 작곡과에 재학 중인 류연주 씨 등 2명의 재가자에게는 각각 300만원씩 전달됐다.

명성 스님은 “오늘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불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계장학회는 17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116명에게 3억6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경주 어린이 포교 ‘희망의 싹’ 돋아

제2기 경주 어린이불교학교 입학식 개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주불교학생회 동문회가 3월 9일 경주 중흥사에서 제2기 경주 어린이불교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 후 중흥사 대웅전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경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새로운 포교 바람이 불고 있다. 중소도시 작은 사찰 어린이 법회는 사실상 전무해 새싹포교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주불교학생회 출신 동문들이 미래 불교를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설하고 포교에 앞장서 희망의 싹이 돋고 있다.

경주불교학생회 동문회(회장 김성규)는 3월 9일 경주 중흥사에서 제2기 경주 어린이불교학교(이하 불교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는 중흥사 주지 예진 스님(불교학교 지도법사)과 김성규 회장, 학부모 및 신입생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입학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성규 회장은 입학생에게 가방과 교재 등 선물을 전달하고 입학을 축하했다.

예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은 행운아”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인데 앞으로 불교학교를 통해 잘 익히고 배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성규 회장은 “초등학생인 여러분이 매일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생활 속에 실천해 습관이 된다면 앞으로 삶이 더 유익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학교는 경주불교학생회 동문회에서 주최한 한국불교희망찾기 수련대회에서 발의돼 기획됐다. 경주불교학생회 동문회는 매년 가을 불교 중흥을 위한 프로젝트로 한국불교희망찾기 수련대회를 열고 있으며 회원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우학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 정토회 대표 법륜 스님, 동국대 前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등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미래 한국불교 희망 어린이”
경주불교학생회동문 뜻 모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업
다양한 강의진 눈높이 교육

김성규 회장은 “어린이 포교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미래 불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어린이 수가 적어 더욱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수는 많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고비를 잘 넘기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볼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담임을 맡고 있는 최원희 교사는 “아이들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왔던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찾고 수업태도도 뛰어나 보람된다”며 “앞으로 아이들 미래에 불교가 삶의 지표가 될 것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라고 말했다.

불교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경주문화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과목은 기본적인 교리와 불교문화, 사찰 예절 등으로 일반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지도한다. 특히 교수진이 뛰어나 눈길을 끈다. 강의는 김성규 영남대 의과 교수가 ‘불교와 물리과학’을 소개하고, 현재 남산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혁배 사무국장이 신라시대 불교문화를 안내한다. 손수협 경주 박물관대학 교수의 문화재 강의 및 최석규 동국대 교수의 숲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불교 4월 12일 봉축탑 점등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최종 일정 확정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3월 9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봉축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올해 봉축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3월 9일 전주 수현사 2층 교육실에서 봉축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봉축행사 일정과 9,700만원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태고종 · 보문종 · 용화종 등 각 종단 지역대표, 전주 · 완주 지역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해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각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봉축위원회는 봉축위원과 집행위원회 등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봉축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전북 봉축행사는 4월 12일 전주역 광장에서 봉축기원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전북어린이 큰잔치, 임실 6탄약창 연등제, 전북불교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 행복바라미 축제, 전의경 위문법회 등이 각 지역에서 열린다. 또한 5월 3일에는 전북도청 야외음악당에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북봉축위원회는 전북지역의 각 도시 주요도로에 봉축 연등을 설치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전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로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년에 걸쳐 복원공사를 마무리한 미륵사지석탑 준공기념식을 4월 30일 미륵사지 현장에서 봉행한다.

이밖에 군산, 익산, 김제 등 전북 주요 도시에서는 시차를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크고 작은 연등축제가 봉행될 예정이다. 또한 각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와 교도소 방문 등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리게 된다.

전북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봉축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알찬 봉축행사가 되어야 한다”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주역 광장에 봉축탑을 세우고 전북도청 야외음악당과 도청 신도시 주변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불교교육대학 최다 입학생 기록

2019년 봄학기 300명 입학

부산 재가불자 교육도량인 부산불교교육대학이 2019년 신학기에 역대 최다 입학생을 기록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3월 11일 대학 내 강의실에서 ‘2019년 합동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는 학장 범혜 스님,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신입생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본 대학은 불교학자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심을 가지고 불도를 지키는 불자를 만드는 곳”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 삶 속에 실천하고 모두가 행복해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도심포교에 앞장선 불교대학 대표주자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 1만5000여 명과 조계종 포교사 1200여 명, 승려 100여 명을 배출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강남불교대학
4월 신입생 모집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들을 치유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사찰은 인생을 치유하는곳이 되어야 하며 스님은 인생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 이런 스님은 도전해보세요 ···
1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2 불공이나 제사로 사찰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
3 삿된 행위(부적이나 점)로 포교하고 싶지 않다.

응시자격
• 승려(종단불문)
• 승려가 되고 싶은 분(나이, 성별 불문)
• 고등학교 졸업자

특혜
• 라이프닥터 자격증 취득(민간 등록 자격증)
• 승적 취득 가능(종교법인 참종)
• 사찰 등록 가능(종교법인 참종)

수업안내
• 1학기에 6개월
• 총 8학기 4년 과정
• 주 1회 수업

모집정원
지도자 과정 00명

개강
4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학비
학비는 학기 당 50만원

입학신청은 홈페이지 www.gangnambu.org 지도자 과정의 입학신청 메뉴에서

문의 02-532-0012 | www.gangnambu.org YouTube 채널 | 강남불교대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41-14 2층

조계사 일요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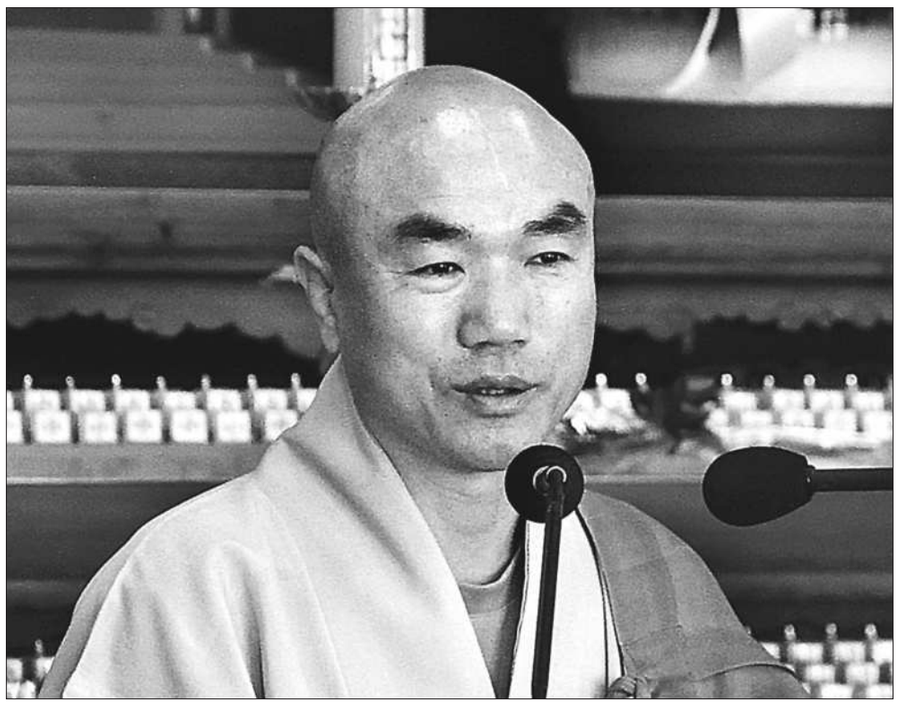
‘王國 아닌 民國’ 서원한 용성 스님

주제 : 민족대표 33인의 탄생 비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3.1운동 100주년을 기해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평소보다 뜨겁다. 민족대표에 속한 불교계 인사는 2명에 불과하지만, 각 종교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민족독립운동을 한 데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절집에 전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3월 10일 서울 조계사 일요법회서 ‘민족대표 33인 탄생의 비화’를 주제로 법문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일감 스님은… 1990년 원융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및 재무부장,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현재 완주 옥련암 주지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는 〈그대로 행복하기〉 등이 있다.

얼마 전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종교인들을 ‘민족대표 33인’이라 부릅니다. 민족대표 33인은 종교별로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입니다.

불자들은 불교계 인사가 두 사람뿐이라서 마음이 좀 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족대표에 스님 2명만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民國을 위한 독립운동

민족대표인 백용성 스님이 지리산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한용운 스님이 다녀갑니다. 일제 치하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있어서 나라를 위해 독립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후 백용성 스님은 안거를 해제하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산한 백용성 스님은 6년간 고을의 현령(군수) 이상의 소임을 맡고 있는 200명을 찾아다녀요. 그들을 만나서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스님이 6년 동안 많은 관리들과 만나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뜻을 함께하겠다고 한 이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관리들과 달리, 스님과 만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나라 사정을 애통해하며 스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백용성 스님이 관리들과 만나 조선독립에 대해 설명하면 제일 먼저 돌아오는 질문이 “그렇다면 왕은 누가 될 것인가?”였다고 합니다. 이 씨 왕가가 무너지면 그 다음 왕이 될 가문이 누구인지를 반문한 것이죠. 관리들에게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용성 스님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스님은 ‘이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닌 백성들의 나라구나’ 하고 깨쳤다고 해요. 스님은 조선을 백성 중심의 국가로 다시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게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순간 스님은 대한민국의 ‘민국(民國)’을 떠올리고 구상했다고 합니다.

민족대표가 33명이 된 이유

이후 백용성 스님은 천도교를 찾아가 손병희 교주를 만납니다.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천도교 신도 수는 300만이 넘어 종교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손병희 교주는 천도교 내에 이미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백용성 스님은 이를 듣고 손 교주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신도가 가장 많은 천도교에서 독립을 성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천도교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조선에는 천도교 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와 교인, 다른 종교인들이 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조선에 있다. 천도교만의 나라를 세워서는 아니 된다. 관리들은 백성의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없는 작금이니 불교, 기독교와 천도교가 함께 나서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종교계 합심해 독립운동에
나설 것 제안한 용성 스님
종교별 배정인원 양보하고
대표 2명만 이름올린 불교

그렇게 천도교는 다른 종교들과 뜻을 함께하게 됩니다. 합심하기로 한 종교인들은 기미독립선언서에 참여할 민족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민족대표가 33인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일,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만의 힘으로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불교에서는 삼십삼천(三十三天)이라고 하잖습니까. 온 하늘의 힘이 도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스님이 33명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하늘의 주인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33명의 민족대표를 뽑자고 말입니다.

이에 따라 불교, 천도교, 기독교 각 11명이 포함된 대표단을 구성하는 듯 했습니다. 기독교 내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의 내부 사정에 의해 종교별로 배정된 인원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백용성 스님은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불교계가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는 대표 2인이 참여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종교들에게 배정된 것이죠. 따라서 천도교는 15명, 기독교는 감리교파와 장로교파 양측 8명씩 총 16명, 불교는 2명으로 33인의 민족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

잊어선 안 될 ‘3.1운동과 불교’

민족대표에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 2명만 포함됐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독립을 향한 의지가 그다지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계에 먼저 독립운동을 제안한 것은 백용성 스님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발발한 뒤 불교계는 전국 사찰의 강원, 요즘으로 따지면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민족대표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백용성 스님은 2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옵니다. 스님은 출옥한 뒤에도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 곳에 농장을 짓고 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쌀가마니 속에 넣어 만주에 보낸 겁니다. 안타깝게도 백용성 스님은 1943년 광복 2년 전에 미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정 요원들이 귀국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각사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대각사는 용성 스님이 주석하던 곳이죠. 이들 독립투사들은 대각사에 가서 큰스님 영전에 참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성 스님께서 쌀가마니에 넣어 보내준 군자금 덕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공표합니다.

당시 일반 시민들은 백용성 스님이 독립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김구 선생의 증언 덕에 스님이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농토와 농원을 일군 것이란 것을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당시 일제에 협력한 많은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표면적으로는 일제 강압에 의해 일본에 협조했지만 이면에는 독립자금을 마련해 만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실 역시 김구 선생이 증언했어요. 백용성 스님 이외에도 많은 스님들이 독립자금을 은밀히 보내 더욱 힘을 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요.

공개적으로는 일제에 협력한 스님들이 김구 선생 이후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는 일화가 전합니다.

역사란 기록에 의해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이때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일 등은 기록에 남길 수가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문서가 발각될 시 바로 관련된 사람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백용성 스님은 입적하기 전 진관사 칠성각에 태극기와 관련 문서를 벽 안에 넣고 발랐어요. 후대에 언젠가는 발견될 것이기에 남긴 것인데요. 스님의 태극기와 문서들은 지금 진관사에 잘 보존돼 있습니다.

절집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남은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우리 불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줘야만 불교의 가르침도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하늘을 숭상하고 땅을 존중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왔습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은 부처님의 마음이 본래부터 있는 것처럼 이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부처님의 심성이 잘 맞기 때문에 원래부터 불교였던 것처럼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불교와 뜻이 맞지 않는 문화나 풍토 속에서는 불교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민족 고유의 심성을 잘 보존하면서 이 땅에서 불교와 수천 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비폭력 평화의 방식으로 독립을 외친 3.1운동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3.1운동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고 배우면서 내년에는 불교계가 준비한 관련 행사나 법회에도 많이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불자 개인도 개인이지만 불교계는 과거의 성과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스님들의 업적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스님 · 불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합시다. 더불어 그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서 최고의 염불소리!
스님은 지금 어디에 해당 되시는지?!

▣ 나이들어 염불이 점점 힘들어진다.
▣ 내 귀에 내 염불이 힘들게 들려 스트레스가 쌓인다.
▣ 마이크 하나만 바꾼다고 되나??.... 매사를 속단한다.

긍정적인 분은 지금 시설에 마이크만 바꾸어 내 염불을 한 번 실려보세요.
최고의 소리가됩니다. 사찰은 무조건 값싸고 , 간편하고, 고장없이
염불테크닉이 편안하게 잘 들어가면 최고의 소리 ! ...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제1기
불교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불교대학원에서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각단 불교의식 과정(초급) | 6개월
범음범패 과정(중급) | 1년

교육안내 6개월 과정 수료 후 수료증, 1년 과정 졸업 후 법사 호품수증서를 수여해 드립니다.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초발심자경문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모집안내 문 의 : 055-342-3679 / 010-4940-8979 / 교육원 010-9326-6071
• 모집대상 : 스님 및 출가예정자, 재가자, 사찰운영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개강일시 : 2019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 수업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장 소 :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299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고즈넉한 산사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불모산 관음정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하세요.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 각 합 장

영적 힘 보여준 21세기 염화시중

〈拈華示衆〉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⑤ 통도사 괘불탱화와 빌 비올라

몇 년 전, 한 · 중 · 일 미학자들의 국제학회가 한국서 열렸다. 그 프로그램 중 일부로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곳에서 우리 모두를 압도하는 전시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문답(問答, dialog)' 이라는 제목의 설치 작업이었다.

천정이 높은 전시 공간 내부의 한쪽 벽에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가져 온 전체 1,222×491.8cm, 화면 1,127×456.2cm, 무게 84.5kg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의 보물 제1350호 통도사석가여래괘불탱(通度寺釋迦如來掛佛幀)이 걸려있고, 건너편 벽에는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의 영상작업이 서로 마주 보도록 설치되었는데 그 규모의 장대함에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였다.

'괘(掛)' 는 '건다' 는 뜻으로, 괘불탱은 벽에 고정할 수 없는 불화를 실외에서 사용할 때 기둥이나 지주 같은 것에 걸어 놓고 예불 드리는 일종의 걸개 그림을 뜻한다.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탱은 삼베바탕에 채색(綵本彩色) 작품으로, 제작연대는 1767년(조선 영조43)에 두훈(?薰)을 수화원으로 하여 성징(性澄), 윤행(玧幸), 통익(通益), 수성(守性), 정안(?安), 쾌정(快?), 탈윤(脫閏), 청습(淸習), 지환(智還), 지열(志悅), 민초(旻初), 봉정(奉正), 수일(守一) 등 총 14명의 화승이 동참하여 10개월간 제작한 공동작업이다. 괘불탱은 한국의 고유한 불교미술 양식으로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나 티벳, 몽골 일부 지역에서 일부 사례가 있다.

미국 태생의 작가 빌 비올라(Bill Viola, 1951~)는 비디오 아트의 지위를 현대 미술의 확고한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초창기의 비디오 아트 작품은 전위적인 예술 정신과 더불어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시도가 많아 일반 대중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비올라는 영상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간적, 조형적 질서를 창조하면서도 시각 예술의 고전적 전통에 근거한 절제되고 이상화된 화면 구성을 추구함으로써 주목 받는 작가다.

'문답' 에 전시된 비올라의 영상 '트리스탄의 승천' 과 '불의 여인' 은 '트리스탄 프로젝트(Tristan Project)' 라는 작품군 중 하나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관한 비극으로서 원래 켈트족 전설로 구전되다가 12세기 이후 유럽에서 문학 작품으로 정착되었다. 그 이후 이 이야기는 지역마다 시대마다 약간씩 변형되어 다양한 형태로 번안되었다. 13세기 초 쓰여진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Gottfried von Straßburg)의 판본이 가장 유명한데 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는 이 판본을 기초로 제작되었다. 비올라는 무대 감독 피터 셀라스의 의뢰를 받아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의 배경 영상을 만들었다. 이후 그는 거기에 사용된 네 시간 분량의 영상을 편집하여 여러 개의 개별적인 비디오 아트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트리스탄 프로젝트이다.

비디오 작품 '트리스탄의 승천' 은 어둠 속에 한 주검이 놓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석관 위에 놓인 시신은 깊은 물 속과 같이 알 수 없는 정적에 휩싸여 있다. 작은 물줄기가 시신에서 피어 오르는가 싶더니 점차 그 물줄기는 커지고 거꾸로 치솟아 오르며 폭포수가 되어 검고 어두운 화면을 가득히 채운다. 솟구치는 물줄기 속에서 시신은 천천히 위로 떠오른다. 활처럼 휘어진 허리와 축 늘어진 사지는 닿을 수 없는 희망, 얻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안타까운 절규처럼 다가온다. 이윽고 트리스탄의 시신은 어두운 하늘 저 위로 까마득히 사라지고, 다시 어두운 적막으로 쌓인 심연과 같은 공간이다.



빌 비올라의 작품. 제공=김원숙 미술학자

시각 예술의 파격성 돋보여
생사 경지 '물' 모티브 표현
종교의 영감 극적으로 반영

이어지는 '불의 여인' 에서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거대한 화염 앞에 서 있다. 오래도록 불길을 응시하던 여인은 마침내 결심한 듯 혹은 탄식하듯 두 팔을 한껏 벌리고 뒤로 쓰러진다. 여인은 땅을 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쓰러진 여인은 수면 아래로 빠져 들어가고 검은 물결이 출렁댄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이글거리던 화염은 점차 불어나는 물에 이지러지고 일렁이는 파란 물결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비올라의 작품에는 기독교 신비주의, 이슬람교의 수피즘 그리고 동양의 선불교 등 동서양의 영적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자아는 해안이 없는 바다와 같다. 그것을 응시하노라면 이 세상과 후생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12세기 안달루시아의 수피 이븐 아라비(Ibn Arabi, 1165~1240)의 말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비올라의 비디오는 지극히 느린 속도로 재생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스틸 사진처럼 보이는데 잠시 지켜보면 이것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동영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통상적인 촬영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촬영하여 정상적인 속도로 재생할 때 이러한 효과가 일어난다. 극히 느리게 움직이는 영상은 비올라 작품의 특징이다.

전위적인 표현기법을 추구하였던 초기 비디오 예술가들과 달리 비올라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성격을 지닌 예술 작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화, 매너리스트 회화 등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비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그것을 재해석했다. 그는 르네상스의 종교화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등장인물이 극단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그는 현대미술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인 감정이 절제된 추상적, 개념적 성향을 버리고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초월적 영성을 담으려 한다. 한 인터뷰에서 비올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감정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한에 가까운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확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감정은 매우 강하게 우리를 서로 결속시키는 요소입니다. 상당수의 명상 수행에서 점차적으로 호흡을 느리게 할 때 '마음 챙김(Mindfulness)' 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올라의 작업에서 슬로우 모션이라는 조형언어는 느린 호흡을 통해서 내면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명상과 같다.

상당수의 비올라 작품에는 물의 이미지가 주된 소재로 사용된다. 여섯 살 되던 해에 그는 호수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삼촌에게 구조된 경험이 있었다. 그 때, 수면 아래에서 본 광경들에서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 또는 액체의 이미지는 비올라의 초기 작품들에서 종종 등장하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작된 작품들에서 물의 이미지는 보다 초월적이고 상징적인 색채로 드러난다. 그의 작품에서 물은 단순한 풍경의 요소가 아니라 경건한 영적 힘으로 제시된다. 비올라에게 물은 삶과 죽음 두 세계 간의 경계이며 동시에 탄생과 거듭남의 의미를 가진 모티프이다. 비올라에게 어린 시절의 익사체험은 일종의 '침례' 의식과 유사한 것처럼 여겨진다. 기독교적 의미의 침례가 물 속에 몸을 담금으로써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정화의식이라면, 비올라에게 침례는 일상적 체험의 경계를 넘어 초월적 세계에 대한 신비적 체험에로 이끄는 경계였다.

부인이자 예술적 동반자인 키라 페로브(Kira Perov)는 비올라의 작품에 대해서 "그의 여정은 삶, 죽음, 탄생, 부활 등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주제를 향해 있다"고 말했다. 삶의 상처와 번민이 끝나는 곳이 죽음이 있다면, 죽음은 새로운 탄생 즉 부활을 위한 여정이 된다. '트리스탄의 승천' 에서 도피안(到彼岸)의 이미지를 본다. 현실의 삶에서 폭포수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쏟아지고, 던져진 시신은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엄청한 물줄기는 모두 위로 날아오르고 석관 위에 놓여 있던 트리스탄의 시신은 물줄기와 함께 점차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다. '불의 여인' 에서는 이글거리는 정념과 어두운 번뇌가 공존한다. 한 여인이 심연과 같은 어둠 속으로 쓰러져 사라지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지만 영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글거리는 화염과 일렁이는 물결이다. 검은 물결은 점차 불꽃을 집어 삼키고 모든 것이 적멸(寂滅)로 돌아간다.

통도사 석기여래 괘불탱 뒷면 후배지 왼쪽 하단에는 모두 7수의 게송이 적혀 있다. 그 중 〈점안의식(點眼儀式)〉 '향화청(香華請) 가영(歌詠)' 을 적은 게송이다.

법신성해초삼계(法身性海超三界)
법신의 성품 바다 삼계를 초월하니
묘용하방구오근(妙用何妨具五根)
미묘한 작용 5근을 갖춤에 무슨 방해 있으랴
담적응연상각료(湛寂凝然常覺了)
담적하고 응연하여 항상 또렷이 깨어 있어
천상인간총점은(天上人間總霑恩)
천상이나 인간 모두에게 은혜 입히네

'트리스탄의 승천' 과 '불의 여인' 의 영상이 차례로 비춰지는 건너편에서 장엄한 부처가 연꽃 한 가지를 손에 들고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다.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하늘에서 꽃 비가 쏟아졌다 한다. 이에 부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꽃 가지 하나를 드셨다. 그 때에 거기 모인 대중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나 가섭존자 만이 홀로 미소지었다. 18세기 불화와 21세기 영상작업이 함께 전시된 이 압도적 광경을 앞에 두고 관람객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갖가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게 된다. 이 특별한 공간에서 초월자의 고요한 미소와 인간존재의 비극성 사이 어디쯤에서, 지극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얻어지는 또렷한 깨달음마냥 불꽃 가운데 피어나는 연꽃의 향기에 얼핏 스친 듯도 했다.

〈미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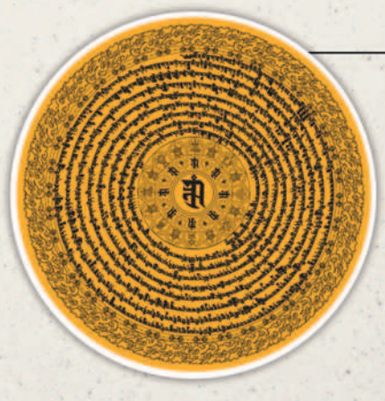
천도되길 원하십니까? 장수를 원하십니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다라니를 지니거나, 보거나, 듣거나, 염송하면 "모든 악업이 닦이고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는 위신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33도리천에서 제석천에게 천자가 죽은 후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에서 벗어나고, 수명이 연장되고,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법을 말씀하시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제석천은 음성이 아닌 정수리의 육계를 통해 말씀을 전해 들었다. 이 다라니가 남갤마다라니입니다.

액 자
100,000원
액자를 구매하신 분은 남갤마다라니 21일 기도 축원해 드리며, 차량스티커 2매를 드립니다.
크기 37×37㎝





차량스티커
10,000원
남갤마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차량 운행 중 미물살생에 대한 과보에서 벗어나고 사고방지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붓다평화위원회 032)522-5554 / 010-6272-1655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앵무새가 되어 성공하는 일은 없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⑤ 대기설법(對機說法)과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림 · 박구원

잘 가르치는 일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

새해가 밝아 해맞이를 나간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삼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세월이 유독 나에게만 빨리 흐를 리 없지만, 그래도 삼월이 오는 일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따뜻하고 화사한 봄이 미소를 지으며 매화며 벚꽃, 목련이 지천으로 넘치는 철이 왔는데 뭐가 탐탁치 않냐고 물을 것이다. 왜 그런 화신(花信)이 반갑지 않겠는가? 다만 대학에서 강의가 시작되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니, 그게 나로서는 큰 고역이다.

살펴보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 교육이 부담인 사람과 교육이 체질인 사람이 그것이다. 강의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야 양자가 다를 리 없다. 다만 그것을 강의실에서 전할 때 느끼는 반응이 다르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데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보면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가 나를 끌고나간다는 기분을 버릴 길이 없다. 그러니 부담인데, 다 그런가 하면 강의가 즐거운 소풍인 사람도 있다. 편안하게 머릿속 지식이 입에서 술술 풀리고, 강의를 마치고도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정말 부럽다. "절망 없는 강의는 없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내가 그런 자괴감의 소유자니 삼월은 내게 큰 괴로움의 달이 되어 버렸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나는 오랜만에 강사가 아닌 학생이 되었다. 남해에 내려와 알게 된 대학 후배 김봉윤 군의 인문학 강의를 듣게 된 것이다. 남해 토박이로 누구보다 남해의 역사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을뿐더러 고향의 발전에 열성인 친구다. 고려 팔만대장경 전체가 남해에서 판각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네 차례의 강의를 통해 설파했다. 그런 신념에 어울리게 그는 '고려대장경 판각성지보존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강의인지라 놓칠 수 없어 읍내에 있는 아담한 강의 장소를 찾았다.

김봉윤 군이 강의하는 방식은 나와는 딴판이었다. 그의 강의는 듣기에 편안했고 유머와 해학을 적절하게 반죽해 넣어, 마치 입에서 살살 녹는 잘 빚은 인절미 같았다. 공부가 깊은 탓이겠지만, 들어보니 그는 타고난 강사였다. 강의를 지배했지 지배당하지 않았다. 오랜만의 강의를 기분 좋게 듣고 난 뒤 몇몇 지인들과 자리를 옮겨 늦은 밤까지 유쾌한 술자리를 가졌다.

감히 우리 같은 속인들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부처님과 공자도 훌륭한 교사이자 강사였다. 그처럼 많은 제자를 두었고,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세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이유 중 하나가 두 분 모두 틀에 박힌 교육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을 들려주는 식의 교육을 했다면 두 분 모두 가르침의 빗물이 지구 전체를 촉촉이 적시지는 못했을 것이다.

두 분이 가르치는 방식은 어떻게 진부한 틀을 깬 것일까? 여기서 그 가르침의 큰 그릇에 담긴 내용을 형용하기는 불가능하니, 가르쳤던 방식을 통해 실체를 더듬어보고자 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꿸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가르쳐 진리를 깨치게 만드는 설법을 일컫는 말로 대표적인 것이 차제설법(次第說法)과 대기설법이다. 차제설법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시켜 상대의 의욕과 관심도를 높인 뒤 어려운 진리를 일깨우는 설법을 말한다. 대기설법은 상대의 근기(根機, 지적 수준이나 심리적 자세의 정도)에 맞춰 같은 진리라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들려주어 결국에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설법이다.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은 서울(진리)에 닿기 위해 '모'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 언덕과 강물을 넘어 우주와 땅속까지도 휘젓고 파헤치는 기기묘묘한 방식을 다 차용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꾸밀 때 '장광설(長廣舌)'이라 휘갑한 것이 아닐까?

처음 부처님이 대각(大覺)을 이루셨을 때 그 진리를 대중에게 알리기를 주저하셨다고 한다. 이 어려운 진리를 과연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또 대중이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악귀의 무리들이 방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천왕(梵天王)의 권청(勸請)을 받은 뒤 마음을 바꿔 설법을 시작하시게 되었다.

고해를 사는 중생들에게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도구로 제시한 궁극적인 가르침이 사성제(四聖諦)인데, 오랜 시간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기름진 음식을 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듯이 무턱대고 그들에게 이 진리를 말할 수는 없었다. 약을 준다는 게 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계를 밟아, 즉 차제설법을 통해 진리 세계의 문을 여셨다. 부처님은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과 음식을 베풀어 구제하라는 시론(施論)부터 말씀하셨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보시의 정신을 권한 것이다.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덕행이니 수긍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이어 생물을 죽이지 말고, 간음을 범하지 말며, 거짓말을 입에 올리지 말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며, 정신을 놓게 만드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오계(五戒)를 가르쳐 계론(戒論)을 펼치셨다.

침묵의 지혜 보인 부처님
대기설법의 필요성 나와
우리네 교육의 지향점

다음으로 생천론(生天論)을 갈파해 선업을 쌓으면 죽어 극락에 가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논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길고긴 방편의 골목길을 다 지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사성제의 깊은 이치를 전하셨다. 이런 설법이라면 최하근기의 사람이라고 해도 진리의 깨침에 도달하지 못할 이가 없을 것이다. 더러운 물을 정수하려면 먼저 불순물부터 없애야 하듯이 마음속에 똬리를 튼 선입견이나 오해, 악심(惡心)부터 걸러내는 길을 부처님은 택하셨다.

대기설법이란 진리를 들으려는 사람의 자질이나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수준에 알맞은 설명 방식을 찾아 말씀하시는 것을 일컫는다. 또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지 어떤 근심에 빠져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해 진리의 문으로 이끄는 방식이기도 하다. 남편이 죽어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 아기의 탄생을 축원하는 덕담을 하면 설득은 고사하고 분노만 자아낼 뿐이다.

경전을 읽노라면 때로 부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 아예 침묵하거나 동떨어져 보이는 대답을 하셨던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왜 대답이 없는지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부처님이 나를 속인다고 의심할 때도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옅어서도 아니고 대답할 답안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목이 말라 죽겠다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내나 우물로 가는 길을 알려야 한다. 갈증을 풀고 난 뒤 배를 불리고 마음을 살찌울 양식을 전해야 진리의 고갱이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끝없는 중생 사랑은 이런 차분하면서도 세심하며 배려 깊은 마음바탕에서 나왔다. 그래서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농토가 장맛비를 한달음에 빨아들이듯 많은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었고, 스승의 설법을 이은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와 신도에게 깨달음을 전했던 것이다.

티끌 지우게 하려면 거울 주어라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부처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자에게도 제자가 무수히 많았는데, 다 잘난 놈만 입학하는 것은 아니었다. 배우려는 열의는 같을지라도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은 제각각이었다. 이런 제자들에게 너무 수준이 높아 상징적이거나 판에 박힌 대답만 뇌까린다면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에 그칠 게 뻔하다. 이러면 교육의 취지에서 한참 멀어진다. 나는 공자가 실천한 교육 방식을 '임기응변'의 교육이라고 부른다.

공자가 가장 목청을 세워 함양하라고 내세운 덕성은 '인(仁)'이었다. 인은 우리말로 '어질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쉽지 무엇이 어진 것인지 설명하거나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다. 어질다는 것이 바람직한 덕행이기는 하지만, 부지런하다거나 똑똑하다거나 효자다 라는 말과는 달리 실체가 확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논어〉를 보면 제자들은 이 '인'에 대해 가장 많이 묻고 있다. 수십 차례도 더 될 것이다.

그 질문에 공자가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했다면 구태여 〈논어〉에 그 많은 질문이 다 수록될 까닭이 없다. 수십 차례가 넘는다는 말은 그 답변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공자는 제자가 이해할 수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대답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안연(顔淵)이 어짊에 대해 묻자 공자는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예〈공공의 이익〉를 되살리는 것을 어짊이라 한다.(克己復禮 爲仁)……"고 대답했다. 중궁(仲弓)이 묻자 공자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야 하느니라.(己所不欲 勿施於人)……"고 대답했다. 번지(樊遲)가 묻자 공자는 정말 간단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愛人)"고 대답했다. 같은 질문에 한 대답이 이렇게 다르다. 왜 그럴까?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은 딱히 강단이 아니더라도 남을 가르치면서 산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하고, 상사는 부하를 가르쳐야 하며, 선배는 후배를 가르쳐야 한다.(물론 그 반대도 성립한다.) 그럴 때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내 말이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며 윽박지르고 있는가? 아니면 부처님과 공자처럼 들을 사람의 마음자세와 처지, 능력을 헤아려 정말 귀에 와서 꽂히는, 마음을 울리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 새로운 학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두 분의 교육이 더욱 가슴속을 켜켜이 맴돈다. 〈소설가〉

제 13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9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 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과 힐링
•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업장소멸
•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체험-감동의 파노라마
• 관람한 모든 불자들이 극찬하는 승군의 전승무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템플라이프(유료) 선무도 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공연내용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 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선무도 공연 오후 3시(무료 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2년 전액 무료(홈페이지 참조)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대금강문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선무도 수련원 | 서울 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 본원 010-2554-8100 | 울산 지원 052-911-1690 | 대구수련원 010-8880-1210 | 하동 용화사 055-882-1689 | 해외 15개국 선무도 지원(센타)

“佛性엔 남북 없다” 답한 위대한 선지식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⑤ 육조 혜능(상)

佛性, 그 위대한 언어

“간디 씨, 나(불가촉천민)에게는 조국이 없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암베드카르(Ambedkar, 1891~1956)가 인디라 간디에게 던진 말이다. 암베드카르는 카스트(Caste)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이다. 그는 1948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암베드카르가 겪은 간디는 ‘마하트마’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간디 씨’였다. 간디는 불가촉천민을 ‘하리잔(신의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진정한 천민을 위한 성자는 아니었던 듯 하다.(간디는 바이샤 계급) 신분 문제만큼은 암베드카르와 간디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다.

암베드카르는 고대 인도로부터 신분차별 제도가 힌두교(브라만교)라고 보고, “나는 비록 힌두교도로 태어났지만 불자로 죽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불교로 개종하였다. 근대 불가촉천민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던 인물이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카스트에 입각한 힌두교는 피압박 민중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것이 내가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이유입니다. 힌두사회는 불평등의 또 다른 이름인 사성제도 위에 서 있습니다. 힌두교는 억압받는 계층들에게 노예·농노와 같은 삶이 있을 뿐입니다. 힌두교에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불가촉천민에게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는 오로지 평등한 인권입니다.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종교는 석가모니 불교일 뿐입니다.”

그가 불교로 개종한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똑같이 귀중한 존재라는 점 때문이다. 그 똑같이 ‘소중함’이란 모든 중생이 수행을 통해 누구든지 위대한 성자(붓다)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곧 성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준다는 것, 그 근거는 바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一切衆生悉有佛性).

육조 혜능(六祖 慧能, 638~713)이 출가를 결심하고, 5조 홍인(601~674) 선사를 찾아갔다. 혜능이 홍인에게 인사를 올리자, 홍인이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저는 영남의 신주라는 땅의 백성이온데, 멀리서 스승을 뵙고자 왔습니다. 오직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가 살던 영남은 예전부터 오랑캐 땅으로, 너는 오랑캐에 불과하거늘 어찌 하천한 신분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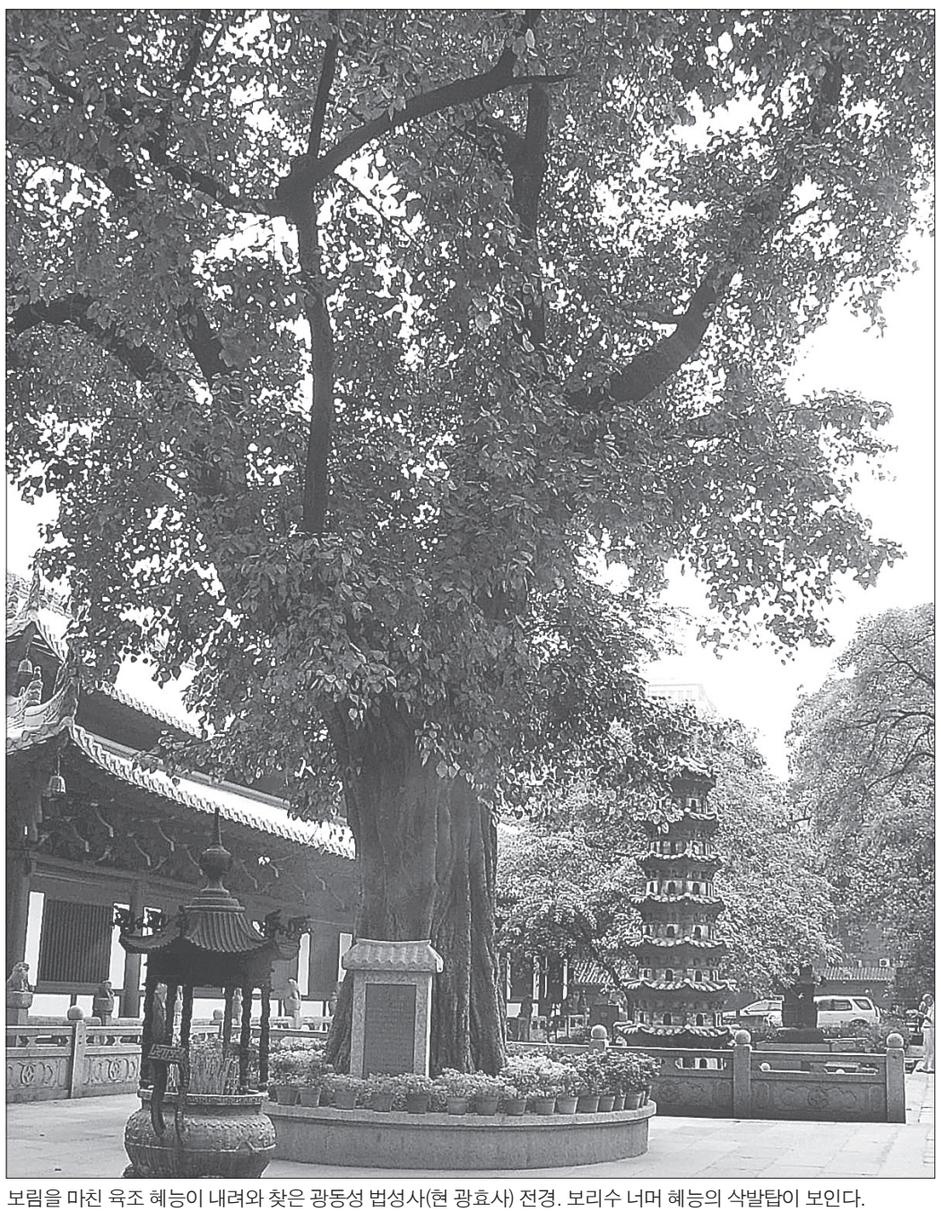
“사람에게는 비록 남과 북이 있을지언정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스승님과 오랑캐가 다르지 않은데, 어찌 불성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오랑캐’는 한자로 ‘갈료(獦獠)’인데, 한자에 모두 ‘개사슴록변(犭)’이 붙어 있다. 곧 ‘야만인’·‘하열한’·‘모자라는’·‘태생이 천한’ 등의 인격 모독이 담겨 있다. 〈숫타니파타〉에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비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로 바라문이 된다”고 하였다. 곧 부처님께서도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셨다. 혜능의 말대로 인간이 어디에 태어났든, 여자든 남자든, 양반이든 노비이든 지위고하를 떠나 불성을 지닌 존재이다.

혜능의 출가 및 오도

중국에 인도불교가 유입된 이래 500여 년이 넘어서야 인도적인 색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나마 중국적인 문화, 즉 중국적인 사상으로 탈바꿈되어 깨달음의 근원인 불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육조단경〉에서는 ‘自性’이라는 용어를 사용)은 6조 혜능에 이르러서이다. ‘불성에 남북이 없다’고 말한 혜능의 답변은 혜능선의 중요한 테제가 된다. 혜능이 언급한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불성은 ‘참마음(眞心)’을 가리키는 이명(異名)으로 누구에게나 구족되어 있는 청정한 자성이므로 곧 ‘돈오견성(頓悟見性)’이다.

한 승려가 읽은 ‘금강경’ 듣고
오조 홍인과 문답 후에 출가해
답변 내용, 혜능선의 테제가 돼
불사선악·비풍비번 일화들 남겨



보림을 마친 육조 혜능이 내려와 찾은 광동성 법성사(현 광효사) 전경. 보리수 너머 혜능의 삭발탑이 보인다.

물론 혜능보다 280여 년 앞선 축도생(竺道生, 355~434)이 〈열반경〉의 돈오불성론을 주장하였다. 당시 도생은 큰 지탄을 받았고, 불교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혜능에 이르러 본래성인 불성과 돈오사상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혜능은 동아시아 선종사에서 위대한 선지식으로 받들어진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명도 ‘조계산(曹溪山)’에 머물렀던 혜능의 명칭을 딴 것이다.

그렇다면 혜능은 누구인가? 혜능은 옛날부터 유배지로 유명한 영남(현 광동성) 신주(新州) 사람이다. 혜능의 속성은 ‘노(盧)’ 씨로서 권세 있는 집안의 후예라는 등 여러 이설이 있다. 혜능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근근이 땔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나무꾼이었다. 어느 날 그가 나무를 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잠깐 쉬어가기 위해 주막집에 들어갔다가, 방에서 한 승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 그때 승려가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응당히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에 혜능은 출가를 결심했다. 명나라 때 감산 덕청(憨山德淸, 1546~1623)도 〈관음경〉의 ‘능구세간고(能救世間苦,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한다)’ 구절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고, 중봉 명본(中峰明本, 1263~1323)은 출가해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중 ‘하담여래(荷擔如來, 여래를 짊어진다)’ 구절에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혜능은 홀어머니를 어느 스님에게 부탁하고, 당시 유명한 호북성(湖北省) 황매(黃梅) 5조 홍인을 찾아갔던 것이다. 홍인과 혜능이 처음으로 만나 나눈 선문답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홍인은 혜능의 근기를 알아보고, ‘나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한다. 이렇게 혜능이 스승과 인연되어 그곳에서 몇 개월간 노동하였다. 실제 중국 황매 오조사에 가면, 혜능이 허리춤에 맷돌을 매고 방아를 돌리는 모습의 모형이 있다. 어느 날 홍인이 제자들에게 게송을 한 수 지어오라고 한다. 이 게송을 보고 깨달음의 인가를 받을만한 제자에게 가사와 발우를 전하겠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홍인의 수제자였던 대통 신수(大通神秀, 606~706)가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할지어다.(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勿使惹塵埃)”라고 게송을 지어서 기둥에 붙였다. 혜능도 이에 맞서 다음 게송을 붙였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은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이 있으리오.(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여기서 일물(一物)이란 이름조차 붙일 수 없어 일물이라고 가정해 놓은 것이다. 일물은 불성(佛性)·심지(心地)·보리(菩提)·법계(法界)·열반(涅槃)·여여(如如)·법신(法身)·진여(眞如)·주인공(主人公)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어구가 후대 선종사에서 발전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 서산대사도 〈선가귀감〉에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이라.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얻을 수 없도다(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不曾滅 名不得狀不得)”라고 하였다. 혜능의 게송을 본 홍인은 혜능을 몰래 불러 전법의 증표인 가사와 발우를 혜능에게 전수하고, 다음 날 새벽 떠나보낸다.

혜능의 보림

혜능은 의발(衣鉢)을 들고 영남지방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홍인의 법이 노행자(혜능)에게 전해져 의발을 들고 절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몇몇 승려가 의발을 뺏으려 하였다. 이때 4품 장군이었던 혜명 화상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었으므로 제일 앞장서서 혜능을 쫓아왔다.

혜능이 의발을 큰 바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이 의발은 믿음을 표시한 것인데, 힘으로써 다투겠느냐?”

혜능은 말을 마치고, 풀 덩굴 속에 몸을 숨겼다. 혜명이 와서 먼저 의발을 들려고 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놀라 혜명이 말했다. “행자여, 행자여 나오십시오. 나는 법을 위하여 온 것이요, 의발을 탐내어 온 것이 아닙니다.”

혜능이 나와서 반석 위에 앉으니 혜명이 절하면서 말했다. “노행자님께서는 제게 좋은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

“네가 법을 위하여 왔다고 하였으니,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런 때, 어떤 것이 명상좌의 본래면목인가(不思善 不思惡 本來面目)”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공안 가운데 하나로 〈무문관〉 23칙 ‘불사선악(不思善惡)’으로 전한다. 사유 작용이 일어나기 전의 본질, 참 성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혜능은 남쪽으로 내려와 15년간 은둔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을 보림(保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혜능은 산에서 내려와 광동성(廣東省) 광주(廣州) 법성사(法性寺, 현 광효사)에 들어가니, 인종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마침 도량에서 학인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 깃발이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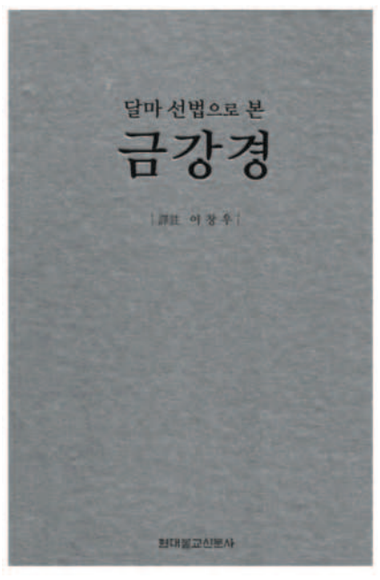
한 학인이 뜰에 있다가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옆에 있던 학인이 말했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두 학인의 논쟁이 끝나지 않자, 혜능이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일화는 ‘비풍비번(非風非幡)’ 공안으로 〈무문관〉 29칙이다. 혜능의 말대로 깃발이 움직인 것은 바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바로 깃발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듣고 인식한 그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보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깃발이 보이고, 소리에 마음 두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 법이다. 깃발이 움직이든 바람 소리가 들리든, 마음 두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법이다. 이 공안에도 세상을 사는 이치가 담겨 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결국 세상이 어떠하든 주위 사람이 어떻든 자신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敎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중생 사랑



新 불교사자성어

⑩ 무연자비(無緣慈悲)

'무연자비(無緣慈悲)'는 아무런 연고나 관련성이 없이 베푸는 자비(보시, 희사, 사랑 등)를 뜻한다.

우리는 대개 어떤 인연 관계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즉 연고가 있는 특정인들에게 선심(善心)이나 자비를 베푼다. 그러나 무연자비는 그런 관계성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 아무런 연고나 인연 관계가 없이 베푸는 자비, 목적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자비로서 불특정 다수 즉 일체중생들에게 베푸는 자비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비가 무연자비(無緣慈悲)이다.

불교의 자비, 가톨릭과 기독교의 사랑, 인도 바가바드 기타의 박티(Bhakti -信愛)는 모두 순수한 무연자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인간으로서 이런 자비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한 예로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는 마음, 정성, 사랑, 보살핌은 무연자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가성은 없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바람이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모두가 그랬고, 요즘 시대의 엄마들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쯤에서 내가 13살 때 어미 새를 생포했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6월에서 7월이 되면 새가 새끼를 부화한다. 새끼들이 '짹짹' 거리면서 막 날려고 할 때였다. '어미 새, 새끼 새' 할 것 없이 생포하기 위하여 몇 시간을 쫓아다니기도 하는데, 시골에는 '할미새'라고 하얀색 새가 많이 있었다.

나는 새끼보다는 어미 새를 생포하기 위하여 새끼를 이용했다. 작전(作戰)은 새끼 새를 30cm 깊이의 토롱 속에 넣어두고는 방안에서 문틈으로 지켜보다가 어미가 토롱 속으로 들어가면 생포할 작정이었다. 어미는 '짹짹' 거리고 울어대는 새끼를 구하기 위하여 수없이 토롱 속으로 들락거렸다. 그 때마다 총알보다도 더 빠르게 나가서 구멍을 막았는데, 1~2초 사이에 놓치곤 했다. 이러기를 수차례, 결국 어미 새는 내 손에 잡혔다. 새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었지만 무언가 감동을 느꼈다.

〈열왕기〉를 보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우기다가 솔로몬을 찾아가 판정을 의뢰하는 이야기가 있다. 솔로몬왕은 두 여자를 불러놓고 그 앞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주라고 명령한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준다.'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이다. 병사가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그 중 한 여인이 아이 위에 엎드렸다. 솔로몬왕은 '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 주어라 '고 명령한다. 그 여자가 곧 아이의 엄마였다. 참으로 솔로몬의 명석한 지혜였다.

불교가 종교적 실천 원리로서 강조하는 것이 '자비와 사랑'이다. 이것은 종교의 중요한 역할과 가치이기도 하다. 특히 무연자비는 중생에 대한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자애경〉에는 "모든 중생이 안락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는 문구에 이어 "살아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행복하라. 움직이는 것이든 움직이지 않는 것이든,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중략) 이미 태어나 있는 것이든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것들까지 행복하라. 행복하라"는 간절한 구절이 있다.

이것은 자비의 대상이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 더 나아가서는 나무나 식물에까지 적용시킨 것이다. 오늘날 지구가 온난화, 쓰레기 등으로 심각한 환경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욕망이 만들어 낸 최악의 결과물이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베푸는 자비는 절대 평등의 자비, 무연자비이다. 무연자비는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베푸는 자비로서, 치열한 경쟁,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궁극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 십회향품에는 구도자가 해야 할 과제로서 보살행(자비)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생이 육체를 달라고 하면 육체를 주고, 목숨을 달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주라고 설하고 있다. 목숨까지 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분쟁, 다툼은 정지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차별 없는 무한한 자비, 순수한 자비에 대한 상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위대한 대장장이의 금 변색 안돼



격절록 강설

⑩ 백장불자화 2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奇怪 諸禪德 (也不免遭他點檢) 如今列其派者甚多 (莫欺我兒孫) 究其源者 極少 (雪竇從來點胸) 總道百丈於喝下大悟 還端的也無 (自是他把不住) 然刀刁相似 魚魯參差 (曹溪波浪如相似 無限平人被陸沈) 若是明眼漢 瞞他一點不得 (明眼漢正好瞞) 只如 馬祖道 你他後開兩片皮 將何為人 (人將財試 金將火試) 百丈竪起拂子 (機境未忘) 為復如蟲禦木 (正是) 為復啐啄同時 (夢見) 諸人要會三日耳聾麼 (雪竇還會麼) 大冶精金應無變色 (錯 下名言不是今日)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기이하고 괴상하구나, 여러 선덕(禪德)이여! [역시 그(설두)의 점검을 면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갈라져 나온 무리가 매우 많지만 [내 자손들을 속이지 말라.] 그 근원을 참구하는 이는 극히 적구나! [설두는 지금까지도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모두들 백장이 (마조의) '할(喝)!' 아래 대오(大悟)했다고 말하지만, 단적인 것(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스스로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도(刀)와 조(刁)가 비슷하고 어(魚)와 로(魯)는 가지런하지 않지만, [조계의 물결이 이와 같다면 무한한 보통 사람들이 땅에서 침몰될 것이다.] 만약 눈 밝은 사람이라면 한 점도 속이지 못할 것이다. [눈 밝은 이가 속이기에 딱 좋은 법이다.] 그건 그렇고, 마조가 너는 이후에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뭘 가지고 사람을 위할 것인가?' 라고 하자,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시험하고, 금은 불을 가지고 시험한다.] 백장이 불자를 세운 것은 [기경(機境)을 잊지 못했군.]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 우연히 문자를 이룬 것인가? [맞다.]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동시에 쫀 것인가? [꿈에서나 보겠는가.] 여러분은 3일 동안 귀 먹은 것(三日耳聾)을 알고 싶은가? [도리어 설두는 아는가?] 위대한 대장장이가 정련한 금이라면 마땅히 색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착(錯, 틀렸다)! 그러나 명언名言을 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다.]

[評唱 1]

師云. 百丈和尚 侍奉馬祖二十餘年 最得馬祖提誨. 此一則因 叢林謂之再參馬祖話 人多舉得不同 然宗師家 只拈他著力處.

백장 화상(和尚)은 마조(馬祖)를 20여 년 시봉하면서 마조가 이끌어준 가르침(提誨)을 가장 잘 얻었다. 이 일칙 인연(一則因)을 총림에서는 '재참마조화(再參馬祖話)'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론했어도 서로 같지 않기에 종사들은 다만 저 착력처(著力處, 힘을 얻은 곳)만 염(拈)할 뿐이다.

---

*선덕(禪德)은 선리(禪理)에 깊이 통한 덕망 높은 승려를 뜻하며, 고덕(古德)이라고도 한다.

*어로(魚魯)는 어로불변(魚魯不辨)의 준말로 어(魚) 자와 노(魯)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무식함을 비유한다.

*참치(參差)는 참치부제(參差不齊)의 준말로, 원 뜻은 길고 짧고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여충어목(如蟲禦木)은 여충어목 우이성문(如蟲禦木 偶爾成文)의 준말로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었는데 그 갉아먹은 흔적이 우연히 글자가 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⑩ 믿음 편 10

붓다 그리움서 시작된 불탑 신앙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가 남긴 삶의 흔적들을 더듬어본다. 그를 추억하고 싶기 때문이다. 때론 함께 자주 갔던 공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고, 미치도록 보고 싶을 때는 사진이나 유품을 꺼내놓고 펑펑 울기도 한다.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49재(齋)를 지내기도 하고 떠난 날이 다가오면 제사를 모시기도 한다. 이렇게 고인을 추억하면서 산 자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런데 떠나간 이의 사진이나 그림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떨까? 무척이나 아쉬울 것이다. 이때는 무덤을 찾거나 그의 체취가 배어있는 유품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러한데, 위대한 성인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석가모니 붓다가 바로 그랬다. 붓다가 열반에 든 후 사람들은 그를 추억하고자 했으나, 그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불상은 만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위대한 성인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전통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붓다를 추억했다.

붓다는 80세의 나이에 열반에 들었다. 그때 붓다의 유훈에 따라 재가자들이 다비식을 거행했는데, 여덟 섬 너 말의 사리(舍利)가 나왔다고 한다. 다비식에 참석한 여덟 나라의 임금들은 서로 붓다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사리를 자기네 나라로 모시겠다고 다투었다. 그러다가 결국 공평하게 여덟 등분으로 나누어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탑을 세우고 그 안에 사리를 봉안하였다.

물론 붓다의 직접적인 숨결이 남아있는 가사나 발우 등도 그를 추억하고 숭배하는 주요 물건이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설법을 상징하는 진리의 수레바퀴인 법륜(法輪) 등도 그를 추억하는 상징물이었다. 붓다의 사리를 모신 탑이 세워지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꽃과 향 등으로 예경하고 진리의 스승을 추억하였다. 불탑이 이제 신앙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당시 탑은 오늘날과 달리 사원 안에 있지 않았다. 탑이 사원으로 유입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절은 비구, 비구니들이 관리하였고 탑은 별도의 장소에서 재가자들이 운영하였다. 공부와 수행의 공간인 사원과 붓다의 사리를 모신 탑이 각자 독립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싶으면 절을 찾았고, 그가 그리울 때면 탑을 찾아가 추모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이처럼 자유로운 불탑신앙이 가능했던 것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인도 전역에 8만 4천의 탑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순례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휴게소를 만드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오늘날로 보자면 국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수많은 불탑을 조성한 것인데,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불교에서 그를 전륜성왕(轉輪聖王),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인도 전역에 불탑이 조성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지를 순례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그들은 탑에 꽃과 향, 일산 등의 공양물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저마다의 소망을 빌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참배객들에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로 보자면 종교문화해설사 역할을 한 셈인데, 그들이 곧 법사(法師)의 원형이다.

붓다는 자신의 장례를 승려가 아닌 재가자에게 맡겼다. 그들은 불탑을 조성하여 붓다의 사리를 모시고 추모하였다. 그리고 훗날 불탑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 그것이 곧 대승불교 운동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불탑은 대승불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장례를 재가자에게 맡긴 붓다의 마지막 유훈이 그저 우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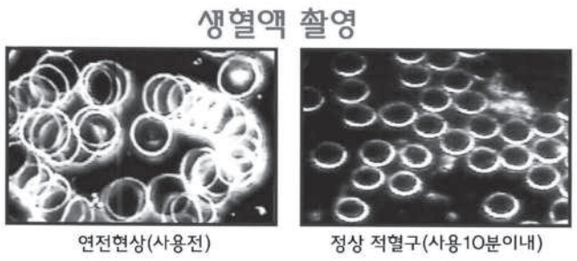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시대 맞춘 열린 포교 지향”

신임 동래구불교연합회장 효문 스님



“시대에 발맞춰 신세대 포교 방법을 공유, 학습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래구불교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 신임회장에 선출된 효문 스님<사진>이 회원들과 소통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포교로 젊은 불교를 지향할 것을 다짐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3월 11일 효심사에서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효문 스님은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원에게 젊은 불교로 새롭게 도전하고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회원 스님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발전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대에 발맞춘 포교 방법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젊은 불자들과 소통할 것이며, 다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효문 스님은 교육 및 지역 활동으로 △종교인 과세 교육 △SNS교육 △환경보존 및 자살예방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활동 등을 꼽았다.

한편, 효심사(주지 효문)는 이날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삼존불 점안법회를 법당에서 봉행했다. 효심사는 동래시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효문 스님은 “더 낮은 곳에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위한 쉼터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3월 1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열린 화엄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신해행증 실천하는 불자로”

전주 화엄 · 수현불교대학 입학식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가 운영하는 전주의 대표적인 불자 교육기관인 화엄불교대학과 전주 혁신도시에 개원한 전법도량 수현불교대학이 3월 11일과 13일 각각 입학식을 개최했다.

3월 11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의실서 열린 화엄불교대학 입학식에는 불교학과 31기 38명, 학림원 22명의 신입생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이 참석해 입학을 축하했다.

학장 성우 스님은 입학식사를 통해 “불교대학의 교육과정은 이론적 교육과 실천적 교육을 병행한다. 앞으로 1년간의 교육을 통해 신해행증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3일에는 수현사불교대학이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수현사 2층 교육실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신입생 30명과 바라밀 합창단이 참석해 입학을 축하했다.

이번에 입학한 불자들은 1년간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교리, 불교학 개론, 사원 예절 등 불자로서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래하는 명상수행 국내 전해 힐링 선사”

Interview

플럼빌리지 집중수련 여는 마가 스님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플럼빌리지 법사단 초청해
직지사서 5월 16~19일간
노래 · 연주 중심 힐링법회
한국형 프로그램 개발계획도

“‘플럼빌리지’에서는 법문을 듣는 시간보다 노래명상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1시간 법문보다 3분의 노래 한 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책 속이 아닌 일상 속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과 소리를 통해 명상하는 플럼빌리지 수행이 가장 현대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틱낫한 스님이 지은 세계적인 명상공동체 ‘플럼빌리지’의 명상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됐다. (사)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사진>은 3월 12일 기자들과 만나 플럼빌리지 법사단 초청 수행 교실인 ‘입가엔 미소! 마음엔 평화’ 수련회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플럼빌리지는 세계적인 고승인 틱낫한 스님이 1982년 프랑스에 창설한 명상공동체이다. 인종과 종교와 상관없이 이곳에 모인 수행자들은 노래명상 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 현지에서 직접 4차례 수행을 체험한 마가 스님은 플럼빌리지 법사단 스님 7명을 초청해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3박 4일간의 수행 교실은 실제 플럼빌리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법사단 스님들의 노래와 연주가 있는 힐링법회로 진행되며 일정 전반에 음악수행이 함께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래 명상(Singing Meditation)’이다.

“노래 명상은 합창을 위한 합창이 아닙니다. 플럼빌리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한 가지씩 악기를 다룹니다. 피리, 기타 등 스님이 직접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 스크린에 뜬 영어 가사를 보며 대중이 함께 따라 부릅니다.”

플럼빌리지 명상의 가장 큰 특징은 ‘노래’이다. 위대한 틱낫한 스님에 대한 노래 ‘Forever Shining Stars’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노래한 ‘Happiness is Here and Now’ 등이 대표곡이다.

소리명상 ‘잠깐멈춤’도 있다. 15분 간격으로 명상종이 울리면 모든 법문과 행동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수행이다.

“플럼빌리지에서 가장 좋았던 수행을 꼽으라면 바로 이 소리명상 수행이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를 제외한 시간에 종이 울리면 모두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빨리 달린다고 명차(名車)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잘 되는 차가 더 좋은 차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은 이 자리서 법회마다 우리말 가사로 된 힐링명상음악을 만들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플럼빌리지의 방식을 국내에 맞게 바꿔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포교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이 같은 청사진의 시작이기도 한 수행 교실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김천 직지사 만덕전과 소나무숲길서 진행되며 틱낫한 스님의 제자인 플럼빌리지 법사단 스님 7명, 마가 스님, 가수 김태곤, 붓다라마 등이 참여한다. (02)2682-0260

“18년 실전경험으로 ‘맞춤형’ 복지를”

고양시 덕양행신종합복지관 신임관장 취임한 성화 스님



“지역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에 신경 쓰고자 합니다. 복지관 회원은 물론이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내 노약자, 저소득층 이웃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임관장에 성화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덕양행신복지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017년 1월부터 위탁해 수국사(주지 호산)를 지원 사찰로 두고 운영 중이다. 복지관 제2대 관장 성화 스님은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3월 1일 부임한 성화 스님은 20여 년 가까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일선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특히 덕양행신복지관 주변 지역인 덕양구, 일산 동 · 서구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이미 활성화된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덕양행신복지관이 위치한 덕양구는 구도심으로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라 복지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과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구 · 시청과의 연계사업도 적극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성화 스님에 따르면 덕양행신복지관은 일일 최다 30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활성화된 시설이다. 또한 120개 강좌를 마련해 대상별 복지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다. 스님은 재가서비스 확충,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덕양행신복지관을 복지 · 교육 · 문화 · 체육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간, 지역민 삶의 행복구현 허브로 만들고 싶습니다. 변화된 가족 환경에 맞게 부모 자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텃밭과 화단을 가꿔 아름다운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직원들과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김지원 기자

법타 스님, 동국대에 1천만원

“비구니 기숙사 혜광원에 도움 되길”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스님은 3월 13일 동국대를 찾아 비구니 기숙사 혜광원 건립 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에 앞서 법타 스님은 “동국대를 사랑하는 선배로서 모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한다”며 “동국대 정각원장을 역임한 시절 비구니 스님 기숙사인 혜광원 재건립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학식 높은 천태불자 배출”

대구 대성사, 금강불교대학 졸업 · 입학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3월 7일 금강불교대학 2018년도 수료식 및 2019학년도 입학식을 경내 서원당 3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졸업생으로 이동호 씨 외 38명이 배출됐으며, 입학생은 53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다. 학업이 우수한 졸업자에게는 천태종 총무원장 신행상과 주지 신행상이 수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명사 사천왕 점안법회

응공조계종, 3월 10일 총본산서 불사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명사는 3월 10일 금강역사, 사천왕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원로의원 홍원 스님, 수덕 스님, 지암 스님, 일각 스님, 원각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부처님의 수호 품안에서 삼독심을 버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싱가포르 국민영웅, 퇴역 후 출가

땐진 다쫌 스님 "더 많은 사람 도와 행복"

박영빈 객원기자

32년간 싱가포르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엘리트 장교가 제대 후 곧바로 스님이 됐다. 뉴스의 주인공은 땐진 다쫌(Tenzin Dratsom, 55) 스님. 그러나 아직 싱가포르에선 속명인 프레드 청(Fred Cheong) 대령으로 유명하다. 지난 3월 3일, '채널 뉴스 아시아'는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흥미로운 뉴스를 특집 보도했다.

스님은 1982년 장교생도로 군문에 들어섰다. 1989년엔 혹독하기로 유명한 미국 해군특수부대 네이비 실 코스를 통과하고, 1991년에는 납치된 싱가포르 항공 117편의 승객구출 작전을 사망자 없이 성공시키면서 싱가포르군의 영웅이 됐다. 이후 32년간 싱가포르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최종적으론 육군사관학교의 부총장을 지냈다.

스님은 2013년 9월에 제대해, 그 달에 바로 달라이라마를 계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나에게 있어 출가는 정신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며 출가를 결심한 계기를 설명했다.

달라이라마는 군문의 경력을 생각해 '땐진 다쫌'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스님은 "티베트어로 '다(dra)'는 망상 · 적군을 뜻하고, '쫌(tsom)'은 파괴자를 뜻한다. 군대에서 외부의 적을 파괴했으니, 이제는 내부의 적을 파괴하라는 뜻"이라고 자신의 법명을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10대 이후로 신행활동을 이어왔다. 군인이었을 때도 매일 새벽 4시에 막사를 떠나기 전에 절에 들러 예불을 올리고 출근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스님은 "출가자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말하며 "불교는 내 힘의 근원이다. 내가 출가를 결정했을 때, 군의 동료들 중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32년 장교로 특수부대 복무
육군사관학교 부총장도 지내
어려서부터 신행활동 이어와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싱가포르 육군사관학교 부총장 시절의 모습(사진 왼쪽)과 출가한 후의 모습(사진 오른쪽). 사진출처=채널 뉴스 아시아

스님은 "출가자의 목적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스님은 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지도했던 사관학교 생도들을 만나며, 특히 사관후보생들의 부모들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고 있다.

스님은 군생활을 회고하며 "출가자와 군인은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적군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가자에게 적군은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이라며 웃어 보였다.

스님은 출가 후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항상 가사를 입고 다니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적응했다"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첫 번째 안거를 지낼 때, 홀로 명상하는 것이 군에서 가장 힘든 훈련보다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보낸 3주간의 수행에 대해 "밤중에 느껴지는 달빛, 눈, 차가운 공기와 상쾌한 마음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집중시켰다. 이는 아주 놀라운 감정"이라며 안거수행의 훌륭함을 설명했다.

현재 스님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자신의 본사인 남인도의 쎄라제(Sera Je) 사원의 어린 스님들에게 영어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외에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중국, 스위스, 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 명상과 안거를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나의 삶과 선택에 어떠한 후회도 없다.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나의 나라를 위해 오직 한 목숨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다시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인 부부의 日 천태종 기여

페촐트 부부, 근대역사 속 일본불교 귀인 평가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이자 성지로 꼽히는 히에이산(比叡山) 중턱에 독일인 부부의 묘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근대 불교학과 음악계에 각각 공헌한 독일인 페촐트 부부의 이야기를 지난 3월 3일 일본의 '츄니치 일보'가 보도했다.

1873년 독일에서 태어난 브루노 페촐트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철학과 종교학을 전공한 후 신문사의 특파원으로 중국에서 근무했다. 1910년 일본으로 파견지가 변경된 후 1917년부터 도쿄제국대학(현 도쿄대)에서 독일어 강사로 근무했다. 이때 피아니스트이자 오페라 가수였던 아내 앙카 페촐트도 함께 일본으로 와 도쿄음악학교(현 도쿄예술대)에서 성악강사로 근무했다.

브루노 페촐트는 일본에 머무르며 학생들과 함께 사찰의 예불이나 신사의 제례에 참가한 인연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신도, 선종, 정토종, 진언종 등의 교학을 연구했다. 특히 대승불교와 천태종의 교학에 심취해 1만권 이상의 불교서적과 예술품을 수집했다.

브루노는 괴테의 자연관과 대승불교와의 공통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천태종의 교학을 독일어로 번역해 최초로 유럽에 소개했다. 또 일본불교의 특징을 분석한 저작을 다수 남겼다. 브루노의 저작들은 일본불교학의 근대적인 기틀을 놓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루노는 살아생전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외국인이자 재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천태종으로부터 승정(僧正, 한국의 종사법계) 법계를 받았다. 당시 보수적인 일본불교계에서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히에이산 기슭에 자리잡은 페촐트 부부의 묘. 사진출처=위키피디아

1937년 아내인 앙카가 사망하면서 "히에이산에 묻어 달라"는 유언에 따라 히에이산 중턱에 묘가 세워졌다. 아내가 죽은 후에도 홀로 불교학 연구를 이어가던 브루노도 1949년 사망하면서 이곳에 합장됐다.

페촐트 부부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기념회는 부부의 기일에 맞춰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난민 피난처' 거듭난 日 선종 사찰

도쿠린지 다카오카 스님
난민 게스트하우스 운영

일본 선불교 슈초 다카오카 스님(Shucho Takaoka)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연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안다. 이러한 통찰로써, 그는 나고야시에 위치한 도쿠린지(Tokurin-ji) 사찰을 이방인 및 실향민들을 위한 '피난처'로 탈바꿈시켰다.

불교 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Global buddhistdoor)는 3월 6일 일본 선종 3파 중 하나인 조동종(曹洞宗) 소속 사찰인 도쿠린지를 소개했다. 도쿠린지는 국내외 전쟁 피난민이나 난민, 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가정 청소년 등에게 임시피난처를 제공한다. 또한 한마음을 가진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사회센터로서 역할도 한다.

다카오카 스님은 "몇몇 사람들은 우리 사원을 '카케코미데라(kakekomidera)'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카케코미데라는 에도시대(1603~1868) 가정 폭력 또는 강제 결혼에서 도망친 여성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던 신중절(비구니들이 사는 절)이다.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2013년 지역 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지은 도쿠린지의 샨티쿠티 공사 모습. 사진출처=재팬타임즈

다카오카 스님이 도쿠린지를 약자들을 위한 피난처로 만든 것은 자신이 이방인일 때 느꼈던 고충 때문이다. 스님은 26세 때 일본 사회에 환멸을 느껴 네팔로 향했다. 당시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설사와 고열 등에 시달리던 그를 현지 주민들이 품어줬다.

다카오카 스님은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나를 '불쌍히' 여긴 주민들이 내게 무료 숙박을 제공했다. 이후 나는 10년간 네팔에 머무르며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보존하는 일을 했다"고 했다.

일본에 돌아온 후 1985년 다카오카 스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쿠린지 사찰을 맡았다. 스님은 그때부터 이방인과 실향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일종의 '게스트하우스'를 사찰 뒷편에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화의 집'이란 뜻의 산스크리트어인 샨티쿠티(Shantikuti)라는 이름을 지었다.

샨티쿠티는 태양열 ·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샨티쿠티가 후대에게 '퍼머컬처(Perma culture)'와 지속가능한 삶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남길 바라는 스님의 뜻이다.

이방인과 실향민들을 위해 지어진 공간은 지금 난민을 지원하는 사회적 단체로 거듭났다. 난민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난민지위 신청을 돕기도 한다고. 특히 스님은 해당 공간이 불자들의 자발적 힘으로 지어진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겼지만, 실제 공사는 대부분 자원 봉사자들의 손으로 일궜다. 심지어 아이들도 흙벽을 함께 쌓으며 도왔다"며 "모든 불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타인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타임지 표지 장식

망명 60주년, 티베트 '윤회 제도' 폐지 의사 피력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84)가 미국 최대 시사 주간지 타임(TIME)지 표지를 장식했다. 망명 60주년을 맞아 진행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 제도 폐지'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달라이 라마는 60년 전인 1959년과 2008년에 타임지 표지에 실린 바 있다.



티베트 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84)가 미국 최대 시사 주간지 타임(TIME) 표지를 장식했다.

3월 7일(현지시각)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무신론자인 중국 공산당 정부가 15대 달라이 라마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600만 티베트인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달라이 라마 제도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만둘 것이다. (폐지가) 문제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달라이 라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끝으로 티베트 불교의 '윤회 제도'를 끝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중국은 당 기관지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달라이 라마를 즉각 저격하고 나섰다. 서장일보는 칼럼을 통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계급 · 사상 · 조직의 뿌리"라고 비난하는 한편, 달라이 라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달라이 라마를 향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GM SOFT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친년의 묘배
3일만에 깨치는 야포禪

국판 218쪽
석호 지음
12,000원
철저하게 친절한
깨달음으로의 안내
부디 실행하라
그대 탄생의 이유
완전한 존재가 된다.
홀연히 섬으로 간 스님, 뭘 하시나 했더니 법어를 낚고 계셨네요.
– 제자 광목심 장윤정
❋ 이 책은 깨달음의 세계화 · 나눔을 실천하라는 저자 석호스님의 뜻에 따라 5권 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5권 묶음판매
배부른 소리, 맞습니다.
배 부르니 당신께 내 밥
덜어드릴 수 있어 좋지요.
주는 게 복이니까
깨달음의 선물, 선물하세요.
선물하고 또 선물하면
당신 마음의 키는 쑥 커집니다.
커진 만큼 넉넉해지고
커진 만큼 평온해지므로
배부른 이 권유는
당신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욕지도에서 석호 물처럼
모든 게 변한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줄 수 있을 때 줘라.
❋ 석호스님 법문초청을 원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20일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5권 정가 : 60,000원 → 공급가 : 54,000원 (배송무료)
주문처 : 도서출판 연 화 ☎ 010-9377-1923
주문송금계좌 : <농협> 703-01-384100 (지차연)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스틸한옥
업 일주문 | 가 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강명희

〈3〉 2문–부정관

오염된 마음, 없애고 또 없애기



부정관은 부처님 교법에 의한 수행관법입니다. 옛날 인도에서는 몸이 철저하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수행법이 발달했습니다. 사실은 몸이 더러운 건 아니지요. 몸에 막혀서, 물질에 막혀서 정신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더럽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부정관으로 몸관찰을 해서 까르마를 제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부정관은 첫 번째 단계에서 몸의 장기를 하나하나 관찰하게 했습니다. 눈, 심장, 폐장, 간장 등 장기를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하다 못해 뇌막도 관찰하는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해부를 해서 뇌막을 알았겠어요? 관찰을 해서 마음의 눈으로 봐서 안 것이지요. 그래서 몸의 요소를 적게는 36가지, 많게는 42가지로 나눴어요. 폐, 심장, 뼈, 골수 같은 식으로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입니다. 세부요소들인 손톱에서 발톱까지,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일일이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그것들만 관찰되는 게 아니었어요. 집중해서 들어가 보니 그 속에서 오염된 마음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붙어 있는 마음들을 관찰하면 센 마음들이 떨어져 나와요.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로 살았던 기억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할 때 부정하면서 관찰하는 게 좋아요. '몸은 별거 아니다' 하면서 관찰하는 것과 '몸은 굉장히 소중하다. 몸이 최고다' 하면서 관찰하는 건 다릅니다.

그 당시 부정관 수련을 하다가 많은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더러운 게 많이 나오고, 별 현상이 다 튀어나오니 "진짜 이 몸은 더러운 게 맞구나. 부처님께서 이 몸이 열반을 막는 요소라고 하셨는데, 이 몸이 죽어야 열반이구나"하고 오해를 해서 죽어 버렸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맑고 순수했거든요. 그러니 진짜 이 몸을 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믿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부처님이 아나빠나사띠라는 입출식관을 가르쳤습니다. 아나빠나사띠는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흡관, 수식관이라고도 해요. 부정관할 때는 사띠(마음 집중)를 안 가르쳤는데, 아나빠나사띠를 하면서 사띠를 가르쳤습니다.

부정관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수행을 지도하는 제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세상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거든요. 아나빠나사띠보다는 부정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친 업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나빠나사띠를 하면 업이 그냥 굴러다닙니다. 업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았을 때 문제가 되니까 업을 털어내자는 것이지요.

옛날에 부정관을 통해서 아라한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나빠나사띠를 해서도 아라한이 되었지요. 부정관을 같이 했거든요. 아나빠나사띠를 하면 고요하고 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확실히 빨리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업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약합니다. 업장을 떨어뜨리려면 부정관이 효과적입니다.

부정관의 방법

부정관은 몸의 거친 3악도 업을 떠는 데 탁월한 수행법입니다. 부정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신을 보고 와서 하는 방법과 몸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소승 수행에는 몸이 썩는 것을 보면서 하는 관법이 더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신을 보고 '무서워.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올라오게 해서 그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대승 수행에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서 하는 것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부정관은 하나씩 보는 게 아닙니다. 드러난 것의 밑에 층층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가정합니다. 위빠사나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냥 보는데, 부정관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과거를 관찰하고 현재를 관찰하고 미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쾌에 있는 것이지요. 관찰은 시공간이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부정관은 '부정' 이라는 것을 의도를 내서 관찰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부정해 보자. 제대로 살았는지 살펴보자' 맘먹고 관찰해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냥 털어내세요. 관찰해서 그 더러움의 근원이 되는 종자들을 없애고 본래의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세요. 생각도, 존재도, 관찰해서 일어난 영상도, 감정도, 소리도 다 없애는 게 부정관입니다.

몸 더럽다 생각한 수행관법
장기부터 하나씩 관찰해나가
거친 업 제거하는 데 큰 도움
관찰일지 쓰며 마음 바로보자

먼저, 오염된 몸을 관찰합니다. 몸의 요소인 지수화풍의 성품들을 순서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성을 관찰하고, 수성을 관찰하고, 풍성을 관찰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찰된 몸의 부분들을 없애고 지우고 파괴하고 변화시킵니다. 지성, 수성, 화성, 풍성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몸의 요소를 없앱니다. 행위와 말과 생각작용으로 마음이 더러워지고 감정이 생겨서 몸에 저장하거든요. 물질에 대한 기록들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을 관찰해서 몸속에 들어 있는 물질적인 마음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기억과 고정화했던 개념들과 가치관을 부정합니다. 부정할 때 이 자체가 좋은 거라고 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기억이 나오거나 좋은 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좋은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떠오르는 것은 다 나쁘다고 생각해야지요. 부정관은 관찰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 계속 바라보고 싶어도 계속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라지게 하세요.

부정관이 잘되면, 부정관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지수화풍의 마음들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발견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세요. 이때는 관찰하는 마음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눈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해 보세요. 단단함은 지성을 관찰하는 것이고, 촉촉한 것은 수성을 관찰하는 것이고, 열이 나면 화성을 관찰하고, 움직임이 있으면 풍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알아차리면 사라지는데, 만일 안 사라지면 지수화풍 도구를 만들어서 없애기를 하세요. 모르겠으면 관찰만 하세요. 눈에 의식을 집중하고 망상이나 생각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눈 안쪽의 내면에 두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마음의 요소

몸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습니다. 껍데기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드는 기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그게 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관찰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본연의 마음은 늘 있습니다. 누구나 있고 비중도 같습니다. 그런데 몸을 만드는 껍데기의 마음은 다 달라요. 용량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관찰법을 동원해서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6도 윤회한다고 할 때 6도는 천, 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을 가리키는데, 6도의 분포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정관은 몸속에 들어와 있는 축생, 아귀, 지옥이라는 3악도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3악도업은 강한 물질을 만들고 강한 감정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고집을 만듭니다. 남하고 소통할 때도 일부만 소통하게 하지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이 여섯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과 수라는 열린 성품이고 축생, 아귀, 지옥은 닫힌 성품이지요. 이 여섯 가지가 마음을 만드는 요소인데, 사람마다 배합이 다릅니다.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성품도 다르지요. 그래도 그 안에 공유하고 있는 진짜 마음은 같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대상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서 해결하려는 게 명상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마음을 아는 게 명상이지요. 명상이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는데, 명상이란 관계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나를 내려놓다 보면 대상하고 결합이 잘 되거든요.

몸을 통과해서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본질적인 게 점점 드러납니다. 부정관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부정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털어 버리지요.

관찰해서 없애는 것도 순서대로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초심자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정하고 없애기를 합니다. 먼저 지나친 탐욕의 대상, 분노와 화의 대상, 외면과 무시와 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지수화풍의 도구로 없애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탐진치의 욕심이 '나' 에 대한 인식과 자존과 자의식 때문이니 자아가 느껴지는 곳을 없앱니다.

몸을 없애고, 기억을 없애고, 몸을 관찰해서 드러난 현상을 없앱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억이 많아요. 남한테 당했거나 남한테 피해를 줬던 기억, 말로 상처를 줬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몸을 관찰하다가 안 되면 기억을 떠올려서 지우고 다시 몸관찰을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걸 하려고 용을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세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세 가지 중에 잘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두 가지를 곁가지로 해도 됩니다.

명상 기법 중에 그 사람의 의식이 부드러운가 딱딱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저 벽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명상을 지도하면, 어린애들은 한두 명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묻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그냥 들어갔다, 벽에 문을 만들어서 들어갔다, 벽을 부드러운 두부처럼 만들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상을 변형시키는 것이지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마음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의 기제들이 확장됩니다. 관찰하면서 일지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현상이 있거나 없앤 방식을 다 적으세요. 너무 졸렸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37 호 현대불교
2019년 3월 20일(2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빈 배가 물의 리듬 타고 일렁이듯 무심으로 여여하게 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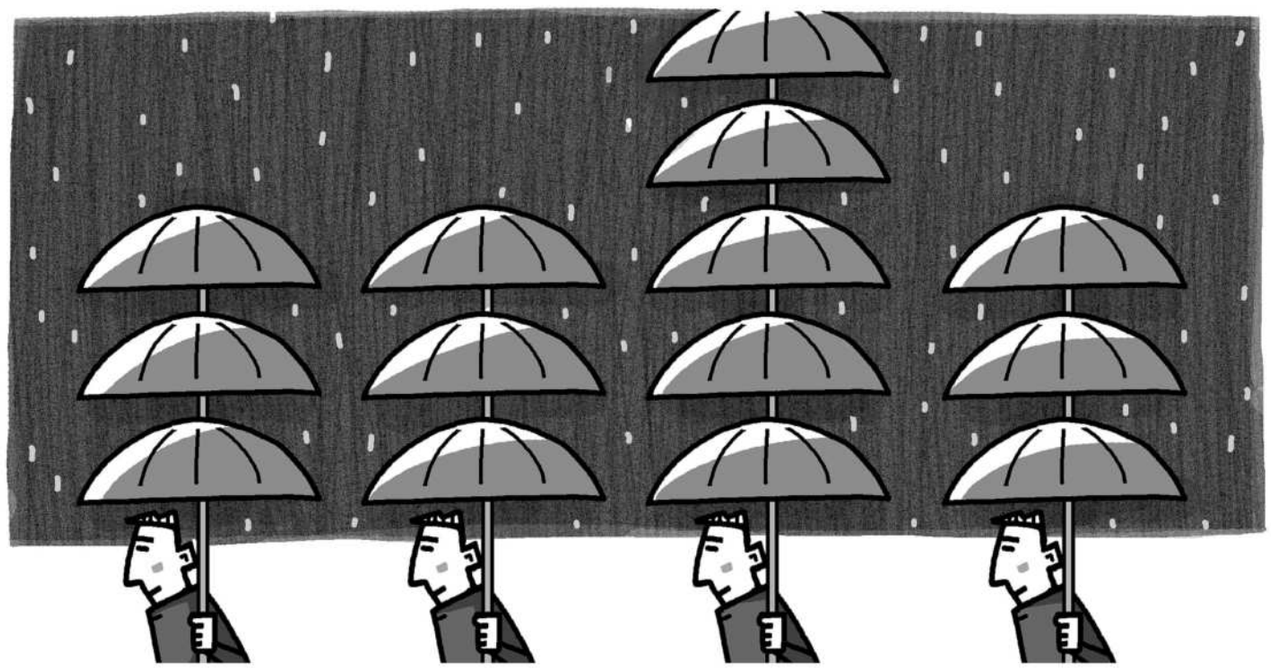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오늘은 식물에 대한 문제, 요걸 잠깐 거론하려고 합니다. 식물들이 꽃이나 나무만 식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체의 반 이상 소유하고 있고 또는 나중에 대의적으로 본다면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전부 식물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종이 하나하나가 전부 식물이요, 이 나무 하나하나가 식물입니다. 쌀도 식물이요, 밀가루도 식물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가 식물 아닌 것이 없으리만큼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식물을 가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연쇄적으로 공식하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 업에 의해서, 과보에 의해서 끄달리며 윤회에 끄달리며 가환에 끄달리며, 모든 게 그렇게 끄달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모든 거를 둘로 본다면 이것은 끄달리게 돼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서 어떠한 걸 배척하지 않고 모두, 우리가 하다못해 쌀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고등 동물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바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있으니깐 먹으려니 하고, 또 두 번째는 식욕으로 탐을 두고 또는 착을 두고 욕심이 있고, 고정되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둘로 보지 말고,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놓는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밥을 한 그릇 먹었을 때 그 쌀은, 그 식물은 나의 모습이요, 그 식물의 생은 나의 생이란 얘깁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체를 다 가지고 논의할 때 하나도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차에 치여서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 늑막이 들었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토끼를 잡아서 마늘을 넣고 고아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니 어떻게 불자로서 살생을 합니까?"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과 지혜는, 지혜는 지혜의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이고 내는 용, 그 자체가 무엇이냐? 선정이라 하면 우리 몸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몸을 다스린다 이 소립니다. 이 둘을 한데 합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을 잡아서 같이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이다 악이다 이러는 걸 떠나서 선정이다 지혜다, 이것을 몰락 균등을 잡아서 한데 놓는다면, 이 끄달리지 않는 법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서 끄달리지 않고 스스로서 우리가 그 본점에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보림을 할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해 가면서 또 체험해 가면서 다시 보림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식물 그 자체가 모두 보림하고 놓는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그렇게 끄달리고 거기에서 둘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무를 파서 옮기거나, 산을 올라가거나 그래도 마구 꺾죠? 둘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로 본다면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을 이렇게 먹을 때도 언제나 감사하게 먹되 감사한 그 마음을 놓으란 말입니다. 감사하게 놓고, 맡겨 놓고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을 똘똘 뭉쳐 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 그대로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긋나는 법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똥그란 그릇에 네모난 뚜껑 덮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어디까지나 새 버리고 말죠.

그러니 우리가 한생각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한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발견하지 못해서 무한 능력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50% 미완성으로 살아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9차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무한의 능력이 본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발을 못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식물이나 생물이나 또 낮은 동물이나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면서도 항상 내가 했고 너 나, 너희들, 이렇게 상대를 두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를 두고 욕심을 두고 또 아상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항상 그것이 덧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산 사람이 열이라면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열입니다. 반반 이렇게 교차로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둘로 본다면 그거 항상 끄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죽은 마음이나 산 마음이나 어찌 둘이겠습니까? 마음이야 둘이 아니죠. 모습이 다를지언정 어찌 둘이겠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마는 서쪽으로 지면 거기가 동쪽이 되고, 동쪽으로 뜨면 거기가 서쪽이 되고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널리 본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대로, 그대로 한마음으로 한 점에서 돌아가는 것을….

오늘은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할 거 없어요?

질문자(남) 스님께서 뭐든지 어려움에 부닥치면 마음에 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놔야 되는지요.

큰스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탄생을 했으면 그게 사대가 공한 것이거든. 그리고 또 상대, 모든 오온이 공한 거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 본국의 본점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본점에다…, 본점에서 모든 거 일체 만법이 나오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지? 그렇지? 생활이 있지? 그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냥 공했으면서도 화두라, 이게 그대로.

그럼으로써 일심에서 만법이 나오고 만법은 일심으로 든다 그랬어. 그럼 어째서 하고 가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느냐 말이야.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이것은 지금 시대의 일상생활에서 조금도, 티끌 하나 남김없이 우리는 다 공해서 나투면서 옮겨 갈 뿐이야. 염주가 돌아가지? 우리 앞뒤가 없는 염주가 항상 돌아가고 있잖아?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우주 자체도 그렇고 인간 살아나가는 것도 그런 거라.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항상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야지 어디다 놔? 누가 했기에 믿질 않는거냔 말이야.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했지마는 처음에는 역시 운전수가 있으면 차가 있고 기름이 있는 거라. 이 세 가지의 이름은 다를지언정 한 몸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 그저 턱밑에다가 한데 붙여 놓고도 과거심이니 현재심이니 미래심이니 하거든. 그러니 얼마나 더뎌. 그리고 내가 공해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또 주인공의 그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면 이게 문을 오히려 막는 법이라. 예전에는 순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너무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아서 문을 닫아 버려, 모두가.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부할 사람 없다 이 소리야. 양면을 다 들고 다 놔라 이거야. 선과 악을 다 맡겨 놔라 이거야. 겁을 통해서 그 종 문서는 불살라야 하니까.

내가 항상 그런 말 하죠? 작년 콩씨를 올봄에 심었는데 콩나무로 화했으니까 콩씨는 없어졌지? 콩나무가 돼 버렸으니까. 내가 콩나무란 말이야, 각자. 그럼 콩나무의 콩씨는 열렸겠지, 또. 그런데 작년 콩씨를 찾고 있다 이 소리야. 얼마나 더디냐 이 소리야. 과거의 겁을 통해서 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몽땅 짊어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라. 그건 물질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체가 있는 게 아닌 게 돼서 내 마음에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있듯이 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겹겹이 있다 이거야. 그런 거를 모두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지 않으면 그 습을 뗄 수가 없고 그 습을 녹일 수가 없어. 홀연히 참 자기의 그 생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깐 그것을 발견하려면, 그것을 계발하려면 거기에 놔야 되는 거지. 믿고 놔야 돼.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네 앉은 자리에 전체, 우주 전체가, 그 자리가 도량이니라." 저기 가 앉으면 저기에 부처가 있는 거

☞ A18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모든 거를 둘로 본다면 끄달리게 돼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고 아, 여북하면 변소에 가면 변소에 계시다니까. 그렇게 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미지수의 세계를 뚫을 수 있을까. 뛰어넘을 수 있을까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일상생활이 그대로 참선이다." 앉으나 서나,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그랬거든. 어째서 그것이 말로만 그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느냐 말이야. 실천이 안되고 말이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49년을 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직껏 그 선맥을….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으냐 이 소리야. 어떻게 그럭하고서 인간이라고, 50% 미완성을 가지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50%를 마저 채워야 우린 균등하게 나갈 수 있는 거라. 무루와 유루를 한데 합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여여하게 나갈 수 있는 거라, 그대로.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빈 배가 일렁일렁 물에서 리듬을 타고 그냥 돌아가듯이, 우린 무심으로 항상 여여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개인의 바로 근본이요, 또는 자유인의 근본이라.

전부 들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으니 그것을 일컬어서 부처님의 한 발로, 한 평발로서 디뎠다 이 소리야. 발이 평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평이마, 평손, 평눈. 평눈은 넓은 것을, 어디에 아니 닿는 데가 없는 것을 말하고 청눈은 바로 언제나 청정하게 중심을 잡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청정하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혜도, 넓은 지혜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지.

그러니 우리 생활 속에서 불법을 찾지 못한다면 불법이 어디 따로 있나? 부처님 앞에 가도 그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인데 어찌 둘이겠나, 모두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지렁이의 생명도 생명은 생명이니까. 어찌 다르겠나. 지렁이가 꿈틀꿈틀하고 가는데 그걸 한번 밟아 봐. 우리가 지나가는데 누가 따귀를 한번 때려 봐. 아프다고 하기 이전에 들이덤빌 거야. 그리고 아픈 거야. 그것도 아파해. 뭐가 달라?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생명을 아끼는 거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만공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 저 나무하는 사람들더러 돈을 줄 테니까 자기를 지겟작대기로 물씬 때리라고. 그래 때리니깐 "만공은 맞지 않았다." 하거든. 맞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 그러니깐 그 나무하러 갔던 사람들은 맞지 않았다고 하니까 돈 안 줄까 봐 안 때렸지. 그래서 왜 안 때렸느냐고 그러니깐 "만공은 안 맞았다고 그러니 돈을 안 주실 거 아닙니까?" 하니까 미리 선돈을 주고 맞았다는 거야. 맞으면서도 그것은 실험이라. 그 스님께서 몸소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정말 이놈! 네가, 네가 정말 공해서 없느냐? 네가 정말 이렇게 몸을 맞으면서도 네 몸이 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한번 실험해 본 거지.

스님네들이 공부할 때 초심으로서 입산을 해서 선각을 이루고 또 선맥을 잇고 이러는 이치가, 그 정신을 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우리는 굴리고 있다 이거야. 본국에서, 본처에서 우리는 이 오관을 굴리고 있는 거라. 굴리고 있는 거지 정신에 말리는 게 아냐. 내 마음이 왜 정신에 말려? 정신에 말리면 그것은 바로 잘못돼 돌아가는 것이야. 귀신 아닌 귀신이야. 이 눈으로 올바르게 이 우주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요즘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내가 부릴 줄 알고 책정할 줄 알고 할 줄 알아야지, 그걸 보기만 하고 안다고 말을 해서는 절대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듣기만 해서도 아니 되고,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간다 해서 그것이 도가 아니야, 또.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것이 도가 아니란 말이야. 남이 여태 걸어온 그 길을, 겁을 통해서 걸어온 길을 다 안다고 그래도 그것도 도가 아니야. 단지 그 다섯 가지의 문제를 내가 행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굴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는 도구와 같다 그랬어. 무기와 같다 그랬어. 무기! 선정은 내 몸을 다스리면서, 올바로 가게 하면서 모든 것을 놓는 데 불과하지만 거기에서 놓고 들어가면 지혜는 바로 무기와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무기로써 모든 거를 지혜롭게 해 나가면서, 그 무기로써 굴리면서, 용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다시 보림을 하는 것이 우리 선각들의 문제라.

옛날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어느 스님께서 병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떠한 객승이 한 분 오셨거든. 그 스님께서 "약은 턱밑에다 두고선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오?" 하니까 스님께서 "턱밑이라니?" 하고선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신 거야. 난 그런 것도 봤거든. 그러니깐 그 스님께서 이 세상의 모두가, 식물이, 동물이 전부 약 아닌 게 없다 이거야. 모든 게 약 아닌 게 없는데 구태여 한 풀, 한 약초 이걸 뽑아다가 해 먹기 이전에 그 풀에, 바로 약초의 모습이 있는 그 속에, 안 보이는 액체의 유전자에 그 약이, 아주 선명한 약이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 항상 얘기하듯이 내 주인공에는 일체 부처가 다 들어 있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들어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한생각에, 바로 한 찰나에 석가가 되고 한 찰나에 보살이 되고 법신이 되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고, 또 산신이 되고 칠성이 되고 용왕이 되고, 상대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렇게 자꾸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무엇을 바깥에서 그렇게 찾아야 하느냐 이 소리야. 그리고 얽매여서 만날 바쁘게 돌아치고, 기도처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기도처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젊은이가 얘기했듯이 못났더라도 자기를 믿어야 돼. 처음에는 자기를 바로 뿌리 없는 작대기로 알고 뿌리 없는 기둥에다가, 뿌리 없는 그 자체가 모두 나오는 걸 뿌리 없는 그 기둥에다 놔.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으면 바로 그 속에서 홀연히 마음이 탄생이 되는 거야. 그걸 놓지 않고는 탄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탄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습을 녹이지 못하면, 항복받지 못하면 언제나 습에 끄달려서 깨달음도 미해지고 마구니처럼 그렇게 길을 잘못 드는 수가 많아요.

먼지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 마음의 불씨가
온 우주를 덮고 우주를 밝힐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는 몸을 다스리고 몸으로는 마음을 다스려서 양면을 다 놔라 이러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는 거뿐이야. 그러면 '주인공에 다 놓고 맡기고 하는 거라면 도둑질을 해도 괜찮지. 주인이 시키니까. 주인이 하는 거니까.' 이럭하고 놓을까 봐. 그래서 마음은 몸을 다스리고 또 몸은 마음을 다스려서 항상 균등하게, 평등하게 중도를 삼아서 항상 놓으란 얘기지.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걸, 먹고 사는 것도 입고 사는 것도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 고정된 게 없이 하고 나가거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 보리밥을 먹었으면 보리밥 그냥 있을까, 응? 그냥 쌓아 두나, 아깝다고? 배설해 버리지? 삶아 먹고 또 배설해 버려. 항상 걸레로 훔쳐도 그저 아낌없이 빨아서 휙 거기 그냥 뭐, 착이 없이 그냥 놓는다고. 그렇게 하라고, 모든 것을. 운동을 하면서도, 살림을 영등같이 하면서도, 생동력 있게 하면서도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이 자기 성품에서 나오고, 그 성품의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거기에 근본적으로 있다 이 소리야.

우리가 그저 다양하게 항상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되맡겨 놓고,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되맡겨 놓고…. 그럼 24시간 잊어버리고 했다 하더라도 24시간이 1초라. 한생각 생각날 때, 일 다 해 놓고 저녁에 생각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그 1초가 돼 버려, 그냥. '아이고, 내 이거 화두를 붙잡고 있다 놓쳐서 어떡하나.' 이러는 끄달림은 거기서 용납 안 해. 그래서 천 일이 하루요, 하루가 천 일이라 이거야. 삼천 년 전 부처님께서 계셨던 게 아니라 삼천 년 전이 오늘이요, 삼천 년 후가 오늘이야. 오늘의 영원함은 항상 살아 있고 생동력 있고 항상 계신 거야.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오늘 지금 현재,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어저께는 벌써 갔고 그러니 오늘인 거라. 영원한 오늘에 부처님은 항상 계신 거라. 본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실 곳도 없어. 언어가 붙지 않는단 말이야, 항상 계셨기 때문에. 항상 밝기 때문이야. 우리네 마음들이 만약에 그런 엽렵한 마음들이 없다면 어떻게 좋고 나쁜 걸 알며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기쁘고 이렇게들 엽렵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물속에서 사는 어류들도 그렇게 자비와 인내가 그렇게 사람과 똑같이, 사람보다도 더 참 진실하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래도 고등 동물이라 배가 아파서 낳아도 그냥 이렇게 떼어 놓고 기르지마는 야,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거를 샅샅이 볼 때 하나서부터 열까지 소홀할 수가 없고 소홀히 볼 수가 없고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고 이런 게 없습니다.

"부처님 자체도 뛰어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부처님을 가장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 가슴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뛰어넘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뭘 하러 이름 찾아서 형상 찾아서 다닙니까? 진짜 내 마음하고 부처님 마음하고 둘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형상을 찾아서 다니며 또 뭐 때문에 이름을 찾아다니며 기도처를 찾아다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대로 부처님 계신 곳이지. 그렇게 찾는다면 모두가…. (녹음 안됨) 부처님, 아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신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바깥으로 항상 '칠성이시여, 명 길게 해 주시오. 약사보살이여, 나 이거 낫게 해 주시오.' 아무리 그래 봐. 그게 통신이 되나.

내가 주욱 설하고 내려온 그 자체는 여러분이 의심 가는 게 있거나 또는 점검하고 넘어갈 일은 넘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방에 이렇게 앉아 있지마는 온 누리에 나와 같은 이러한 선의 중생이 있고 악의 중생이 있고 차원 차원의 뭇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수많은 안 보이는 생명들이 얼마나도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앉아 있지만 한 사람 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지금 모여서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몇 분 안 되시는 거 같아도 수많은 중생이 지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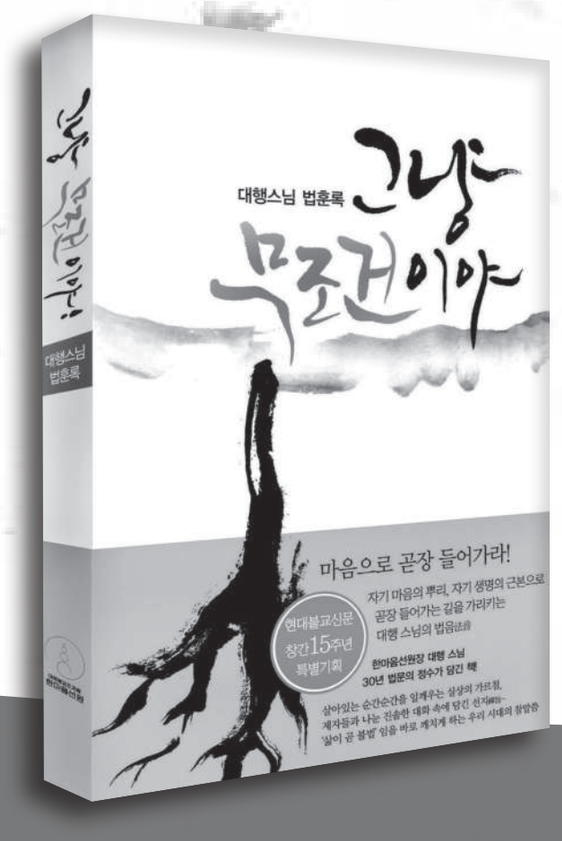
그래서 여기 오셨다 가시고 하신다면, 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그렇게 하신다면 내 뭇 중생이, 이 육신에 들어 있는 온 중생을 다 이끌어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내 몸 튼튼하니 좋고 건강하니 좋고, 또는 가환이 물러나니 좋고 식구들이 전부 조화를 이루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사랑할 수 있으니 좋고…. 그래,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불교는 떡이나 해 놓고 밥이나 해 놓고 빌고, 또는 고기나 잡아 가지고 방생한다고 다니는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사람이 있으니깐 천차만별로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런 걸 가릴 줄 알고, 그것이 남한테 이익하게 하는 건지, 어느 생명에게든지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알아서 행할 수 있다면 그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날 내 욕심에 눈이 어둡고 남의 생명은 아랑곳없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욕심이 되고, 그것이 업보가 되고, 그것이 망상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가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지구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혹성에도 생명들은 살고 있으나 모습이 없는 데도 있고, 모두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요, 평화로운 모습이요, 그것은 자유자재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만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나라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효가 많은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우리는 먼지 하나 될까 말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지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 마음의 불씨가 온 우주를 덮고 우주를 밝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86년 3월 27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걸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청계천 따라 4년째 학교 출퇴근
건강으로 시작… 12~3km 걸어
사계절 변화 느끼는 하루 즐거워

미세먼지 원인 놓고 중국 탓 많아
수도권 미세먼지 22% 경유차 유발
우리사회 책임 대해서도 살펴봐야

자신서 시작되는 실천이 해결 시작
습관처럼 자가용 운행보단 걸어보자
걷다보면 의외로 얻는 것이 많아진다

광화문에서 청계천을 따라 거의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햇수로 4년쯤 되었다. 처음엔 자꾸만 나오는 뱃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욕심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독이 되었는지 하루라도 거르면 영 마음이 개운치 않다.

이 시각 청계천 산책로 언저리에는 산수유와 수양버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중이다. 겨울동안 잠자던 개울물도 제법 큰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있고. 모든 사물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는 나도 덩달아 힘이 솟는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걷다보면 어느새 관수교에 이른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 유명한 을지로 공구상가를 만난다. 각양각색의 공구들은 신나는 구경거리나 마찬가지다. 저절로 눈이 즐겁다. 나도 모르게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남산 방향으로 20분쯤 계속 걷다보면 명보극장을 지나 충무로역 부근에 닿는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이면 한옥마을을 가로질러 남산 순환도로를 따라 걷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곧장 학교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하며 출근을 서두른다. 이렇게 걷는 것이 일과가 되다보니 나는 늘 길 위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나에게는 오늘 하루가 다시 새롭고 또 행복하기만 하다. 이렇게 걷는 거리가 하루에 12~13km 정도 되는 것 같다.

요즘 미세먼지가 대통령의 이름을 빗대 문(文)세먼지라고 조롱받을 정도로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발생 원인을 둘러싸고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중국과는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 삼을 것은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 탓으로만 치부하는 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세먼지 발생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면 미세먼지의 해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래서 감히 해보는 말이다. 습관처럼 자가용을 몰고 나오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보자는 주제넘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중(22%)을 차지하는 것은 경유차라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솔린 자동차도 이에 못지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각종 자동차가 내뿜는 연소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걸어야하지 않을까. 이미 자동차의 편리함에 너도나도 익숙해져 있는 지금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는 핀잔을 듣더라도 나는 우리 모두 감히 더 많이 걸을 것을 권유코자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윤리의 실천이야말로 보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걷다보면 불가에서 말하는 행선(行禪)의 경지에 올라 가끔 선열(禪悅)에 잠기는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이전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러워지는 경험도 자주 하게 된다. 시간을 내서 따로 운동하기가 어려운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걷기'는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급 헬스기구나 마찬가지다.

걸으면서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하다보면 의외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단 한 번 걸어보시기를.

社 說

태고종, 사회법 제소는 신중하길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종단 역사상 첫 중앙종회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이 같은 중앙종회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종단 안팎에서는 양측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사회법 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편백운 스님과 종단 중진 스님들은 각종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편백운 스님은 원로의장, 총무부원장, 전임 총무원장 등을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거나 벌금형을 받고, 일부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종회 측도 편백운 스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법적공방을 벌이는 스님들이 종단을 대표하는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태고종은 총무원장 불신임 과정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개개인의 고소고발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대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조용하게 수습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만약 불신임 과정에서 사회법 제소 외에 해결방법이 없는 이른바 '막장'에 다다른다면 태고종은 2015년 폭력으로 얼룩진 분규사태와 같은 오명을 다시 한 번 뒤집어쓸 것이다.

이 경우 한때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에 이어 전통종단으로서 2위의 교세를 떨친 태고종은 옛 영광을 더 이상 찾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 부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종단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 환영한다

난해했던 문화재 안내판이 전면 개선된다고 한다. 문화재청이 3월 13일 밝힌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전국 1,392개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 약 2,500여 개를 대상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고궁과 조선왕릉, 고도(古都)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에 있는 주요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 1차적으로 이뤄졌다.

사실 불교를 비롯한 고궁, 왕릉, 향교 등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석탑의 부위를 상륜부 · 탑신부 등 각종 불교 · 미술용어들을 완벽하게 알고 안내문을 해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 문화재청이 사례로 제시한 범어사 삼층석탑의 경우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설명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원형 훼손 · 범어사 창건 배경 등 전반적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놓았다. 탑의 도상을 삽입 · 설명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환영할 만하다.

물론 문화재 안내판의 개선이 너무 풀어 설명하다보니 불교를 잘못 전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스님과 일부 불자들만 이해 가능한 문화재 안내판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특히 한문을 별도로 배우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 한자가 많은 안내판은 외계어일 뿐이다. 개선된 안내판이 지향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시대에 맞는 전달법일 것이다.

특별기고

불교의 구국정신 되살리자



선진규
정토원 원장

만해 스님은 민족대표 33명 중 누구보다 초지일관 변치 않고 끝까지 싸우다 1944년 광복 전 해인 6월 29일 일본인들의 감시 하에 생을 마쳤습니다. 혹독한 일제 치하에서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홀로 저항했던 끈질긴 행위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대신한 저항으로 상징됩니다.

돌이켜 보면 100년 전 3.1 만세운동은 나라 잃은 절망과 분노가 하늘로 솟구친 거사로서 자유와 평화와 독립의 중요성을 외친 민중의 항쟁이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으로 7,500명이 피살되고 1,600명이 부상당했으며 46,000여 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시위는 1,500여 회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불교는 3.1운동 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합니다. 31개 본사를 갖춘 불교는 당시 큰 종교조직이었기에 내부로 은밀히 독립운동가들을 피신케 하고 독립자금을 마련해 상해임시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스님들도 독립운동에 적극 나서 인천 만국공원에서 박한영 스님을 대표한 13개 대표자회의, 임시정부 대표단 파견을 위한 봉춘관 국민대회, 김법린 스님을 중심으로 한 범어사의 부산 항일시위, 제주도 법정사 독립운동, 월정사 도피안사 만세운동 등도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찰에서 결사가 진행됐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며 상해 임시정부 수반인 김구 선생이 임정 요인들과 환국 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월정사 주지였으며, 일제 치하에서 중앙종무원장을 지냈던 이종욱 스님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인들이 "그 분은 친일 스님인데 왜 찾습니까"라고 하니 김구 선생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간 전국 사찰에서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제일 많이 보낸 스님"이라고 밝습니다.

현재 이 같은 불교계의 노력은 불교만이 갖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1953년부터 비구 대처 정화가 시작되며 당시 사원을 관리했던 세력이 물러남과 함께 독립운동 자료와 증인이 대거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제자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이때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쟁이 일어날까 가슴을 졸인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쟁 분위기가 사라지고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불자들의 각오가 남달라야 하겠습니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다한 탐욕의식과 집착을 버리고 신라통일의 길잡이가 된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 고려 정신문화를 일으킨 보조 국사의 일심사상, 임진왜란 때 서산 사명 영규대사의 구국정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등을 바탕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자타일시 동시성불(一切衆生 皆有佛性 自他一時 同時成佛), 미래를 선도할 부처님의 이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우리 선대가 일으킨 자유 평등 평화의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3.1절 100주년을 기해 이제 불교의 정신문화가 세계를 선도할 정신문화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도원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52번길 400(낭월동)
• 주 지 : 월현 혜광 (속명 : 전광호)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사)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한 평 법당에 8만 유순 도솔천이…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② 전남 해남 도솔암(兜率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것에는 저마다 뜻이 있다. 각자는 하나의 '뜻'으로 존재한다. 유정은 유정대로 무정은 무정대로, 수없이 많은 뜻으로 와있는 것이다. 산의 이름 하나, 암자의 이름 하나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그것만큼 뜻에서 시작하고 뜻으로 끝나는 것이 또 있을까. 같은 모습의 전각과 마당을 가진 것이 도량이지만 도량마다 뜻을 달리하여 서있고, 같은 모습의 초목과 산새들을 품은 것이 산이지만 그 역시 저마다 다른 뜻으로 서있는 것이다. 산의 이름은 저마다 다른 정기를 뜻하고, 암자의 이름은 그 이름마다 다른 불사의 뜻을 지니고 있다. 달마산 도솔암. '달마'와 '도솔', 그 이름만 생각하면 그곳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리라.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 미얀마 출가와 수계의식
B4 책세상 — 용성평전
B5 문화 — 바라캇 서울 '찰나와 영원' 展
B6 학술 — 2500여 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추진

땅끝에 펼쳐진 미륵불 나투는 자리

'전남 해남 도솔암'

B1면에서 계속


작은 도솔암 마당에 서면 달마산과 해남 땅, 남해가 한 눈에 보인다. 절경이다.


도솔암 법당의 정면 모습.


달마산을 도는 달마고도 길.


도솔암의 삼성각.

도솔암에 이르는 길

이름만으로는 멀고도 먼 곳, 달마산 도솔암. 달마산(해발 489m)은 우리 땅의 끝이자 시작인 전남 해남군의 명산이다. 산이 기르는 나무가 거기서 거기고 산새의 울음소리가 거기서 거기겠지만 '달마' 라는 이름을 거쳐서 오는 숲의 정기와 산새의 곡조는 불가(佛家)의 향훈 중에서도 선가(禪家)의 내력으로 읽힌다. 그것은 '이름' 에서 비롯된 느낌의 퇴적들이다.

도솔암(해발 400m)은 선가의 내력으로 읽히는 달마산에 봉우리처럼 돋아있다. 도솔암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빠르게 가는 길. 천천히 가는 길. 빠르게 가는 길도 한 가지는 아니고, 천천히 가는 길 또한 한 가지가 아니다. 가는 길이 여러 길인만큼 길을 나서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생각 끝에 길을 나선다. '도솔' 이라는 이름 때문일까. 그 많은 생각의 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설화적 언어와 내보일 수 없는 종교적 믿음들이 가득하다.

천천히 가기로 했다. 한 발 한 발 밟아 가기로 했다. 그 길을 도솔천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한 발작 한 발작에 모두 의미를 두기로 했다. 걸어서 갈 수 밖에 없는 길, 그 길의 이름은 '달마고도' . 어찌 그 길을 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구도의 길 '달마고도'

'천년의 세월을 품은 땅으로 낮달을 찾아 떠나는 구도의 길' 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11월 열린 '달마고도' 길은 해남군과 미황사가 함께 달마산 일원에 조성한 길이다. 달마산을 한 바퀴 도는 17.74km의 달마고도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미황사에서 큰바람재, 노시랑골, 몰고리재로 이어지는 둘레길이다. 달마고도는 다른 둘레길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길이다. 사람의 손을 탔지만 '인공' 의 흔적을 최소화한 산길이다. 중장비와 외부 자재를 전혀 쓰지 않고 사람의 손길만으로 길을 냈다. 그래서 달마고도에는 '천년' 이 온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미황사에서 출발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사천왕문 옆에 달마고도 안내판이 있다. 제4구간을 걷는다. 미황사 부도밭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달마고도에 들어선다. 도솔암까지는 약 4.5km.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고 했던가. 한 발작 한 발작 길은 아름답다.

길은 쉽다. 힘겨울 것이라 생각하고 나선 길은 힘겹지 않았다. 길은 그랬다. 쉽기로 하면 어려운 길이고, 어렵기로 하면 그 길은 쉬워진다. 도솔암까지의 길은 한동안 경사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오르는 길이 아니라 따르는 길이다. 앞서 간 이들의 발자국 위에 발자국을 얹으며 '구도의 길' 이라 불리는 고도를 걷는다. 좁은 길. 넓은 길. 반듯한 길. 굽은 길. 푸근한 길. 급한 길. 나무가 많은 길. 돌이 많은 길. 그렇게 길은 그때그때 달랐다. 좁은 길에서는 바람도 몸을 좁혀 지나가고, 넓은 길에는 하늘이 많았다. 반듯한 길은 먼 곳을 바라보게 했고, 굽은 길은 길 위의 나를 보게 했다. 푸근한 길 위로는 새들이 날았고, 급한 길에서는 마음이 흔들렸다. 나무가 많은 길은 봄을 꿈꾸게 했고, 돌이 많은 길은 묵언이 어울렸다.

달마고도에는 도솔암으로 가는 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닿는 곳은 모두 달랐다. 미황사에서 출발해 약 4km쯤 걸으면 작은 '도솔암' 표시판이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오르는 길이다. 둘레길을 놓고 조금은 가파른 400m의 산길을 오른다.

해남 8경 중 으뜸 도솔암
해발 400m 기암절벽 암자
법당 · 삼성각 · 마당이 전부
달마산 · 남해 조망 절경

먼 곳으로부터 온 뜻 '도솔암'

"미륵은 미래에 석가모니부처님을 계승하는 보살로서, 원래 남인도 바라문의 아들이었으나 석존의 제자가 되고, 그 후 석존보다 먼저 입멸하여 하늘의 세계인 도솔천에 태어나 현재는 미륵의 정토인 도솔의 내원에서 천인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계신다."

〈미륵하생경〉에서 도솔이란 이름을 만난다. 우리는 볼 수 없으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도솔천. 도솔이란 이름은 그렇게 먼 곳으로부터 온 뜻이다. 보살이 아득한 시간을 기다리며 법을 설하고 있는 곳. 미륵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정토. 그곳의 이름을 옮겨온 도솔암이다.

거대한 기암 밑으로 삼성각이 먼저 보인다. 겨울나무 하나가 붉은 등 하나를 걸고 도량임을 일러준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도솔암이다. 기암절벽 끝에 작은 법당 하나, 작은 마당과 마당한 나무 하나, 처마 끝에 풍경 하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삼성각 하나. 그것으로 충분한, 도솔암이다.

해남 8경 중 으뜸인 달마산 도솔암은 통일신라 말기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동국여지승람) 의상대사가 미황사를 창건하기 전 머물렀으며, 많은 선지식들이 머물렀다. 도솔암은 정유재란 때 명량해전에서 패한 왜구들이 해상퇴로가 막혀 달마산으로 퇴각할 때 화마를 겪었다. 빈터에 주춧돌과 기왓장만 남아있었다. 30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불사가 시도됐지만 이루지 못했다. 2002년 오대산 월정사에 계셨던 법조 스님이 3일 동안의 선몽으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던 도솔암 터를 보고 불사의 원력을 세웠다. 그리고 32일 만에 단청까지 마친 법당을 세웠다. 지리적으로 쉽지 않은 불사였음에도 빠른 시간에 원만히 회향한 것은 부처님의 가피로 회자된다. 목자재 및 1,800 장의 흙기와를 들어 나른 공력이 있었다. 2006년 6월 16일 승보종찰 송광사의 현봉 스님을 증명법사로 하여 법당 낙성식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삼성각을 지었다.

도솔암의 이름이 시작된 도솔천은 욕계의 6천 중 네 번째 하늘이다. 염부제로부터 32만 유순 위에 있으며, 가로 세로 8만 유순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고 팔정도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몰라 닦고 또 닦는 곳이다. 도솔천에는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이 있는데, 내원은 장차 성불할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지금은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성불하기 전에 이곳에 머물렀다.

도솔천의 내원에는 모두 49원이 있고 외원은 천중의 거처다. 〈미륵상생경〉은 49원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도솔천이 장엄된 모습은 정토가 장엄된 모습을 대표하여 여러 경전에서 불국토를 서술할 때 자주 인용된다.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세의 4백 년에 해당하고 도솔천의 수명은 4천세라고 한다. 미륵보살은 부처님 입멸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하생하여 용화수 아래서 세 번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미륵을 기다렸던 때가 많았다. '미륵' 은 힘겨운 중생이 마지막으로 기댄 '곳' 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기댈 곳' 이기도 하다.

법당은 겨우 한 평 남짓한 작은 법당이다. 마당 역시 한 그루 나무 그림자도 겨우 들이는 작은 마당이다. 가로 세로 8만 유순의 도솔천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법당에 들어 여래 앞에 서니 한 평과 8만 유순은 같은 숫자였다. 부처와 보살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모두 8만 유순의 도솔천이며, 부처와 보살을 볼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한 평짜리 사바가 아닐까. 마당으로 나오니 발아래로 달마산과 해남 땅, 남해가 한 눈에 다가온다. 절경이다. 나무 그림자 하나도 겨우 들이는 마당에서 내려다보는 사바가 도솔천이었다. 언젠가 미륵불의 시절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도솔암은 도솔천을 보게 해주는 암자다. 부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세상에서 미륵의 시절이 기다려진다면 도솔암에 다녀오자.

도솔암 가는 길

*쉽고 빠른 길은 도솔암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800m를 걷는 것이다. 이 길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고민해야 할 것은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 또 하나는 길이 좁고 다소 험하다는 것.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 미황사 일주문 앞이나 송지면 사무소 근처에서 승차.

*천천히 걸어서 가는 길은 여러 등산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걷는 것. (미황사의 달마산 · 달마고도 안내도 참조)



엄격하면서 자유로운 미얀마 출가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⑤ 미얀마 출가와 수계의식



마하시선원에서 수행하면서 수계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계를 받는 사람은 한국에서 온 재가 수행자들이었다. 사진은 미얀마 출가 수계의식의 진행 모습.

마하시 선원에 입방한지 일곱 번째 날(2011년 12월 20일)과 열여덟 번째 날(12월 31일)의 〈수행일지〉는 출가와 수계의식에 관한 기록이다.

싱가포르 출신 스님은 항상 즐거운 표정이며 역동적이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일이라도 이것저것 관여하며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75세인 말레이시아 출신 스님과도 친하다. 같은 중국계로서 싱가포르 스님이 말레이시아 스님을 늘 곁에서 돌봐준다. 말레이시아 스님은 자신의 구족계 수계증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한다.

8호실의 젊은 한국 스님이 엊그제 연달아 입방한 한국인 두 명이 출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스님이 두 신입 요기(선방 수행자)에게 출가를 권유하여 모두 출가를 결심했다. 스님이 더 고무되어 있는 모습이다. 수계 의식 일정을 알려 주며 나에게도 도움을 미리 부탁한다. 스님은 점심 공양 후 두 출가 지원자에게 삭발을 해주고 왔다고 기뻐하며 싱가포르 스님에게 설명했다.

수계의식은 11일 이후로 잡혀졌다. 수계의식이 있는 날 선원에 있는 다른 한국 요기들도 모두 참관하고 싶어 했다. 11시 30분 계단(戒壇, Sima)에서 하는 출가 의식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어 다들 들떠있다. 여기서는 출가의식을 하면 친지들이 모여 축하해 준다. 가족이 모두 절에 와서 삭발하는 모습과 수계의식을 참관한 후 스님들께 보시하고 사찰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출가의식을 집행한 삼사칠증(三師七證) 스님들에게 가족들이 준비해 온 여러 종류의 보시물을 정성껏 올린다. 하지만 한국인 두 명은 여기에 가족이 없으므로 나와 다른 한국인들이 대신 하기로 했다.

점심 공양을 마친 후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스님 탄생의 장면을 볼 것으로 기대하며 무리지어 갔다. 1차적인 장소는 수행점검을 하는 원장 스님의 사무실이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남녀 외국인 요기들이 모두 모이는 정기 수행점검(Interview)과 일요일의 정기법회(Dhamma Talk)도 이 공간에서 이루어 진다.

먼저 사미계 수계의식부터 거행되었다. 사미 지원자가 세 벌의 가사와 발우를 미리 준비해 와야 한다. 이외에도 면도기, 바늘, 벌레 여과기, 혁대가 필요하다. 이를 출가를 위한 또는 수계의식을 위한 여덟 가지 필수품이라 한다. 여기서는 원장 스님의 정인이 가사 등을 구해 와서 건네주었다.

한국 스님은 나더러 의사소통을 위해 중간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먼저 수계를 받을 두 지원자는 불전에 삼배를 올리고 다시 선원장이자 계사인 원장 스님에게 삼배를 올렸다. 가사를 전해 받은 두 지원자는 현장에서 바로 승복으로 갈아입고 계사 스님에게 합장 삼배를 올리고 두 손으로 또 다른 여벌의 가사를 받들어 올렸다. 이에 계사 스님이 선창하는 경문을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번 복창하도록 했다.

"큰 스님이시여, 청하옵건데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제 손에 있는 가사로 저를 사미로 만들어서, 삼계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두 사미 지원자는 가사를 발우 위에 올려놓고 다시 계사 스님에게 삼배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큰 스님이시여, 청하옵건데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큰 스님의) 손에 있는 가사로 저를 사미로 만들어서, 삼계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소서"를 세 번 복창 한 후 다시 삼배를 올린다.

다시 두 사미 지원자는 계사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미계를 줄 것을 청한다. "큰 스님이시여, 청하옵건데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사미계를 주옵소서. 또한 삼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사 스님의 선창에 따라 삼귀의와 사미계를 목숨을 마칠 때까지 지키겠다는 맹세를 한다. 다시 사미계 수계와 삼귀의 사미십계를 따라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계정혜 삼학을 닦을 것을 설하면 수계자는 "예, 대덕이시여(Āma Bhante)"라고 대답한 후 계사 스님께 삼배를 드린다. 이것으로 사미계 수계의식은 끝났다.

함께 수행한 韓人 2명 출가
정해진 의식에 맞춰 구족계
病 유무 · 도피성 여부 묻지만
결혼 사실에 대해선 안 물어

미얀마 불교, 단기출가 가능
단기가 장기출가 이어지기도



삼사칠증에게 구족계를 받는 한국인 출가자들.

다음으로 구족계인 비구계 수계를 위해 선원장 스님을 따라 독립 건물로 지어진 계단으로 이동하였다. 아직도 계단을 '시마(Sīma)'라고 하여 빠알리로 지칭하고 있다. 완전한 수계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미리 삼사칠증(三師七證)의 스님들이 불전 앞에 빙 둘러 앉아 기다리고 있다. 삼사칠증은 구족계를 받을 때 세 명의 스승과 일곱 스님 증인으로, 삼사는 계사 · 갈마사 · 교수사를 말하여, 칠증은 덕이 높은 일곱 스님을 가리킨다. 그 자리의 앞에 두 사미승은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리고 두 사미승 옆에 앉아 삼사칠증 스님이 계문을 합송하면 다시 우리말 계문으로 바꾸어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먼저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붓닷사"를 세 번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의미는 "세존이시여, 아라한이시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분께 절하옵니다"이다. 초기경전에서부터 현재 인도나 동남아 불교도들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항상 이 예경 문구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교수사 스님이 나서 두 사미에게 구족계를 청하는 "대덕이시여, 부디 저의 계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따라하게 한다. 선원장 스님이 계사로 정해지고 이어 교수사 스님이 발우와 가사에 대해 사미의 소유 문제를 점검한다. 다시 두 사미승을 약 5m정도 일어서 물러나게 한다.

이러한 후에 교수사는 두 사미승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구두로 심사한다. 문둥병이나 간질 그리고 심한 피부병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등이다. 그리고 부모가 출가를 허락했는지 여부와 함께 빚을 지거나 어떤 책무로부터 도피한 출가가 아닌지를 묻는다. 마찬가지로 20살이라는 나이도 정확하게 따진다. 만 나이로 19살에 3달 또는 5달이 지난 나이를 20살로 보는데, 이는 원래 율장에서 규정되었는지 아니면 미얀마 방식의 나이 계산법인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의 두 출가 지원자는 모두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초반이며, 또한 한국에 가족이 있는 기혼이다. 그렇지만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결혼한 사람이 구족계를 받으려면 이혼 여부가 증명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이런 저런 질의응답을 마친 후에 다시 금 계사 스님의 법명을 확인하도록 한 후 비구 구족계 230계의 수계의식을 마쳤다. 원래 상좌부 율은 227계인데 3개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같은 초기불교의 율장이지만 한국 〈사분율〉의 비구계는 250계이다.

구족계 수계의식을 정해진 법식대로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시금을 올렸다. 출가를 허락하여 가족에 큰 복을 입게 하여 가족이 계사 스님들께 보시를 올린다는 것이다. 미리 수계자가 준비한 것을 내가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서 삼사칠증의 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올리는 것으로 마쳤다. 어떤 스님은 보시금을 가사를 살짝 펼쳐 받고, 선원장 스님의 경우는 부채로 받았다. 어떤 스님이든지 손으로는 직접 받지 않았다. 계단 밖으로 나와 한국 스님 그리고 미얀마 몇 스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것으로 오늘 한국출신의 상좌불교 출가자가 탄생한 것이다. 두 스님은 각각 소마와 레바타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후 우리는 두 요기를 법명으로 불렀다. 선방에서도 앞자리에 앉아 좌선하였고 또한 공양을 위한 줄을 서는데도 법랍에 따라 스님들의 마지막에 서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공양청에서도 재가자와 달리 스님들 탁자에서 공양을 들게 되었다. 두 스님 모두 승복을 입은 데에 대단히 자부심 어린 모습이다. 이제까지 수계의식을 참관한 적도 없었다. 다만 율장에서 수계의식을 보기만 했던 것을 이곳에서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었다. 아주 귀중한 체험으로 지금도 생생하다.

다음 날 출가한 스님들에 소감이 어떠하냐고 물었다. 그 중 한 스님은 "승복이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겸연쩍게 한마디만 하고 더 이야기를 못했다. 곁에는 한국의 노스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새로운 두 스님을 챙겨준다. 노스님은 어제 출가했지만 오늘은 새해이므로 이미 1년하고도 하루의 법랍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다른 한 스님은 한국에서 컴퓨터 업계에 종사한다고 했다. 3개월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미얀마에 와서 출가 수행한다고 하는데 찬찬히 보니 이전에도 미얀마를 자주 내왕하며 출가하지 않았는가 짐작된다. 가사장삼을 수하는데도 익숙하고 법복을 입으니 이전부터 스님 같은 티가 물씬 난다. 행동거지나 표정에 있어서도 오래 전부터 출가생활 해 온 스님처럼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가장 열심히 수행한다. 선방에 들어서면 반드시 예배 또한 잊지 않는다. 좌선과 경행에 대단히 진지하다.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선방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무언가 이루려하는 간절함이 보인다.

교직에 있다가 방학을 이용해 와서 출가한 레바따 스님 또한 진지하다. 이 스님은 쉬는 시간에도 경행처에서 홀로 열심히 좌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좌선보다는 경행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마하시 방식의 걷기 동작에 공력을 들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이 스님은 교사 출신답게 선방과 경행처에서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예사롭지 않게 관심을 표명한다. 그리고 관여하려 한다. 서울에서 교직생활을 한다는데 불교신앙 또한 말뚝신심처럼 보인다.

미얀마에서는 원하는 대로 여러 번에 걸쳐 출가와 환속이 가능하다. 또한 단기출가가 완전한 출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사미로 짧게는 3일에서 일주일 또는 3개월 안거가 끝나는 사미의 단기출가가 20세의 구족계 출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출가자 급감을 걱정하지 않는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동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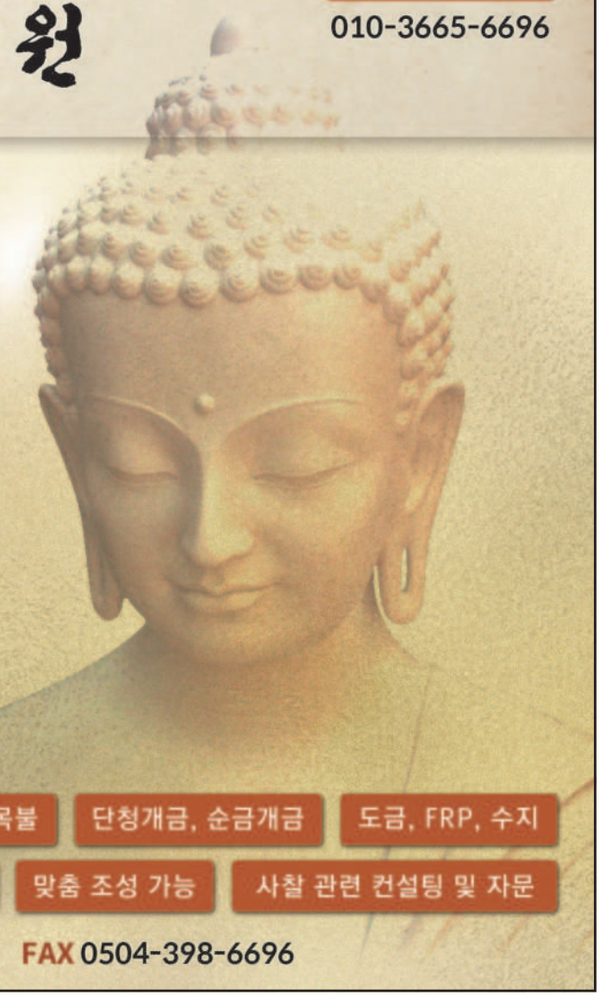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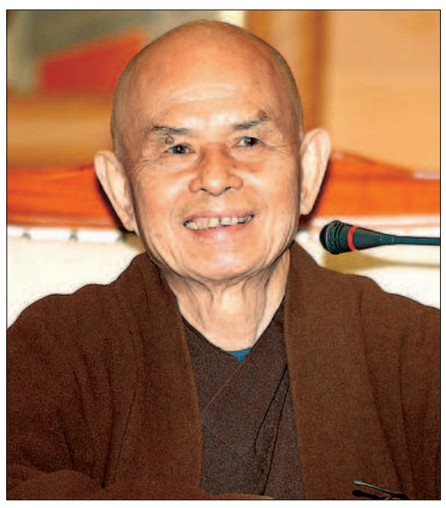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3~3/19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6	용성 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달라이 라마의 입보리행론 강의	달라이 라마/이종복	불광출판사
3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8	금강경삼가해	전재강	운주사
4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9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틱낫한	불광출판사
5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10	만해의 마지막 유마경	한용운	어의운하

마음챙김은 현재 모든 것 알아차린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틱낫한 지음/이현주 옮김/불광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종교지도자, 평화 운동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틱낫한 스님의 산문집이다. 베트남에서의 어린 시절, 출가, 전쟁과 망명 생활,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자두마을)' 공동체 설립,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가르침을 펼칠 시절의 따뜻한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그동안 스님이 펴낸 저서와는 달리, 40여 년 간 망명인으로 살던 고단함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치유한 솔직한 고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틱낫한 스님 특유의 간결한 언어로 그려지는 '깨달음의 순간들'은 우리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마치 내가 그 깨달음의 주인공인 듯하게 느껴진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도록 하는 데 평생을 바친 틱낫한 스님의 삶은 한 인간이 남긴 발자국의 크기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한 답, 바로 그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종교를 떠나 오늘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준 존경 받는 스승 중 하나이다. 7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참여불교와 예술과 마음챙김을 가르친 그는, 100여 권에 이르는 책을 펴내고 여러 언어로 번역, 수백만 권이 팔렸다. 쉽고 친절한 말로 불교를 풀어쓰는 데 노력한 스님은 불교의 중심 가르침인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멈추고 깊이 보라'는 말로 표현하고, '마음챙김'을 처음으로 퍼트렸다. 자두마을 등 그가 세운 공동체에서 따르도록 한 가르침 역시 '열린 마음, 견해에 집착하지 않기, 자유로운 사고, 고통을 알아차림, 단순하고 건강한 삶, 화 다스리기, 이 순간 행복하기, 공동체와 의사소통,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말하기, 승가공동체의 보호, 바른 생계활동, 생명에 대한 경의, 바른 행위' 등등.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덕목들이다.

이 책에서는 그 가르침의 기원이 된 스님의 일화들로 가득하다. 네 살 때 어머니가 장에서 사다 준 과자를 30분에 걸쳐서 아껴 먹으며 행복한 순간을 회상하며 스님은 말한다. "어린 시절에 내가 과자를 먹듯이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즐기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이 어린 시절에 먹던 과자를 지금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안다. 그것이 여전히 당신 가슴 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면 그게 보일 것이다." 또한 화장실이 없어 풀숲에서 바나나 잎으로 휴지를 대신해야 했던 사미승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청소할 변소가 있다는 것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행

2018년 고향 베트남으로 영구 귀국한 아흔 넷의 틱낫한 큰 스님이 들려주는 지금 가장 행복한 존재에 관한 메시지

복할 수 있다. 자기에게 행복할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누구나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야기 하나 더, 베트남 전쟁 당시 폐허가 된 마을 재건에 앞장선 스님은 같은 마을을 세 번이나 복구한 뒤 다시 공격 받자, 다시 복구할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이렇게 말한다. "네 번째라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언제고 전쟁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행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오직 친절한 마음과 연민하는 마음으로써 스스로 빛난 틱낫한 스님. 그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진리와 깨달음'은 가장 단순한 데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조정하며 살아간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보이지 않는 어떤 원칙들이 우리의 인생을 조정한다. 조용하게 나를 움직이는 삶의 원칙들은 무엇인가, 스님의 삶이 우리에게 묻는다. 이 책에서 스님은 호흡, 걷기, 앉기, 듣기, 차, 게송, 껴안기 명상 등 다양한 마음챙김 명상을 소개한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있으면서 모든 것, 우리 안팎에 있는 온갖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 긍정적인 것은 배양하고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껴안고 바꿔 놓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마음챙김 수련이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이루려는 게 아님을 스님은 강조한다. 수련 자체가 큰 기쁨이고 우리가 찾는 평화인 것이다. 수련은 곧 목적(destination)이며, 이는 우리 모두 현재 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옛날 베트남에서는 벚나무 축제를 벌였다. 간혹 날씨가 추워서 예측한 날에 벚꽃이 활짝 피지 않으면 사람들이 벚나무 아래에서 북을 두드리며 나무에게 기운차려 꽃을 피우라고 격려해 주었다. 94년간의 발걸음,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 가슴속에서 깨어나도록 응원하는 따듯한 북소리이다. 스님의 이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북소리를 몇 가지 소개한다.

내 삶의 일분일초가 기적이다

내 삶의 일분일초가 하나의 기적임을 기억하라. 접시들이 거기 있고 내가 그것들을 닦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평화이다

고요와 정적을 즐기는 동안 이들은 시간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시간은 평화임을 알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인생을 깊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사랑에 대한 이해

당신을 사랑한다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내가 두리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은 이해 없는 사랑이다.

호흡을 놓치지 마라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몸을 돌보라

우리 마음이 우리 몸과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살아 있는 거다.

불안에게 말 거는 법

몸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 접속되고 내면의 느낌들을 돌봐줄 수 있다.

용성 스님의 생애는?
불교의 지성화 · 대중화 · 생활화 기여



용성 평전
김택근 지음/불심도문 감수
모과나무 펴냄/3만원



3. 1 독립운동 실질적인 기둥 역할
경 · 율 · 논 삼장 꿰뚫은 절세 선승
삼장역회 통한 경전의 번역과 홍포

올해의 3월 1일은 3.1운동 1백주년을 맞은 날이다. 이제 그 시절의 의인(義人)들은 거의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들의 굳은 뜻은 면면히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용성진종(龍城震鍾, 1864~1940)조사는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3 · 1운동을 주도한 선각자였다. 그 후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일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 용성 스님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 대표로 참여했다.

"아수라장을 불국토로 만드는 일, 그것은 그나마 나라가 있어야 가능했다. 나라가 없으니 백성의 눈물이 강을 이뤄도, 그 강물이 흘러갈 곳이 없었다."

우리나라 근세 불교의 역경초조(譯經初祖), 선농초조(禪農初祖), 정화초조(淨化初祖)로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섰지만, 그 역사적 무게에 비해 아직까지 크게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용성진종조사의 삶과 사상, 깨달음의 발자취를 담은 〈용성 평전〉을 출간했다.

용성 스님은 조선의 억불과 일제의 만행으로 이어진 전통불교 죽이기에 맞서 청정한 수행가풍을 올곧게 지켜냈다. 또 삼장역회를 만들어 한문에 갇힌 경전을 번역해 홍포하는 등 역경 불사를 견인한 포교의 선구자였다. 당시로서는 혁명적 발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풍금을 치면서 작사한 찬불가를 보급하는가 하면 어머니들이 참선 수행할 수 있도록 사찰에 부인선원을 개설해 운영한 전법의 개척자였다.

또한 불제자 양성을 위한 포교와 수행, 인재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외친 스님이기도 하다.

"제자들은 용성의 가르침을 붙들었다. 제자 동산혜일과 고암상언 외에도 손제자 퇴옹성철이 조계종 종정을 맡아 불교계를 이끌었다. 이들이 있어 한국 불교가 바로 섰다. 용성의 제자와 법손들은 용성을 닮아 계율을 중시했고, 선풍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다. 용성 문중은 제자들이 다시 제자를 두어 비범한 법기들이 숲을 이루었다."

저자 김택근 작가는 용성 스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3 · 1독립선언 불교계 대표로만 알려진 자리매김이 오히려 스님의 진면목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민족대표이기 전에 절세의 선승이었다. 용성은 병이 들어온 말년에도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오도의 진리〉〈오도는 각〉〈천수경〉〈지장보살원경〉〈조선글 화엄경〉 등을 짓거나 번역했다. 이 저술들은 하나 같이 영원한 자유를 찾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특히 〈임종결(臨終訣)〉에서는 죽음과 결별하는 구체적 방법들을 문답 형식으로 서술했다. 죽음을 맞기 이전에 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서였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비극의 시대,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잊혀진 시대에 스스로 주인이 되자고 외쳤던 선승의 외침은 여전히 울려 퍼진다.

김주일 기자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정선 염불감응록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여 현생과 내생에
큰 이익을 얻은 이들이 밝히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염불 감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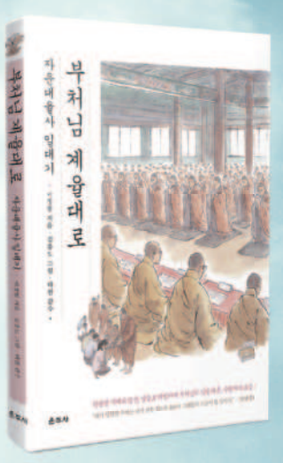
시방연우 지음, 정전 옮김/신국판/296쪽/값 14,000원

한국불교 계율의 중흥조, 자운 대율사 일대기 출간!

부처님 계율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한평생 지계와 참선, 염불로
여법하게 수행한 자운당 성우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



- 1948년 봉암사 결사에서의 첫 수계 이후 1991년까지, 조계종 단일계단 전계화상으로서 출재가자 10만여 명에게 수계한 대율사!
- 매일 10만 번의 '아미타불' 고성염불과 아미타경 48편 독송, 미타예경 1,080배 등을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실천하여 계정일치戒淨一致 수행을 제창한 염불 수행자!

이정범 지음, 김종도 그림, 태원 감수/국판/344쪽/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찰나·영원’ 주목한 바라캇 불교 컬렉션

갤러리 바라캇 서울 ‘찰나와 영원’ 展
4월 7일까지 2부(간다라 불상)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박물관급의 고대 예술 컬렉션을 보유한 바라캇 갤러리가 4월 7일까지 갤러리 바라캇 서울에서 고대 불교 미술품을 선보이는 ‘찰나와 영원’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바라캇 컬렉션 중 엄선된 불교 미술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지난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열린 ‘찰나와 영원’ 전 1부 전시는 중국 명대의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4월 7일까지 ‘아기 부처를 안고 있는 마야 부인상’ 등 간다라 지역 불상 작품을 중심으로 한 2부 전시를 진행한다.

불상의 기원으로 알려진 간다라 미술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만나 탄생했다.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려 했던 그리스 문명과 간다라 지역에서 일어난 대승불교 사상이 만나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간다라 지역에서는 대승불교 사상을 반영하듯 부처님상과 더불어 보살상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작품에는 불법에 귀의하고 보살행을 통해 열반에 이르고자 했던 당시 왕족과 귀족의 장신구와 복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당시 사람들의 상상과 염원으로 조성된 부처님상은 전생담과 초기불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바라캇의 불교 컬렉션은 폭넓은 시대와 지역의 작품들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전시 또한 중국에서부터 인도,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의 불교 조각과 불화로 구성된 전시로 ‘불교’를 공유했던 시대로 돌아가 본다.

기원후 1세기경 헬레니즘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도대륙에서 최초의 상(像)으로 등장한 간다라 불교미술,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와의 교류 속에서 독자적인 양식으로 거듭난 중국 불교미술, 그리고 정교하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명상과 수행에 도움을 주는 티베트 불교미술을 경험할 수 있다.

‘찰나’는 시간의 최소 단위를 일컫는 말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찰나마다 생멸을 반복하면서 무한으로 이어져나간다고 말한다. 이번 전시는 깨달음의 순간, 그 찰나의 시간이 시공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이 되는 불교적 역설에 주목했다.

2천5백여 년 전 인도의 동북부에서 시작된 불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을 보는 찰나의 순간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됐다. 이후 불교는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어 영향력을 확대하고 최초의 세계 종교로 자리매김했다. 석가모니부처를 따른다는 기본 개념을 공유하며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불교문화를 끊임없이 토착문화와 결합해 다채로운 도상을 생산했다.

바라캇 서울은 “이번 전시는 작품의 지역적, 시대적 특색을 살펴보고 동시에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가치, 찰나의 깨달음에 담긴 영원에 대해 고찰해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불교미술을 역사적, 미학적으로 감상하고 나아가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경험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간다라 편암제 아기 부처를 안고 있는 마야 부인상, 편암, 기원후 100~400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부처의 일생묘사 부조들. 간다라 편암, 기원후 200~600

바라캇 서울은 박물관급의 고대 예술 컬렉션을 보유한 바라캇 갤러리가 런던, 로스엔젤레스, 아부다비에 이어 서울에 문을 연 새로운 개념의 전시공간이다. 바라캇 갤러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 비잔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프리콜롬비아 등 시대와 지역을 망라하는 4만여 점의 수준 높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바라캇 갤러리의 시초는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라캇 가문은 5대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수집한 성서유물을 기반으로 전세계의 유물로 컬렉션을 확장해나갔다. 또한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과 협업하며 품격있는 고대예술품을 박물관, 개인 컬렉터들과 소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문화, 예술, 고고학 등 다방면으로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바라캇 서울에서는 바라캇 패밀리 중 최초로 고대예술 컬렉션과 더불어 현대미술 공간을 열었다.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도하는 현대미술 전시를 통해 옛 흔적과 새 시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다양성, 이질적인 문화의 교차와 충돌, 여러 분야의 협업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며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해석하는 미래를 창조해 나아가고 있다. (02)730-1949

뉴욕으로 간 고려 사경·불화

김경호 · 조이락, 사경 · 불화 초청전
‘깨달음, 명상 그리고 보살의 길’
뉴욕 티베트하우스 3월 13일~5월 9일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미술인 고려사경과 고려불화가 미국 뉴욕에서 전시된다. 뉴욕한국문화재단(이사장 김지영)은 3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뉴욕 티베트하우스에서 사경가 김경호 작가와 불화가 조이락 작가의 초청전 ‘깨달음, 명상 그리고 보살의 길’을 개최한다.

아시아위크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초전법륜도 만다라’, ‘감지금니일불일자 화엄경약찬게’ 등 김경호 작가의 대표 사경 작품과 ‘수월관음도(물방울)’ 등 조이락 작가의 고려불화 대표 작품들이 티베트 고대 탕카와 함께 전시된다.

아시아위크는 세계적인 화랑들이 밀집한 뉴욕 맨하탄에서 아시아미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2009년 뉴욕시 차원에서 시작됐다. 매년 3월에 10일 동안 메트로폴리탄, 브루클린 박물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티베트하우스, 뉴욕 한국문화원, 루빈 박물관, 재팬 소사이어티 갤러리 등 뉴욕의 크고 작은 박물관과 전시관 등이 아시아 미술전시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아시아 미술과 작가들을 소개한다. 이 기간 중에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세계적인 딜러, 갤러리 관계자, 큐레이터와 컬렉터들이 찾아와 작가들의 작품과 만난다. 뉴욕한국문화재단은 “고려불화와 고려사경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심의 대부분은 고려시대 작품에만 머물러 있고, 이 시대의 작가에는 관심이 적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를 뛰어넘는 이 시대 작가들의 작품과 작가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시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作 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좌측)와 조이락 作 수월관음도.

티베트 하우스는 티베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구이면서 상설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티베트 불교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심속 포교당이자 문화원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인적 ·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계의 사회인사와 헐리우드 배우, 팝스타들을 대거 티베트 하우스 사업에 동원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작품 전시, 출판,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미국 사회에 티베트 문화를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티베트의 명상법을 접할 있는 수행처이기도 하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 원장인 김경호 작가는 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이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통사경 기능 전승자로 한국 전통사경의 개척자이다. 조선왕조 이후 600년 동안 단절되었던 사경의 전통을 계승했다. 19회의 사경 개인전과 초대개인전을 가졌고 20권의 저서(공저 3권을 포함)가 있다.

조이락 작가는 서양화가로 활동하던 중, 1999년 우연히 본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 매료되어 불화에 입문했다. 이후 용인대 대학원에서 고려 불화와 유물재현을 공부했으며, 모사와 보존과학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다. 대표적인 고려불화 재현전시는 2005년 용인대학교박물관에서의 개인전과 2015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고려불화 재현전’, 2017년 뉴욕에서 개최한 ‘고려불화 그 신비함과 만오천불도, 아미타여래도’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展 연장

국립대구박물관 6월 30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열린 테마전시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의 전시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지난해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던 전시는 금광리 유적의 고려시대 사찰 금강사지에서 출토된 광명대 등 고려시대 유물 34점을 전시해 고려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광명대는 우리나라에서 23점 정도만 알려져 있고 광명대와 함께 출토된 향완이나 청동솥 등이 우물 속에서 확인된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금강사터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려시대 지방사, 불교사 연구에 있어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금강사의 존재가 밝혀진 영주시 금광리 일대는 영주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053)760-8542 박재완 기자





어려운 문화재 설명, 쉽게 바뀐다

문화재청, 2500여 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추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탑은 불사리 신앙을 바탕으로 발생한 불교 특유 조형물로서 대웅전 앞마당의 자오선상에 일탑 또는 쌍탑으로 배치된다." - 범어사 삼층석탑(보물 제250호) 안내판 중 일부

'불사리', '자오선상', '일탑 · 쌍탑' 등 전문용어로 채워졌던 문화재 안내판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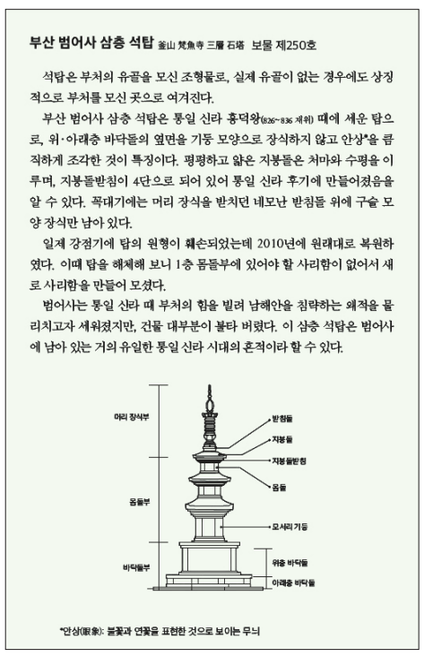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관람객이 문화재 안내판을 통해 문화재에 담긴 역사와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을 추진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차를 맞는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은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고궁과 조선왕릉, 고도(古都)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에 있는 주요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 1차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개선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전국 1,392개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 약 2,500여 개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약 56억 원을 포함한 총 103억 원이 투입된다.

전문용어 풀고 이야기 담아
1300여 곳 문화재 안내 개선
국비 등 103억원 예산 투입
시민자문단 · 모니터링 실시도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참여 행사 등을 통해 잘못된 안내판으로 접수된 의견은 총 355건이었으며, 이 중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들어간 안내판과 내용 · 번역 오류, 낡거나 훼손돼 잘 보이는 않는


부산 범어사 삼층 석탑 釜山 梵魚寺 三層 石塔 보물 제250호

석탑은 부처의 유골을 모신 조형물로, 실제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상징적으로 부처를 모신 곳으로 여겨진다.

부산 범어사 삼층 석탑은 통일 신라 흥덕왕(826~836 재위) 때에 세운 탑으로, 위·아래층 바닥돌의 옆면을 기둥 모양으로 장식하지 않고 안상*을 큼직하게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평평하고 얇은 지붕돌은 처마와 수평을 이루며, 지붕돌받침이 4단으로 되어 있어 통일 신라 후기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을 받치던 네모난 받침돌 위에 구슬 모양 장식만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탑의 원형이 훼손되었는데 2010년에 원래대로 복원하였다. 이때 탑을 해체해 보니 1층 몸돌부에 있어야 할 사리함이 없어서 새로 사리함을 만들어 모셨다.

범어사는 통일 신라 때 부처의 힘을 빌려 남해안을 침략하는 왜적을 물리치고자 세워졌지만, 건물 대부분이 불타 버렸다. 이 삼층 석탑은 범어사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통일 신라 시대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안상(眼象): 불꽃과 연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무늬

문화재청이 제시한 문화재 안내판 사례. 어려운 전문용어를 줄이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도 삽입했음을 알 수 있다.

안내판 등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166건은 올해 안내판 개선사업에 포함됐다.

문화재청이 개선코자 하는 문화재 안내판 개선 방향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해당 문화재의 역사를 이야기로 반영할 것도 권고한다.

실제 문화재청이 사례로 제시한 범어사 삼층석탑의 경우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설명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원형 훼손 · 범어사 창건 배경 등 전반적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놓았다. 또한 석탑의 각 부위 명칭들을 도상을 통해 설명해 놓은 것도 눈길을 끈다.

현재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월 배포했다. 또한, 문화재를 찾는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문안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표기 용례집〉 등 지침도 제 · 개정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2일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안내문안 집필진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워크숍' 을 개최해 국 · 영문 안내문 작성방안, 안내판 디자인과 설치 등에 대한 토론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공유한다.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가 문화재의 성격과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한 문화재 안내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교육과 조언,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올해 정비되는 2,500여 안내판 이외에도 문안, 배치, 규모, 관리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문화재청 홈페이지 오류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항상 제보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다.

올해는 국민이 안내문 작성과 검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자문단' 도 신설 · 운영된다. 지자체별로 구성되는 시민자문단에는 안내판에 관심있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안내문의 작성과 검토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사진 왼쪽)이 3월 12일 오후 예산 수덕사를 방문해 대웅전(국보 제49호) 뒷편에 산불피해를 대비해 설치된 수막시설과 방수총 등 사찰의 소방설비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문화재청, 수덕사 안전 종합점검 실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월 12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정묵)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을 비롯해 정재숙 문화재청장, 황선봉 예산군수와 기관 · 자자체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국보 제49호 대웅전의 주변시설물 안전 상태와 옥외소화전, 수막설비, 방수총, 재난상황 통보 관제 시스템 등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또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에서는 3D스캔과 측량기, 드릴저항측정기, 초음파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점검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무이당 소조여래좌상을 둘러보고 소조여래좌상 안에서 수습된 1240년 최이가 간행한 〈묘법연화경〉과 대각국사 의천이 간행한 〈대방광불화엄경소〉, 재조대장경 〈사아함모초해〉 절첩본 등을 전시하고 있는 성보박물관의 전시유물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은 한 번 쓰러지면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존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문화재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 사회화' 연구 · 천착의 궤적

정년퇴임한 박경준 교수
28편 논문 모아 총서 펴내
'산 불교' 고민했던 연구들
"적극적 사회의식 필요" 주문



최근 정년을 맞는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불교사회경제사상〉 등의 저서를 통해 응용불교학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학자다.

그가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에는 당시 시대 현안에 대한 불교적 고민과 불교의 사회참여 등 '불교 사회화' 에 대한 고민들이 담겼다. 박경준 교수의 이 같은 학문적 궤적을 만나볼 수 있는 총서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가 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발표한 주요 논문들을 재정리한 것으로 '불교의 사회화 · 생활화' 를 주제로 한 28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은 '불교의 사회화' 라는 큰 주제의 이론적 토대를 성찰한 것도 있고, 그 당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모색한 것도 상당수다. 물론 전자의 논문들은 시기에 구애되지 않는 본질적 성찰이지만, 후자의 논문들에 드러난 문제의식도 현실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 여전히 유의미하다.

'불교 업설에서의 동기론과 결과론' 에서는 불교 업설은 행위의 의도를 중시하는 동기론이지만 결과론적인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박경준 교수는 관념론으로 흐르기 쉬운 동기론적 사고는 특히 사회적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반면, 결과론적 사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실천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착한 동기만이 선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낳은 행위도 선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불교의 사회적 실천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불교의 지상과제인 전법 · 포교를 학문 · 이론적으로 정립하기위한 고민들도 있다. '전법교화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에서는 전법교화학의 필요성과 이론 체계를 분류했으며, 선결과제로는 〈통일불교성전〉의 발간과 활용을 주문했다.

'불교적 가족개념과 가족포교' 에서는 가족포교에 대한 중요성과 포교 프로그램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박경준 교수

이밖에도 환경 · 노동 · 현실참여 · 문화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를 접목해 연구 · 천착한 논문들은 주의 깊게 읽어볼 만 하다.

저자가 다방면에 걸쳐 연구 주제를 펼쳐놓은 것은 '산 불교' 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경전 속에 갇혀 있는 종교가 죽은 종교라면,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종교가 산 종교이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빠른 시대변화가 몰고 온 수많은 사회적 난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역사를 능동적으로 향도해 오지도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교인의 투철하고 적극적인 사회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불교교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저자는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이지만 깨달음 이상주의, 깨달음 신비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한다. 즉 그가 이해하는 불교는 '깨달음을 위한 삶' 이 아니라 '삶을 위한 깨달음' 을 가르치는 종교인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가장 뛰어난 모범을 고타마 붓다에게서 찾는다. 붓다는 깨달음을 이룬 후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의 미혹을 깨뜨리고 중생의 고통을 보듬기 위해 세간 속으로 뛰어들었으니, 그는 깨달음이 삶의 완성이 아니라 참다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현학(衒學)과 사변(思辨)으로서의 불교학을 지양하며 불교를 주체적 · 역동적 '삶의 예술' 로 정의한다.

저자에게 '불교의 사회화' 와 '불교의 생활화' 는 학문적 화두다. 이 책은 그 화두를 참구한 학문적 결정체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숲침대



숲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숲침대
◆ 숲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숲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숲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⑤ 경칩(驚蟄)
머위무침 · 미나리유부된장찜 · 쑥버무리뿌리떡

입맛 돋우는 쌉싸래한 나물 향연

아지랑이가 스멀스멀 새벽기운을 타고 땅위에 올라온다. 옆 개울가 습기는 밤새 해동피나무에 서식하는 반딧불의 불빛을 키우느라 고단한 밤을 지새웠으리라.

경칩은 겨우내 먹던 음식을 순식간에 잊게 하는 쌉싸래한 나물들이 많은 절기다. 머위는 꽃대부터 올리고 엄지손톱만한 이파리를 만들고 있다. 줄기의 신선한 보라색은 선명하고 기름지다. 고추장과 된장의 쓰임새가 좋은 철이다. 또한 산미나리의 향을 그리워하는 경칩이다.

녹는 땅의 온기만큼 자라는 산미나리는 오롯이 혼자인 계절이 딱 지금이다. 언 땅에 남아있는 풀들의 자취도 찾기 어려울 때 쌓인 낙엽아래에서 분주한 생명다툼이 시작될 무렵부터 미나리는 고개를 조금씩 내밀어 본다.

이미 머위도 나와 있고 입춘에 자란 광대나물은 꽃을 피우고 있다. 산미나리는 주위를 살피며 "누구 없소! 나도 이제 막 채비를 하고 있소!"라고 외치듯 길동무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쑥쑥 키를 키운다. 바라보기 위한 자람이 아니라 주변의 풀들에게 햇볕을 빼앗기면 자신이 온전해지기 어려우니 키를 키울 수밖에 없다.

매일 아침 개울가의 산미나리를 위해 잡풀을 뽑아준다. 방송 스케줄에 맞추어 잘 자라준 산미나리 덕에 산중의 산미나리 음식은 더욱 돋보일 수밖에…. 미나리강회, 미나리전, 미나리감자초회 등 미나리는 약방의 감초만큼 잘 쓰이는 식재료 중 하나다.


머위무침


미나리유부된장찜


쑥버무리뿌리떡

미나리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좋은 효능을 말해준다. 근자에 와서는 해독주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좋은 미나리를 구하기에는 발품이 필요하다. 모든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는 저항물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봄에 자라는 녹색식물은 간 · 담에 좋은 기능을 한다.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항암효과도 보인다.

모든 식물은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물상태에서 법제를 통해 예부터 단방약으로도 사용되었다. 미나리는 특히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효과가 있음을 각종 논문사례에서 볼 수 있다. 미나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소람네틴 성분은 간 기능 개선과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한다.

스님들에게는 경칩무렵 국수의 고명으로 자주 밥상에 오르는 산미나리가 좋은 향기만큼 상큼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세속과 다르게 멀건 장국에 국수를 만들어 녹색 빛 밝은 기운의 산미나리와 숙주를 무쳐서 국수에 올려내면, 딱히 더하지 않아도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승소음식이 되기도 한다.

우수 무렵 양지뜰에 간혹 보이던 쑥이 빛의 속도로 자라고 있다. 비운 뜰마다 토끼풀과 자리다툼의 제왕인 쑥은 여전히 잔치음식 중 빠지지 않는 쑥떡으로 자리매김 한지 오랜 세월이다. 절마다 쑥을 가지고 쑥개떡, 쑥버무리, 쑥인절미, 쑥국으로 봄의 향연을 즐기는 시기이다.

머위무침
어린 머위잎 100g, 참기름 1T, 참깨가루 약간, 초고추장(고추장 1T · 식초1T · 조청1t)

1. 머위는 잎과 뿌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뺀다.
2. 초고추장을 만든다.
3. 그릇에 머위를 담고 초고추장을 뿌려 골고루 버무린 뒤 참기름과 참깨가루를 넣고 버무린다.

미나리유부된장찜
사각유부 8개, 미나리 150g, 두부 1모, 건표고버섯 3개, 다시마 20g, 당근 30g, 집간장, 참기름, 소금 적당량씩, 양념(된장 2T, 조청 1T, 집간장 ½T, 채수 ½컵)

1. 물 1컵에 다시마, 표고를 넣고 끓여 채수를 준비한다.
2. 채수에서 건진 표고버섯은 물기를 짜고 다져서 집간장과 참기름으로 밑간해 덖는다.
3. 유부는 끓는 물에 두 번 데치고 찬물에 헹궈 기름기를 뺀 뒤 물기를 짠다. 두부는 데친 후 으깨면서 물기를 짜고 참기름과 집간장으로 간한다.
4. 미나리는 끓는 물에 데쳐내어 물기를 짠 뒤 다져서 집간장과 참기름으로 무친다.
5. 당근은 곱게 다져서 참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소금으로 간해 볶는다.
6. 준비한 표고버섯, 당근, 두부, 미나리를 잘 섞어 유부소를 만든다.
7. 유부의 한 면을 자른 뒤 소를 넣고 데친 미나리 줄기로 묶어 유부주머니를 만든다.
8. 냄비에 된장, 조청, 집간장, 맛국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유부주머니를 넣고 3~4분 정도 졸여준다.

쑥버무리뿌리떡
멥쌀가루 300g, 쑥 150g, 단호박 50g, 비트 40g, 밤 5~6개, 소금 ½t, 물 2T

1. 쑥은 잘 다듬어 손질해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2. 단호박, 비트, 밤은 작게 깍둑썰기를 한다. 이때 비트는 30분정도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닦아준다.(그래야 비트물이 들지 않는다.)
3. 멥쌀가루는 소금, 물을 잘 섞은 후 체에 한 번 내려준다.
4. 체에 내린 멥쌀가루에 쑥과 단호박, 비트, 밤을 넣고 섞어준다.
5. 찜솥에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베보자기를 깔고 준비한 재료를 넣는다.
6. 센 불에서 20분 정도 쪄낸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⑤ 어지럼증

'어지럼증', 무심히 넘길 일 아니다

봄이 시작됐다. 봄은 오행 중에 나무와 바람의 기운을 가져 성장이나 급속한 변화와 관련된 생리작용과 질병을 불러온다. 갑작스런 혈압의 변화나 어지럼증이 대표적으로 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겨우내 정체되었던 몸의 기능이 계절의 변화에 맞춰 나무와 바람의 기운을 따라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요즘 증가하고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본다.

어지럼증은 그 증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어렵지만 머리가 띵한 정도에서부터 눈앞이 빙빙 도는 심한 정도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현기증이나 현훈증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지럼증은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처음부터 걱정만 할 일도 아니고 또한 결코 무심히 넘길 일만도 아니다. 다만 생명에 지장을 주는 위중한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우선 차근차근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주로 몸이 피곤하거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합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것이다. 또한 드물지만 자율신경계의 장애로 인해 머리로 가는 혈액 순환량이 감소되어 생길 수도 있다.

어지럼증을 분류하는 방법도 일정하지 않지만 증상의 형태에 따라 현훈, 균형장애, 실신성 어지럼증, 심인성 어지럼증, 기타 어지럼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원인 질환의 기원에 따라 말초성 원인(주로 귓속에 있는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의 이상), 중추성 원인(주로 뇌 기능의 이상) 및 전신 질환(빈혈, 당뇨병, 갑상선 질환, 약물 복용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지럼증은 도대체 왜 생긴 것일까?

첫째, 어지럼증이 빙빙 도는 느낌인지 살펴본다. 도는 듯한 어지럼증은 뇌에 이상이 생긴 중추성보다는 귓속에 이상이 있는 말초성일 때가 많다. 반면 도는 느낌이 아닌 비회전성 현훈의 경우는 뇌 기능의 이상,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및 갱년기장애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특히 순간 아찔하게 느껴지는 어지럼증은 혈압이 갑자기 저하되는 경우와 연관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일어설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자율신경실조증, 뇌저동맥부전증 등이 그러한 상황을 일으킨다.

둘째, 반복적으로 생기는가, 아니면 한번 생기고 만 것인지 살펴본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메니에르증후군, 뇌저동맥부전증을 고려할 수 있고, 한번 발작한 것이면 돌발성 난청, 전정신경염일 수 있다.

셋째,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본다. 이명(귀울음)과 난청이 동반되면 귓속의 내이장애를 의심한다. 사물이 요동치는 듯이 보이면 양측 미로장애와 약물에 의한 전정장애 때문일 수 있다. 사물이 겹쳐 보이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운동실조가 있으면 뇌간에 생긴 병변을 확인해야 한다. 또 두통과 함께 나타나면 큰 문제가 없는 양성 재발성 현훈이 흔하지만 소뇌에 출혈이 생겼거나 이 부위에 있는 혈관이 막힌 소뇌경색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인 정확한 파악 중요
악화되면 '뇌종양' 의심해야

넷째,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지 유발조건을 확인해본다. 가령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것처럼 일정한 머리 위치로 인해 유발되며, 눈의 떨림이 30초 이하로 나타난다면 양성 발작성 두위성 현훈(이석증)을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눈의 떨림이 지속적인 경우는 중추성 두위성 현훈을 의심한다. 또 목의 움직임으로 유발되는 경우는 경추를 지나는 혈관이나 신경에서 비롯된 현훈과 머리의 아랫부분에 분포하는 추골뇌저동맥의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세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증상의 추이를 살펴보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악화되면 뇌종양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결하게 정리해보자. 어느 날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다. 이때 우선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이상이 없고 머리가 아픈 것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대개 심각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피로, 허약, 긴장, 편두통, 기립성 저혈압, 양성 체위성 현훈 등으로 생겼을 수 있다. 물론 확실한 원인 질환의 감별을 위해서는 신체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CT 및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검사를 받아야할까? 떨림, 마비, 경련 등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자세불안이 심한 경우, 경험하지 못했던 심한 두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중추성 요인의 눈 떨림을 나타내는 경우, 48시간이 지나도 어지럼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지만 단순한 자세변화에 의한 현훈이나 피로, 자율신경실조 등에 의한 경우에는 사물탕과 사군자탕을 합한 팔진탕 등의 처방을 써서 기혈(氣血)을 보강하거나 나무와 바람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한약과 침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요즘 흔한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의 경우에도 특정한 방법으로 머리를 돌려서 이석의 위치를 정상화시키는 이석정복술을 시행한 다음, 한의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좋다.

한편 난치성인 메니에르증후군 역시 한의치료가 기대되는 어지럼증의 원인 질환이다. 이 병은 갑자기 발생하여 수 분에서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어지럼증과 함께 귀가 꽉 찬 느낌과 이명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발작이 반복될수록 청력도 감소된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귀 안의 막성 미로 속에 임파액이 축적되고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주된 병리 기전이므로 한의학에서는 수기(水氣)를 빼고 풍(風)을 진정시키는 치료를 적용한다. 수개월 동안 오령산과 방풍, 조구등, 구기자 등의 한약을 투여하고, 귀 주변의 경혈과 간(肝) 경락의 혈자리에 침치료를 정기적으로 병행하여 발작의 정도와 빈도를 감소시키고, 청력 감퇴를 예방한다.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